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8권 (제85회 ~ 제96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85회 — 유선이 유언으로 고아를 부탁하고, 제갈량이 안주하여 다섯 길을 평정하다	6
제86회 — 장온을 어렵게 하고 진복이 하늘 같은 변설을 펼치며, 조비 의 군사를 깨뜨리고 서성이 화공을 사용하다	26
제87회 — 남쪽을 정벌하려 승상이 크게 군사를 일으키고, 천병에 맞 서 만왕이 처음으로 붙잡히다	48
제88회 — 노수를 건너 번왕을 다시 사로잡고, 거짓 항복을 알아채고 맹획을 세 번 사로잡다	68
제89회 — 무향후가 네 번 계책을 쓰고, 남만왕이 다섯 번 사로잡히다	88
제90회 — 거대한 짐승을 몰아 만병을 여섯 번 물리치고, 등갑을 태워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다	109
제91회 — 노수를 제사 지내며 한나라 상이 군사를 일으키고, 중원을 정벌하려 무후가 상소를 올린다.....	134
제92회 — 조자룡이 다섯 장수를 힘차게 베고, 제갈량이 지혜로 세 성 을 취하다	154
제93회 — 강백약이 공명에게 귀순하고, 무향후가 왕랑을 꾸짖어 죽이 다.....	172
제94회 — 제갈량이 눈 속에서 강족 병사를 격파하고, 사마의가 기일 을 놓치지 않고 맹달을 사로잡다.....	190

제95회 — 마속이 간언을 거부하여 가정을 잃고, 무후가 거문고를 타 서 중달을 물리치다	209
제96회 — 공명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고, 주방이 머리카락을 자 르고 조휴를 속이다	231

제85회 — 유선이 유언으로 고아를 부탁 하고, 제갈량이 안주하여 다섯 길을 평정 하다

劉先主遺詔託孤兒 諸葛亮安居平五路

한편, 장무 2년 여름 6월, 동오의 육손이 이릉 효정 땅에서 촉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유비는 급히 백제성으로 도망쳐 돌아왔고,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지켰다. 이때 마량이 달려와 대군이 이미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음을 깨달으며, 제갈량의 말을 유비에게 전했다. 유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진작 승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같은 패배는 겪지 않았을 텐데! 이제 무슨 면목으로 성도로 돌아가 신하들을 보겠는가!" 그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백제성에 머물게 하고, 관아와 역참을 고쳐 영안궁이라 이름 붙였다. 풍습, 장남, 부동, 정기, 사마가 등이 모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비는 슬픔을 금치 못했다. 한편 측근 신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황권이 강북의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의 가족을 관청에 보내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라고 했

다. 유비가 말했다. "황권은 오나라 군사에게 가로막혀 강북 기슭에 고립되는 바람에 돌아올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나라에 항복한 것이다. 이는 내가 황권을 저버린 것이지, 황권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어찌 그의 가족에게 죄를 묻겠는가?" 유비는 오히려 녹봉과 곡식을 내려 그 가족들을 보살피게 했다.

한편, 황권이 위나라에 항복하자 여러 장수가 조비를 찾아가 그를 소개했다. 조비가 물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항복한 것이, 옛날의 진평이나 한신처럼 대의를 쫓으려는 것이오?" 황권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신은 촉나라 황제로부터 더할 나위 없이 두터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신이 강북에서 여러 군대를 거느리고 있을 때 육손에게 길이 끊겨 고립되었습니다. 촉나라로 돌아갈 길은 막혔고, 오나라에 항복할 수도 없었기에 폐하께로 왔습니다. 패전한 장수로서 목숨을 부지한 것 만으로도 다행한 일인데, 어찌 감히 옛사람들을 본받으려 하겠습니까?"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황권을 진남장군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황권은 완곡히 거절하며 받지 않았다. 그때 곁에 있던 신하가 보고했다. "촉나라에서 온 첩자가 있는데, 촉나라 황제가 황권의 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권이 말했다. "신과 촉나라 황제는 서로 진심으로 믿는 사이입니다. 황제께서 신의 본심을 아신다면 결코 신의 가족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비도 그 말을 믿었다. 훗날 어떤 이가 황권을 비판하며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오나라에 항복할 수 없다며 조조에게 항복했으니, 충의를 다하면서 어찌 두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는가? 황권이 죽음을 아까워한 것을 탄식하노니, 자양의 법도는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네."

조비가 가후에게 물었다. "짐이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데, 먼저 축을 취해야 하겠소, 아니면 먼저 오를 취해야 하겠소?"

가후가 대답했다. "유비는 영웅의 기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갈량까지 있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능합니다. 동오의 손권은 허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육손은 험요한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강과 호수를 방패 삼아 방어하고 있으니 단번에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보기에 여러 장수 중 손권이나 유비의 상대가 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비록 폐하의 천하를 뒤흔드는 위엄으로 압박한다 해도, 아직 만전의 형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수비하며 두 나라 사이에 생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비가 말했다. "짐이 이미 세 갈래의 대군을 보내 오나라를 치게 했으니, 어찌 이기지 못할 리가 있겠소?"

그러자 상서 유엽이 말했다. "최근 동오의 육손이 촉나라 군사 70만 명을 격파하여 나라 안팎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게다가 강과 호수가 가로막고 있어 단번에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손은 지략이 많은 자이니 분명 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조비가 물었다. "경은 전에는 짐에게 오나라를 치라고 권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말리는 것은 어찌 된 일ियो?"

유엽이 대답했다. "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동오가 촉나라에 연달아 패하여 기세가 꺾여 있었기에 공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승리하여 기세가 백 배나 높아졌으니,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조비가 말했다.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경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말을 마친 조비는 친히 어림군을 이끌고 나가 세 갈래의 군마를 맞이하러 갔다. 그런데 이미 정찰병이 돌아와 동오가 미리 대비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여범이 군사를 이끌고 조휴를 막아섰으며, 제갈군은 남군에서 조진을 막아섰고, 주환은 누수에서 조인을 막아섰다는 내용이였다.

유엽이 말했다. "이미 저들이 대비를 마쳤으니, 지금 가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조비는 듣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떠나갔다.

한편, 동오의 장수 주환은 이제 겨우 스물일곱 살이었으나 담력과 지략이 매우 뛰어나 손권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당시 누수성에서 군사를 감독하던 주환은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선계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환은 즉시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선계를 지키게 하고, 성에는 기병 오천 명만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인이 대장 상조와 함께 제갈건, 왕쌍을 거느리고 오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누수성을 향해 급히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를 들은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주환이 칼자루를 누르며 말했다.

"승패는 장수의 역량에 달린 것이지, 병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군이 아군보다 두 배나 많더라도 아군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다. 지금 조인은 천 리 길을 멀리 달려오느라 군사와 말들이 모두 지쳐 있다. 우리도 높은 성에 의지하여 남으로는 큰 강을 마주하고 북으로는 험한 산을 등진 채,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이는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형세다. 설령 조비가 직접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거늘, 하물며 조인 따위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말을 마친 주환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추게 하여, 마치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한편, 위나라의 선봉장 상조가 정예병을 거느리고 누수성을 공격하려 왔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성 위에는 군마의 기척이 전혀 없었다. 상조가 군사를 재촉하여 성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다다랐을 때, 갑자기 포성 한 번이 울리더니 깃발들이 일제히 솟구쳤다. 이때 주환이 칼을 옆에 끼고 말을 달려 나와 상조를 향해 돌진했다. 채 세 합도 싸우지 못하고 주환의 칼에 상조는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오나라 군사들이 이 기세를 몰아 몰아치자 위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였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주환은 크게 승리하여 수많은 깃발과 무기, 군마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뒤이어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으나, 오나라 군사가 선계 쪽에서 들이닥치는 바람에 조인 역시 대패하여 퇴각했다. 조인이 돌아와 위나라 황제에게 대패한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자 조비는 크게 놀랐다. 한창 정사를 논하던 중, 갑자기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조진과 하후상이 남군을 포위했으나, 안에서는 육손이 북병을 매복하고 밖에서는

제갈근이 복병을 매복하여 안팎으로 협공하는 바람에 대패했습니다."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정찰병이 달려와 외쳤다. "조휴 또한 여범에게 패했습니다!"

세 갈래 길에서 모두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비는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가후와 유엽의 말을 듣지 않았더니, 결국 이런 패배를 겪는구나!" 마침 여름이라 전염병까지 크게 돌고 있어, 마병과 보병 열 명 중 예닐곱 명이 죽어 나갔다. 결국 위나라는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오나라와 위나라 사이에는 화합이 사라졌다.

한편, 유비는 영안궁에서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점점 깊어졌다. 장무 3년 여름 4월에 이르러, 유비는 병이 사지까지 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관우와 장비 두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병은 더욱 깊어져 눈앞이 흐릿해지고 곁에 있는 신하들을 보는 것조차 싫어졌다. 유비는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홀로 용상 위에 누웠다.

그때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등불을 흔들더니, 꺼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등불 그림자 아래를 보니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유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마음이 불안하여 너희를 물러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왔느냐!” 유비가 꾸짖었으나 그들은 물러가지 않았다. 유비가 일어나 살펴보니, 위쪽에는 관우가, 아래쪽에는 장비가 서 있었다. 유비는 크게 놀라며 외쳤다. “두 동생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관우가 말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하늘이 저희 두 사람이 평생 신의를 잃지 않았음을 보시고 모두 신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형님께서도 머지않아 저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비는

그들을 붙잡고 크게 통곡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두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즉시 사람을 불러 물으니 마침 한밤중 세경이었다. 유비는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이제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유비는 즉시 사자를 성도로 보내 승상 제갈량과 상서령 이엄 등을 불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영안궁으로 와서 유언을 받들도록 했다. 제갈량 일행은 유비의 차자인 노왕 유영, 양왕 유리와 함께 영안궁으로 와서 유비를 알현하였고, 태자 유선은 성도를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한편, 제갈량이 영안궁에 도착하니 유비가 위독한 상태였다. 제갈량은 황급히 용상 아래에 엎드려 절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용상 옆에 앉으라는 명을 내리고는,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짐이 승상을 얻은 덕분에 황제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소. 그런데 내 식견이 얕아 승상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셈이구려. 후회와 한이 병이 되어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소. 뒤를 이을 아들이 유약하니, 어쩔 수 없이 승상에게 이 큰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구려."

말을 마친 유비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 흘렀다. 제갈량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폐하,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어 천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옵소서!"

유비가 눈을 돌려 주위를 살피다가 마량의 동생인 마속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마속을 물러가게 했다. 마속이 물러가자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승상은 마속의 재주를 어떻게 보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인재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아니오. 내가 보기에는 그가 말만 앞설 뿐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크게 쓸 인물은 아니오. 승상께서도 그를 깊이 살피셔야 하오."

유비는 당부를 마친 뒤 신하들을 전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종이와 붓을 가져다 유언을 적은 뒤, 제갈량에게 건네며 탄식하며 말했다.

"짐은 책을 읽지 않아 대략적인 것만 알 뿐이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새가 죽을 때 울음소리가 슬프듯,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선하다'고 하였소. 짐은 본래 승상과 함께 조조의 무리를 물리치고 한나라의 대업을 함께 세우려 했으나, 불행히도 도중에 이별하게 되었구려. 번거로우시겠지만 승상께서 이 유언을 태자 유선에게 전해주시고, 이 말을 예사로운 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일러주시오.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승상께 부탁하겠소!"

제갈량 등이 땅에 엎드려 울며 절했다. "폐하, 부디 옥체를 보살피소서! 저희는 폐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진 힘을 다

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유비는 내시를 시켜 제갈량을 부축해 일으키게 했다. 유비는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갈량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짐이 이제 죽으려 하니, 마음속에 품은 말을 그대에게 전하려 하오!" 제갈량이 물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비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열 배는 뛰어나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 아들이 보필할 만하다면 보필하고, 만약 그가 재능이 없다면 그대 스스로 성도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오." 제갈량은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놀라, 땅에 엎드려 울며 절했다. "신이 어찌 온 힘을 다하고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켜 대업을 잇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친 제갈량은 머리가 피가 흐를 정도로 땅에 머리를 찼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침상에 앉게 한 뒤, 노왕 유영과 양왕 유리를 가까이 불러 분부했다. "너희는 모두 짐의 말을 명심하라. 짐이 죽은 뒤에 너희 삼 형제는 모두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을 마친 유비는 두 왕에게 제갈량에게 함께 절하라고 명했다. 두 왕이 절을 마치자 제갈량이 말했다. "신이 비록 간과 쓸개를 다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폐하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유비가 여러 신하에게 말했다. "짐은 이미 승상에게 내 아들을 부탁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승상을 섬기게 하라고 명했다. 경들은 모두 게으름을 피워 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어 조운에게도 당부했다. "짐과 경은 환난을 함께 겪으며 지금까지 함께해 왔는데, 설마 이런 곳에서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구나. 경은 짐과의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들을 잘 보살펴 주고, 짐의 말을 어기지 말아다

오." 조운이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대답했다. "신이 어찌 충성을 다해 힘쓰지 않겠습니까!" 유비가 다시 신하들에게 말했다. "경들 모두에게 일일이 당부할 수가 없으니, 부디 스스로 몸을 아끼고 조심하십시오." 말을 마친 유비는 세상을 떠났다. 향년 예순세 살이었으니, 때는 장무 3년 4월 24일이었다. 훗날 두보가 이 일을 탄식하며 시를 지었다.

"촉나라 임금은 오나라를 치려 삼협으로 향했다가, 영안궁에서 세상을 떠났네. 비취빛 수레는 빈 산 밖에 머물 듯한데, 옥으로 만든 궁전은 비어 있고 거친 방만 남았구나. 오래된 사당에는 삼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물학이 둥지를 틀고, 명절이면 마을 노인들이 찾아오네. 무후사의 지붕이 이웃처럼 가까우니, 임금과 신하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제사를 받드네."

유비가 세상을 떠나자 문무백관이 슬픔을 금치 못했다. 제갈량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관을 받들어 성도로 돌아가자, 태자 유선이 성 밖으로 나가 영구(靈柩)를 맞이하고 이를 정전 안에 안치했다. 곡을 마치고 예를 갖춘 뒤 유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짐이 처음 병이 들었을 때는 그저 설사가 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 온갖 병이 겹치면서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이 쉰 살이 넘으면 장수한다고 한다'라고 들었는데, 짐은 이제 예순이 넘었으니 죽는다고 해도 한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너의 형제들이 걱정될 뿐이다. 힘내거라! 부디 힘을 내라! 작은 악이라 하여 행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 하여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오직 어질고 덕이 있어야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법이다. 네 아버지는 덕이 얕아 본받을 만한 것이 부족하니, 내가 죽은 뒤에는 너와 승상이 함께 정사를 돌보

되,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게을리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한다! 너의 형제들이 더욱 출세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한다!"

신료들이 조서를 다 읽자, 제갈량이 말했다. "나라는 하루도 임금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어서 태자를 세워 한나라의 대통을 잇게 하소서."

이에 태자 유선을 세워 황제로 즉위시키고, 연호를 건흥으로 고쳤다. 제갈량에게는 무향후의 작위를 내리고 익주목을 겸임하게 했다. 유비를 혜릉에 장사 지내며 시호를 소열황제라 하였다. 황후 오씨를 황태후로 높였고, 감부인은 소열황후로, 미부인 또한 황후로 추존하였다. 또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고 천하에 대사면을 실시하였다.

이미 위나라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중원으로 보고했다. 가까운 신하가 위나라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자,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유비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 내 걱정은 끝났구나. 어찌하여 나라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군사를 일으켜 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자 가후가 간언했다.

"유비가 죽었다면 반드시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새로운 주군을 보필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서둘러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가후가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신하들 사이에서 힘차게 나서며 외쳤다.

"이 기회를 놓치고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쳐다보니 바로 사마의였다.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사마의에게 계책을 물었다. 사마의가 대답했다.

"만약 중원의 군사만 일으킨다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다섯 갈래의 대군을 동원하여 사방에서 협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갈량이 앞뒤를 살피며 구원군을 부르지 못하게 만든 뒤에야 비로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비가 물었다. "다섯 갈래로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먼저 서신을 보내 요동의 선비족 왕 가비능에게 금과 비단을 보내 뇌물을 주어, 요서의 강족 병사 십만 명을 일으키게 한 뒤 육로로 서평관을 먼저 점령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로 서신을 보내 사절을 파견하여 관직과 상을 내리면서 남만으로 들어가 남만왕 맹획을 만나게 하여, 병사 십만 명을 일으켜 익주, 영창, 장가, 월준의 네 군을 공격해 서천의 남쪽을 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셋째로 사절을 오나라에 보내 친교를 맺고 땅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하여, 손권이 병사 십만 명을 일으켜 두 강이 만나는 길목을 공격하고 부성을 단숨에 점령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길입니다. 넷째로 항복한 장수 맹달에게 사절을 보내 상용의 병사 십만 명을 일으켜 한중

을 서쪽에서 공격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군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병사 십만 명을 거느리고 경조에서 양평관을 거쳐 서천으로 곧장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 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갈래로 총 50만 대군을 동원해 동시에 진격한다면, 제갈량이 아무리 여망(강태공)과 같은 재주가 있다 한들 어찌 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말숨씨가 뛰어난 관리 네 명을 사절로 비밀리에 파견했다. 또한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병사 십만 명을 거느리고 양평관을 곧장 점령하도록 명령했다. 이때 장료를 비롯한 옛 장수들은 모두 제후로 봉해져 기주, 서주, 청주 및 합비 등지에서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기에 다시 불러 쓸 수 없었다.

한편, 촉한의 후주 유선은 즉위한 이후 기존의 신하들이 많이 병들어 죽었으나,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조정의 모든 업무와 인재 선발, 재정 관리, 소송 문제 등은 모두 제갈량 승상이 결정하고 처리했다. 당시 후주에게는 아직 황후가 없었는데, 제갈량이 여러 신하와 함께 입을 모아 이렇게 건의했다. "전 차기장군 장비의 딸은 매우 어질고 현숙하며 나이도 열일곱 살이니, 정식 황후로 맞이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후주가 즉시 그녀를 황후로 맞이하였다.

건흥 원년 가을 8월, 갑자기 변방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위나라가 다섯 갈래의 대군을 일으켜 서천을 치려 합니다. 첫째는 조진이 대도독이 되어 10만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을 노리고 있으며, 둘째는 배신한 장수 맹달이 상용의 군사 10만을 일으켜 한중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오의 손권이 정예병 10만을 이끌고 협구를 통해 촉으로

들어오려 하며, 넷째는 남만왕 맹획이 만만 군사 10만을 일으켜 익주 4군을 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선비의 왕 가비능이 강족 군사 10만을 이끌고 서평관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갈래의 군세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미 승상께 보고하였으나, 어찌 된 일인지 며칠째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후주 유선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측근을 보내 제갈량에게 조정으로 들어오라는 어명을 전하게 했다. 하지만 명령을 보낸 지 반나절이 지나도록 "승상의 집 하인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병이 들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만 돌아왔다. 유선은 더욱 당황했다. 이튿날, 황문시랑 동윤과 간의대부 두경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 승상의 침소로 가서 이 중대한 일을 알리게 했다. 동윤과 두경 두 사람이 승상의 집 앞에 도착했으나 모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두경이 말했다. "선황께서 승상에게 유지를 맡기셨는데, 이제 주상께서 갓 즉위 하시자마자 조비의 다섯 갈래 군사가 국경을 침범하여 군사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문지기가 승상의 명을 전해왔다.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으니, 내일 아침에는 조정에 나가 정사를 논하겠다고 하십니다." 동윤과 두경은 탄식하며 돌아갔다.

다음 날, 많은 관리가 다시 승상의 집 앞에 모여 기다렸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내 승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리들은 불안해하며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두경이 후주 유선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폐하께서 친히 승상의 집으로 가셔서 대책을 물으셔야 합니다." 유선은 즉시 많은 관리를 거느리고 궁으로 들어가 황태후에게 이 사실

을 알렸다. 태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승상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
이냐! 선황의 부탁을 저버리는구나! 내가 직접 가겠다." 그러자 동윤이
아뢰었다. "마마, 가볍게 움직이셔서서는 안 됩니다. 신이 생각건대 승상
께서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상께서 먼저 가보시게
하십시오. 만약 승상이 소홀히 대한다면, 그때 마마께서 태묘로 가서
서 승상을 불러 문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태후는 동윤의 말을 따랐
다.

다음 날, 후주 유선이 직접 수레를 타고 승상부를 찾아왔다. 문을 지
키던 관리가 황제의 행차를 보고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맞이했다. 유선
이 물었다. "승상은 어디에 계시는가?" 관리가 대답했다. "어디 계시는
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승상께서 명하시기를, 백관들이 함부로 들어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유선은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세 번째 문까지 홀로 들어갔다. 그곳
에서 제갈량이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작은 연못가에서 물고
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선이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승상, 편안하신가?"

제갈량이 뒤를 돌아보다가 유선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지팡이를
버려둔 채 땅에 엎드려 말했다. "신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유선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지금 조비가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급히 국경을 침범하고 있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유선을 안쪽 방으로 부축해 들어가 자리에 앉힌 뒤 보고했다. "다섯 갈래 군사가 도착한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물고기를 구경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선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겠는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선비의 왕 가비능, 남만왕 맹획, 배반한 맹달, 그리고 위나라 장수 조진까지, 이 네 갈래 군사는 이미 신이 모두 물리쳐 두었습니다. 오직 손권의 군사 한 갈래만이 남았는데, 신에게 이미 그들을 물리칠 계책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야 하는데, 아직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걱정하십니까?"

후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참으로 귀신도 헤아릴 수 없는 기묘한 지략을 가지셨군요! 부디 군사를 물러나게 할 계책을 들려주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선제께서 폐하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어찌 잠시라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관리들은 병법의 오묘함을 잘 모르기에, 상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어찌 함부로 누설하겠습니까?"

먼저 선비족의 왕 가비능이 군사를 이끌고 서평관을 침범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초는 대대로 서천 사람의 후손이라 평소 강족의 마음을 얻고 있는데, 강족들은 마초를 신위대장군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람을 보내 밤낮없이 급히 전령을 보냈습니

다. 마초에게 서평관을 굳게 지키게 하고, 네 갈래의 기병을 매복시켜 매일 교대로 움직이며 적을 막아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쪽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남만왕 맹획이 사방으로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위연에게 군사를 맡겨 좌우로 드나들며 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의병 계책을 쓰게 했습니다. 만만 군사들은 용맹하기만 할 뿐 의심이 많으니, 의병을 마주하면 감히 앞으로 나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쪽 역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맹달이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맹달은 이엄과 생사를 같이 할 만큼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성도로 돌아갈 때 이엄을 영안궁에 머물게 했는데, 이미 이엄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민 편지를 만들어 맹달에게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맹달은 분명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니, 적의 기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이 길 또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이 양평관을 침범하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곳은 지세가 험준하여 지키기에 유리한 곳입니다. 저는 이미 조운에게 군사를 주어 관문을 지키게 했으며, 밖으로 나가 싸우지는 않게 했습니다. 조진이 우리 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이 네 갈래 길은 모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흥과 장포 두 장군에게 각각 삼만 명의 군사를 주어 요충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각 방면에서 위급

할 때 즉시 구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배치와 움직임은 성도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졌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오의 군사들은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네 갈래 길에서 승전보가 들려오고 촉나라가 위태롭지 않다면 그들이 공격해 오겠으나, 네 갈래 길의 전쟁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어찌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손권은 조비가 세 갈래 길로 오나라를 공격했던 원한이 있어, 결코 위나라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말숨씨가 뛰어난 선비를 동오로 직접 보내 이해득실을 따져 설득한다면 동오를 먼저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길의 군사들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오나라를 설득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이리 직접 오셨습니까?”

후주가 말했다. “태후께서도 승상을 뽑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마음이 놓이니,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제갈량은 유선과 술을 몇 잔 나누 뒤, 유선을 부 밖까지 배웅했다. 문밖에는 여러 관리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유선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유선이 제갈량과 작별하고 여차를 타고 조정으로 돌아가자, 신하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제갈량이 신하들을 살펴보니, 그중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웃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도 기쁜 빛이 돌았다. 제갈량이 자세히 보니 그는 의양 신야 출신의 등지였다. 성은 등이고 이름은 지이며 자는 백묘라고 하는데, 지금 호부상

서를 맡고 있으며 한나라 사마였던 등우의 후손이었다. 제갈량은 몰래 사람을 시켜 등지를 머물게 했다.

관리가 모두 흠어지자, 제갈량은 등지를 서원으로 청하여 물었다. "지금 촉과 위, 오 세 나라가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중흥을 이루려 한다면, 어느 나라를 먼저 쳐야 하겠습니까?" 등지가 대답했다. "저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위나라가 비록 한나라의 원수라 하나 그 세력이 매우 커서 급히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도모해야 합니다. 지금 주상께서 새로 왕위에 오르셨기에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동오와 연합하여 입술과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황제 시절의 옛 원한을 씻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계책이 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만났구려!" 등지가 물었다. "승상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동오와 손을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 합니다. 공께서 이미 이 뜻을 명확히 알고 계시니, 반드시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나라에 보낼 적임자는 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등지가 말했다. "저는 재주와 지혜가 얕아 이 중책을 감당하기 두렵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일 천자께 아뢰어 백묘께서 직접 가시도록 청할 것이니, 절대로 사양하지 마시오." 등지가 승낙하고 물러갔다.

다음 날, 제갈량이 후주에게 아뢰어 허락을 얻은 뒤 등지를 동오에 가서 설득하도록 명했다. 등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동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오나라 사람들은 이제 막 전쟁이 그쳤나 싶었는데, 촉나라 사신이 다시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 과연 등지가 가서 어떤 일을 해낼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6회 — 장온을 어렵게 하고 진복이 하늘 같은 변설을 펼치며, 조비의 군사를 깨뜨리고 서성이 화공을 사용하다

難張溫秦宓逞天辯 破曹丕徐盛用火攻

한편, 오나라의 육손은 위나라 군대를 물리친 후, 손권으로부터 보국장군 겸 강릉후에 봉해지고 형주목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군권은 육손의 손에 맡겨졌다. 장소와 고옹이 손권에게 연호를 새로 바꾸자고 건의하자, 손권은 이를 받아들여 황무 원년으로 고쳤다. 그러던 중 위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고, 손권은 사신을 불러들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에는 촉나라가 위나라에 도움을 청해왔기에, 위나라가 사정을 잘 모르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후회하고 있으며, 네 갈래의 길로 군사를 일으켜 촉나라를 치려 합니다. 오나라가 함께 움직여 도와준다면, 촉나라 땅을 얻었을 때 절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했다. 손권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장소와 고옹 등에게 의견을 물었다. 장소가 말했다. "육손의 식견이 매우 높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오." 손권이 즉시 육손을 불러들였다. 육손이 도착하여 아뢰기를, "조비가 중원을 지키고 있으니 급하게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위나라의 제안을 거절하면 반드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위나라와 오나라 모두 제갈량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은 위나라의 제안을 수락하는 척하며 군사를 정비하고 준비하면서, 위나라의 네 갈래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십시오. 만약 위나라 군사가 승기를 잡아 촉나라가 위급해지고 제갈량이 앞뒤를 다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주상께서 군사를 일으켜 응전함으로써 먼저 성도를 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위나라 군사가 패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르며 위나라 사신에게 "군수 물자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날을 잡아 곧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 사신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손권이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서번의 군사들이 서평관으로 나왔다가 마초를 마주치고는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다. 남만의 맹획이 군사를 일으켜 네 군을 공격했으나, 모두 위연이 의병계를 써서 동굴로 쫓아 보냈다. 상용의 맹달은 군사를 이끌고 가던 도중 갑자기 병이 들어 더 나아가지 못했다. 조진의 군사는 양평관으로 나왔으나, 조운이 곳곳의 험한 길목을 막아 서니 과연 장수 한 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의 군사도 뚫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결국 조진은 사곡도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손권이 이 소식을 듣고 문무백관에게 말했다. '육손은 참으로 신묘한 해아림을 지녔구나. 만약 내가 경솔하게 움직였다면 서촉과 또다시 원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서촉에서 등지를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소가 말했다. '이것은 또 제갈량이 군사를 물린 뒤에 쓰는 계책으로, 등지를 설객으로 보낸 것입니다.'

손권이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

장소가 대답했다. '먼저 전각 앞에 커다란 술을 하나 세우고 기름 수백 근을 채운 뒤 밑에 숯불을 피워 두십시오. 기름이 끓어오를 때쯤, 키가 크고 얼굴이 큼직한 무사 천 명을 뽑아 각자 칼을 들게 한 뒤 궁문 앞에서부터 전각 위까지 줄을 세우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등지를 불러 알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옛날 역이기가 제나라를 설득했던 고사를 들먹이며 이 술에 삼아버리겠다고 위협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손권은 육손의 말을 따랐다. 그는 즉시 끓는 기름이 담긴 술을 세우고 무사들을 좌우에 배치하여 각자 무기를 들게 한 뒤, 덩즈를 불러들였다. 덩즈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궁궐 문 앞에 이르니, 위풍당당한 기세의 무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강도 높은 칼과 큰 도끼, 긴 검과 짧은 창을 든 채 전각 앞까지 길게 줄을 지어 있었다. 덩즈는 손권의 의도를 눈치챘으나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다. 전각 앞에 이르자 술 안에서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좌우의 무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으나, 덩즈는 그저 살짝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측근이 그를 발 쪽으로 안내하자, 덩즈는 길게 읊을 할 뿐 절은 하지 않았다. 손권이 구슬로 장식된 발을 걸어 올리게 한 뒤 크게 호통을 쳤다.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는가!"

덩즈가 고개를 꺾듯이 들고 대답했다.

"상국(위나라)의 사신이 어찌 작은 나라의 군주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손권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네놈이 네 처지도 모르고 그 짧은 혀를 놀려 옛날 역생처럼 제나라를 설득하려 드는구나! 어서 저 기름 솥에 들어가라!"

덩즈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동오에는 현자가 많다고 칭송하더니, 고작 선비 하나를 두려워할 줄이야!"

손권이 다시 분노하며 말했다.

"내가 어찌 너 같은 일개 범부를 두려워하겠느냐?"

덩즈가 말했다.

"나 덩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당신들을 설득하는 것이 걱정이겠습니까?"

손권이 물었다.

"너는 제갈량의 설득자가 되어, 우리에게 위나라를 버리고 촉나라와 손을 잡으라고 말하러 온 것이냐?"

덩즈가 답했다.

"나는 촉나라의 한 선비로서 오나라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 한 명을 막겠다고 군사를 세우고 기름 솔까지 준비하다니, 어찌 그리 도량이 좁아 사소한 일조차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손권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과 송구함을 느껴 즉시 무사들을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덩즈를 전각 위로 불러 앉힌 뒤 물었다. "오나라와 위나라의 이해관계가 어떠하겠소? 선생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시오." 덩즈가 대답했다. "대왕께서는 촉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하십니까?" 손권이 말했다. "나는 촉나라 황제와 화친하고자 하오. 다만 그가 아직 젊고 식견이 얕아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구려." 덩즈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영웅이시고, 제갈량 또한 당대의 뛰어난 인재입니다. 촉나라에는 험준한 산천이 있고 오나라에는 세 줄기 강이 방패가 되어주니, 만약 두 나라가 화친하여 입술과 이빨처럼 긴밀한 관계가 된다면, 나아갈 때는 천하를 아우를 수 있고 물러날 때는 세력의 균형을 이루며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대왕께서 위나라에 신하를 자처하며 복종하신다면, 위나라는 반드시 대왕께 왕자를 보내 내시로 삼으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할 것이고, 그사이 촉나라가 강을 따라 내려와 치고 올라온다면 강남의 땅은 더 이상 대왕의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저의 이런 말을 어리석다 여기신다면, 저는 설득하려 했다는 명분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왕

앞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말을 마친 덩즈는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술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손권이 급히 만류하며 그를 후전으로 모셔
귀빈으로 대접했다. 손권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바로 내 뜻과 같
소. 나는 이제 촉나라 황제와 연합하려 하는데, 선생께서 나를 위해 다
리를 놓아주겠소?" 덩즈가 말했다. "방금 저를 삶아 죽이려 하신 분도
대왕이시고, 지금 저를 부리려 하시는 분도 대왕이십니다. 대왕께서
스스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데, 어찌 남의
믿음을 얻으려 하십니까?" 손권이 말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선생께서는 의심하지 마시오."

이에 손권은 등지를 머물게 하고 여러 관리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내가 강남의 여든한 주를 손에 쥐고 형초 땅까지 가졌으면서도, 오히
려 외진 변방의 서촉만도 못하구나. 촉에는 등지가 있어 그 임금을 욕
되게 하지 않는데, 우리 오나라에는 촉으로 들어가 내 뜻을 전할 사람
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신이 사신이 되기를 원합니
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그는 오군 오현 사람으로, 성은 장씨요 이름은
온이며 자는 혜서이고, 지금은 중랑장을 맡고 있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가 촉나라에 가서 제갈량을 만나면, 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
할까 걱정되는구나.' 장온이 대답했다. '공명도 결국 사람일 뿐인데, 신
이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장온에게 큰
상을 내리고, 등지와 함께 촉나라로 들어가 우호를 맺도록 명했다.

한편, 제갈량은 덩즈를 보낸 뒤 유선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덩즈가 돌아가면 이번 일은 반드시 성사될 것입니다. 오나라에는 현명한 인재가 많으니, 분명 답례를 위해 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들을 정중히 예우하여 오나라로 돌려보냄으로써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나라와 화친을 맺는다면, 위나라는 감히 촉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평온해지면, 신이 남쪽으로 진군하여 남만의 오랑캐들을 평정한 뒤에 위나라를 도모하겠습니다. 위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면 동오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여 천하를 다시 통일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선은 그 말을 옹계 여겼다.

한편, 오나라에서 장온과 덩즈를 촉나라로 보내 답례를 했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다. 유선은 문무백관을 붉은 칠을 한 대궐 계단에 모은 뒤, 덩즈와 장온을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장온은 자신이 큰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의기양양하게 전각 위로 올라가 유선에게 예를 갖추었다. 유선은 그에게 비단 방석을 하사하고 전각 왼편에 앉힌 뒤, 임금의 연회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유선은 그저 예우를 다할 뿐이었다. 연회가 끝나자 백관들이 장온을 숙소까지 배웅했다. 다음 날, 제갈량이 연회를 베풀어 그를 맞이했다. 제갈량이 장온에게 말했다. "선황제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오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이제 선황제께서는 승하하셨습니다. 지금의 주상께서는 오나라 왕을 깊이 흠모하여 예전의 원한을 버리고 영원히 동맹을 맺어 힘을 합쳐 위나라를 격파하고자 하십니다. 대부께서 부디 잘 말씀드려 보고해 주십시오." 장온은 알

겠다고 대답했다. 술기운이 반쯤 올랐을 때, 장온은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태도가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은근히 거만한 기색이 있었다.

다음 날, 유선은 장온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하고 성남의 우정에서 잔치를 베풀며 모든 관리에게 그를 배웅하게 했다. 제갈량은 정성을 다해 술을 권했다. 한창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한 사람이 술에 취한 듯 당당하게 들어오더니, 크게 읊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장온이 의아하게 여겨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성은 진이고 이름은 복이며, 자는 자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익주의 학사로 있습니다.'

장온이 웃으며 말했다.

'학사라고 불리긴 한다면, 가슴 속에 배운 것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진복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촉나라에서는 키가 석 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도 모두 배움에 나아가는데, 하물며 저야 어떻겠습니까?'

장온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공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복이 대답했다.

'위로는 천문에 이르고 아래로는 지리에 이르며, 삼교구류와 제자백가의 학문을 통달하였습니다. 고금의 흥망성쇠와 성현의 경전 또한 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장온이 웃으며 말했다.

'공께서 이토록 큰소리를 치시니, 그럼 바로 하늘을 두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머리가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있습니다.'

장온이 물었다.

'그 머리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진복이 대답했다.

'서쪽에 있습니다. 시경에 〈이에 서쪽을 돌아본다〉라는 말이 있으니, 이를 미루어 볼 때 머리는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장온이 또 물었다.

'하늘에 귀가 있습니까?'

진복이 답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경에 〈학이 깊은 늪에서 울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라고 했으니, 귀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장온이 다시 물었다.

'하늘에 발이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있습니다. 시경에 〈하늘의 걸음이 어렵고 험난하다〉라는 말이 있으니, 발이 없다면 어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장온이 또 물었다.

'하늘에 성씨가 있습니까?'

진복이 말했다.

'어찌 성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장온이 물었다.

'그 성씨가 무엇입니까?'

진복이 대답했다.

'유씨입니다.'

장온이 물었다.

'그것을 어찌 압니까?'

진복이 말했다.

'천자의 성이 유씨이니,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장온이 또 물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진복이 대답했다.

'비록 동쪽에서 뜨지만, 서쪽으로 집니다.'

이때 친미의 말은 맑고 명쾌했으며, 질문에 답하는 솜씨가 거침이 없어 좌중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장온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친미가 물었다.

"선생님은 오나라의 명사로서 천문의 이치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으니, 분명 하늘의 도리를 깊이 꿰뚫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 혼돈이 나뉘어 음양의 구분이 생길 때,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아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공공씨가 싸움에 패해 머리로 불주산을 들이받는 바람에 하늘을 받치던 기둥이 꺾이고 땅을 지탱하던 줄이 끊어져,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꺼졌다고들 합니다. 하늘은 가볍고 맑은 기운이라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서북쪽으로 기울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가볍고 맑은 기운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선생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장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다.

"촉나라에 이토록 뛰어난 인재가 많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 이곳에서 논쟁을 듣고 나니, 제 막혔던 생각이 단번에 뚫리는 기분입니다."

제갈량이 장온이 무안해할까 염려되어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달랬다.

"자리에 앉아 서로 묻고 답한 것은 모두 가벼운 담소일 뿐입니다. 선생께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다스리는 도를 깊이 알고 계신 분인데, 어찌 이런 사소한 농담에 마음을 쓰시겠습니까?"

장온은 다시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제갈량은 덩즈를 보내 오나라에 답례를 전하게 하고, 그를 장온과 함께 길을 떠나게 했다. 장온과 덩즈 두 사람은 제갈량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오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한편, 손권은 장온이 촉나라로 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자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이때 가까이 있던 신하가 보고했다. "촉나라에서 덩즈를 보내 장온과 함께 국례를 답하기 위해 입국하게 했습니다." 손권이 그를 불러들였다. 장온은 전각 앞에 나아가 절을 올리며, 유선과 제갈량의 덕망을 낱낱이 칭송하고 영원한 동맹을 맺기를 간절히 청했다. 또한 촉나라에서 다시 덩즈 상서를 보내 답례를 하게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덩즈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손권이 덩즈에게 물었다. "만약 오나라와 촉나라 두 나라가 마음을 합쳐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태평하게 만든다면, 두 군주가 나누어 다스리는 것이 어찌 즐겁지 않겠소?" 그러자 덩즈가 대답했다. "하

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명의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천명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군주는 각자 덕을 닦고, 신하는 각자 충성을 다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멈출 것입니다.” 손권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진심이 참으로 이와 같구려!” 하고는 덩즈에게 두터운 선물을 주어 촉나라로 돌아가게 했다. 이때부터 오나라와 촉나라는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게 되었다.

한편, 위나라의 첩자가 이 소식을 알아내고 신속히 중원으로 보고했다. 위나라 황제 조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오나라와 촉나라가 연합하는 것은 필시 중원을 도모하려는 속셈이다. 차라리 내가 먼저 그들을 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조비는 문무백관을 크게 모아 오나라를 정벌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때 대사마 조인과 태위 가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시중 신비가 나서서 이렇게 건의했다. '중원은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어 이곳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군사를 기르고 둔전을 일구며 10년 동안 힘을 비축하여 먹을 것과 병력을 충분히 갖춘 뒤에 움직여야 오나라와 촉나라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비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것은 고리타분한 유학자의 논리일 뿐이다! 지금 오나라와 촉나라가 손을 잡았으니 조만간 반드시 우리 국경을 침범할 텐데, 어찌 10년이나 기다린단 말이냐?' 조비는 즉시 명령을 내려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사마의가 나아가 말했다. '오나라에는 장강이라는 험난한 물길이 있어 배가 아니면 건널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친히 군사를 이끌

고 나가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전함들을 골라 채수와 영수를 거쳐 회수로 들어가 수춘을 점령한 뒤, 광릉에 이르러 강 입구를 건너 곧장 남서로 진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조비가 이 말을 따랐다. 이에 밤낮으로 공사를 벌여 길이가 20여 장에 달하고 2,0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용선을 10척 만들었으며, 전함 3,000여 척을 정비했다.

위나라 황초 5년 가을 8월, 크고 작은 장수와 병사들을 소집했다. 조진을 선봉으로 삼고 장료, 장합, 문빙, 서황 등을 대장으로 삼아 앞장 서게 했으며, 허저와 여건을 중군 호위로, 조휴를 후군으로 삼았다. 유엽과 장제는 참모를 맡았다. 전후 수륙군 병력은 30여 만 명에 달했으며, 정해진 날에 맞춰 출병했다. 조비는 사마의를 상서복야로 봉하여 허창에 머물게 하고, 나라의 모든 정사는 사마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위나라 군대가 출발한 상황은 차치하고, 한편 동오의 첩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어 오나라에 보고했다. 근처의 신하가 당황하며 손권에게 고했다. "지금 위나라 왕 조비가 직접 용선을 타고 수륙 양면의 대군 30여만 명을 이끌고 채주와 영주를 거쳐 회수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광릉을 점령한 뒤 강을 건너 강남을 치려 하니, 그 기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손권이 크게 놀라 즉시 문무백관을 모아 의논했다.

고옹이 말했다. "지금 주상께서 이미 서촉과 화친을 맺으셨으니, 제갈량을 향해 서신을 보내 한중으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의 기세를 분산시키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장 한 명을 보내 남서에 군사를 주둔시켜 적을 막아야 합니다."

손권이 말했다. "육손이 아니면 이 중책을 맡길 사람이 없다."

고옹이 다시 말했다. "육손은 형주를 지키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게 해서 안 됩니다."

손권이 대답했다. "나라고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당장 힘을 보탬 사람이 없구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신하들의 대열 안에서 응답하며 앞으로 나왔다. "신이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기꺼이 군대를 통솔하여 위나라 군대에 맞서겠습니다. 만약 조비가 직접 대강을 건너온다면 반드시 생포하여 전하께 바칠 것이며, 설령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위나라 군사의 절반을 죽여 다시는 동오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손권이 살펴보니 바로 서성이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강남 일대를 지켜준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손권은 즉시 서성을 안동장군으로 봉하고, 건업과 남서의 군마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했다. 서성은 은혜에 감사하며 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그리고 즉시 명령을 내려 모든 관군에게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깃발을 뻗뻗이 세워 강변을 수호할 계책을 세우게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오늘 대왕께서 장군님께 중책을 맡기셨으니, 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조비를 사로잡으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어서 군마를 몰아 강을 건너 회남

땅에서 적을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조비의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까 두렵습니다!"

서성이 그를 바라보니, 그는 바로 손권의 조카인 손소였다. 손소의 자는 공레이며 양위장군이라는 관직을 받았고, 예전에 광릉을 지킨 적이 있었다. 나이는 어렸으나 혈기가 넘치고 담력과 용맹이 매우 뛰어났다.

서성이 말했다. "조비의 세력이 워낙 강한 데다 이름난 명장들이 선봉으로 서 있으니, 함부로 강을 건너 적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저들의 배가 모두 북쪽 기슭에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 내게 저들을 격파할 계책이 있다."

그러자 손소가 말했다. "제 수하에는 이미 삼천 명의 군마가 있고, 광릉의 지리에도 매우 밝습니다. 제가 직접 강북으로 건너가 조비와 생사를 걸고 싸우겠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군령을 달게 받겠습니다."

서성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손소가 완강하게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서성이 끝내 허락하지 않음에도 손소는 몇 번이고 출정을 요구했다. 화가 난 서성이 외쳤다. "네가 이토록 호령을 듣지 않으니, 내가 어찌 다른 장수들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서성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소를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했다. 도끼를 든 병사들이 손소를 끌고 원문 밖으로 나가 검은 깃발을 세웠다. 손소의 부하 장수가 이 소식을 급히 손권에게 보고했다. 소식을 들은 손권은 급히 말을 타고 구하러 달려왔다. 무사들이 막 처형을 집행하려

할 때 손권이 제때 도착하여 병사들을 꾸짖어 흩어지게 하고 손소를 구해냈다.

손소가 울며 아뢰었다. "제가 예전에 광릉에 있었기에 지리에 매우 밝습니다. 그곳에서 조비와 싸우지 않고 그가 장강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면, 오나라는 머지않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손권이 군영으로 들어오자 서성이 그를 맞이하여 막사 안으로 안내했다. 서성이 아뢰기를, "대왕께서 저를 도둑으로 임명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위나라를 막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위장군 손소가 군법을 어기고 명령을 거역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어찌하여 대왕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려 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손권이 대답했다. "손소는 젊은 혈기에 치우쳐 실수로 군법을 어긴 것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서성이 말했다. "법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왕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며, 나라의 엄격한 규율입니다. 만약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죄를 면해 준다면, 어찌 다른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다시 말했다. "손소가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장군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저 아이가 비록 본래 유씨 성을 가졌으나, 내 형님이 무척 아끼던 아이라 손씨 성을 내려준 것이다. 또한 나를 위해서도 세운 공이 있으니, 지금 저 아이를 죽인다면 형님의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서성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왕의 체면을 보아 이번 한 번만 죽을죄를 면해 드리겠습니다."

손권은 손소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손소는 절하기를 거부하며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군사를 이끌고 조비를 격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죽더라도 당신의 식견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서성의 안색이 변했다. 손권은 손소를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서성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없다고 해서 오나라에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앞으로 다시는 저 아이를 쓰지 마라." 말을 마친 손권은 스스로 물러갔다.

그날 밤, 손소가 자기 부대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몰래 강을 건너 갔다는 소식이 서성에게 전해졌다. 서성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 손권의 체면을 깎을까 두려워, 정봉을 불러 비밀스러운 계책을 일러준 뒤 삼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그를 지원하게 했다.

한편, 위나라 왕 조비가 용선을 타고 광릉에 이르니, 선발대로 나선 조진이 이미 대강의 기슭에 군사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조비가 물었다. "강가에 병사가 얼마나 있느냐?" 조진이 대답했다. "강 건너편을 멀리 바라보아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고, 깃발이나 진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비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 적의 속임수일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허실을 살펴보겠다." 이에 조비는 강 길을 활짝 열고 용선을 대강 한가운데까지 몰아 강가에 정박하게 했다. 배 위에는 용과 봉황, 해와 달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의 깃발을 세우고 화려한 의장

대를 에워싸게 하니, 그 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조비가 배 안에 단정히 앉아 멀리 강남 쪽을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사람 하나 보이지 않자, 유엽과 장제를 돌아보며 물었다. "강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 유엽이 말했다. "병법에는 실함과 허함이 있는 법입니다. 저들이 대군이 오는 것을 보고 어찌 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경거망동하셔서 안 됩니다. 우선 서너 일 정도 기다리며 적의 움직임을 살핀 뒤에, 선봉대를 보내 강을 건너게 하여 정탐하게 하십시오." 조비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다."

그날 밤, 군대는 강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밤이 깊어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등불을 밝히니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멀리 강 건너 강남 쪽을 바라보니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조비가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쪽은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것이냐?" 가까이 있던 신하가 아뢰기를, "아마도 폐하의 대군이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모두 도망친 모양입니다."라고 답했다. 조비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윽고 날이 밝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건너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물러가자, 강남 일대에 성곽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성루 위에는 창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성 전체에는 깃발과 띠가 가득 꽂혀 있었다. 순식간에 몇 차례나 보고가 들어왔다. "남서 강변 일대부터 석두성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에 걸쳐 성곽과 배, 수레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비는 크게 놀랐다. 알고 보니 서성이 갈대를 묶어 사람 모양을 만들고, 부하들에게 푸른 옷을 입혀 깃발을 들게 한 뒤 가짜 성벽과 누각 위에 세워둔 것이었다. 위나라 군사들이 성 위에 가득한 인마를 보고 어찌 겁을 먹지 않았겠는가? 조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위나라에 비록 천 명의 용맹한 무사가 있다 한들 소용없겠구나. 강남의 인물들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조비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강물이 튀어 용포를 적시고 커다란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다. 조진은 당황하여 문빙에게 작은 배를 몰아 급히 와서 황제를 구하라고 명령했다. 용선 위에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문빙은 용선 위로 뛰어올라 조비를 등에 업고 작은 배로 옮겨 탄 뒤, 서둘러 강가 항구로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으로 나와 곧장 장안을 치고 있습니다!' 조비는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즉시 군대를 거두어들이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은 제각기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는 오나라 군사들이 추격해 왔다. 조비는 어용(御用) 물품들을 모두 버려두고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용선이 막 회수로 들어서려 할 때, 갑자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며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러더니 측면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손소였다. 위나라 군사들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태반이 꺾였으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여러 장수가 힘을 다해 위나라 황제 조비를 구해냈다. 조비가 회하를 건너 30리도 채 못 갔을 때, 회하 주변에 자란 갈대밭에 미리 물고기 기름을 뿌려 두었던 것이 바람을 타고 급격히 타올랐다. 불길의 하늘 높이 치솟으며 조비가 탄 용주를 가로막았다. 조비는 크게 놀라 급히 작은 배로 옮겨 탔으나, 강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용주가 불길에 휩싸인 뒤였다. 조비가 황급히 말에 올라타려 하자, 강가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왔는데 그 앞장선 장수는 바로 정봉이었다. 장료가 급히 말을 달려 맞서 싸웠으나 정봉이 쏜 화살에 허리를 맞고 말았다. 다행히 서황이 달려와 그를 구한 덕분에 조비를 호위하며 퇴각할 수 있었으나, 수많은 군사가 전사했다. 뒤를 쫓던 손소와 정봉은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수레, 배와 무기들을 탈취했다. 위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물러갔고, 오나라 장수 서성이 큰 공을 세웠다. 손권은 서성에게 큰 상을 내렸다. 장료는 허창으로 돌아왔으나 화살 맞은 상처가 터져 결국 사망했다. 조비가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양평관으로 쳐나가던 차에, 갑자기 승상 제갈량에게서 문서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용은 익주의 우두머리인 옹개가 남만왕 맹획과 결탁하여 10만 명의 만병을 일으켜 네 군을 침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갈량은 조운에게 회군할 것을 명하며, 마초에게 양평관을 굳게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남정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조운은 즉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이때 제갈량은 성도에서 군마를 정비하며 직접 남쪽으로 정벌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말로,

동오가 북쪽의 위나라와 맞서는가 했더니, 다시 서촉이 남쪽의 남만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네.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제87회 — 남쪽을 정벌하려 승상이 크게 군사를 일으키고, 천병에 맞서 만왕이 처 음으로 붙잡히다

征南寇丞相大興師 抗天兵蠻王初受執

한편, 제갈 승상은 성도에 머물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직접 공정하게 결정하고 처리했다. 덕분에 양천(동천과 서천)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즐거워하니, 밤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들지 않았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몇 년째 큰 흉년이 이어지니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배불리 먹으며 노래를 불렀고, 부역이 있을 때마다 앞다투어 일찌감치 처리했다. 그 덕분에 군수품과 무기, 각종 도구들이 빠짐없이 완비되었으며, 창고에는 쌀이 가득하고 곳간에는 재물이 넘쳐났다.

건흥 3년, 익주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남만의 왕 맹획이 10만 명의 만병을 크게 일으켜 국경을 넘어 침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건녕 태수 옹개는 한나라 십방후 옹치의 후손인데, 지금 맹획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장가군태수 주보와 월수군태수 고정 두 사람도 성을 바치며 가담하였고, 오직 영창태수 왕항만이 반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웅개, 주보, 고정 세 사람의 부하들은 모두 맹획의 향도관(길잡이)이 되어 영창군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왕항은 공조 여개와 함께 백성들을 모으고 이 성을 죽기로 지키고 있으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였다.

제갈량이 조정에 들어가 후주(유선)에게 아뢰었다. '신이 살펴보니, 남만이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실로 국가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정벌하겠습니다.'

후주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동쪽에는 손권이 있고 북쪽에는 조비가 있소. 이제 상부(제갈량)께서 짐을 떠나 가시게 되면, 만약 오나라나 위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यो?'

제갈량이 대답했다. '동오는 지금 우리 나라와 화친을 맺은 상태이니 판마음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판마음을 품더라도 백제성에 이 엄이 있으니, 그가 육손을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비는 최근에 패배하여 예기가 꺾였으므로 멀리 원정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마초가 한중의 여러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이 또 관흥과 장포 등을 두 군대로 나누어 구원군으로 남겨두어, 폐하께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먼저 남만 땅을 쓸어버린 뒤에 북벌을 단행하여 중원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제께서 삼고초려하신 은혜와 어린 자식을 부탁하신 무거운 당부에 보답하겠습니다.'

후주가 말했다. '짐은 나이가 어려 아는 것이 없으니, 오직 상부께서 살피어 행해 주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의 관리 한 명이 나서서 외쳤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니, 그는 남양 사람으로 성은 왕이고 이름은 연이며, 자는 문의로 현재 간의대부 직에 있었다. 왕연이 간언했다. '남방은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며, 독한 장기와 역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승상께서는 나라의 중책을 맡고 계신데, 직접 멀리 원정을 떠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옹개 무리는 그저 옴이나 버짐 같은 사소한 병에 지나지 않으니, 승상께서 큰 장수 한 명만 보내 토벌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남만 땅은 나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대개 왕의 교화(王化)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을 거두어 굴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가서 정벌해야 합니다. 강하게 다스릴지 부드럽게 다스릴지는 따로 헤아릴 바가 있으니, 결코 남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연이 재차 간곡히 권했으나 제갈량은 듣지 않았다.

그날 제갈량은 후주(유선)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장완을 참군으로, 비의를 장사로 삼았다. 또한 동궐과 번견 두 사람을 연사로 삼고, 조운과 위연을 대장으로 삼아 군마를 총괄하게 했으며, 왕평과 장익을 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천 장수 수십 명을 더하여 총 50만 명의 서천 군사를 일으켜 익주를 향해 진군했다.

한편, 관우의 셋째 아들인 관소가 군영으로 찾아와 제갈량을 뵈고 말했다. '형주가 함락된 후 보가장에 몸을 숨겨 병을 치료하며 지내왔

습니다. 매번 서천으로 가서 선제의 원수를 갚으려 했으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병이 다 나았는데, 알아보니 동오의 원수들은 이미 모두 처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곧장 서천으로 가서 황제를 뵈고자 하던 중, 마침 남만 정벌을 위해 나가는 군대를 만나 이렇게 찾아뵈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조정에 보고하게 한 뒤, 관소를 전방 선봉장으로 삼아 함께 남만 정벌길에 올랐다.

대군이 대열을 갖추어 나아갔다. 군사들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쉬고 새벽에 길을 떠났다.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추호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한편, 옹개가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고정, 주보와 상의하여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고정은 가운데 길을 맡고, 옹개는 왼쪽을, 주보는 오른쪽을 맡기로 했으며, 세 갈래 군사 모두 각각 5~6만 명씩 이끌고 적을 맞이하기로 했다. 이에 고정은 오환을 선봉으로 삼아 앞장서게 했다. 오환은 키가 9척이나 되고 얼굴은 험상궂었으나, 방천극을 휘두르는 용맹이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본대 병사들을 거느리고 큰 진영을 떠나 촉나라 군사를 맞으러 나섰다.

한편,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이미 익주 경계에 이르렀다. 선봉장 위연과 부장 장익, 왕평이 경계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마침 오환의 군마와 마주쳤다. 양쪽 진영이 서로 대치하자 위연이 말을 몰아 크게 꾸짖었다. '반역자들은 어서 항복하라!' 오환이 말을 달려 위연과 맞붙었다.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위연이 거짓으로 패하며 도망치자, 오환이 그 뒤

를 쫓아왔다. 그러나 얼마 못 가 큰 함성이 울려 퍼졌다. 장익과 왕평이 두 갈래로 군사를 몰아 달려와 오환의 퇴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위연이 다시 돌아와 세 장수가 힘을 합쳐 맞서 싸운 끝에 오환을 생포했다. 오환을 대영으로 압송하여 제갈량을 알현하게 했다. 제갈량은 오환의 결박을 풀게 하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의 부하인가?' 오환이 대답했다. '저는 고정(高正)의 부하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고정이 충의로운 선비라는 것을 알고 있네. 지금은 옹개(雍凱)에게 현혹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내가 그대를 풀어줄 테니 돌아가서 고 태수가 하루빨리 항복하여 큰 화를 면하도록 하거나.' 오환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돌아가 고정을 만나 제갈량의 덕망을 전하자, 고정 역시 감격해 마지않았다.

다음 날 옹개가 진영에 도착했다. 예를 마친 뒤 옹개가 물었다. '어떻게 오환이 돌아온 것이요?' 고정이 대답했다. '제갈량이 의리로 풀어주었소.' 옹개가 말했다. '그것은 제갈량이 쓴 이간계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런 계책을 쓴 것이요.' 고정은 반신반의하며 마음속으로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촉나라 장수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고정이 직접 삼만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갔으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곧장 말을 돌려 달아났다.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크게 진격하여 이십여 리를 추격하며 싸웠다. 다음 날 옹개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맞서 왔으나, 제갈량은 연달아 사흘 동안 진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넷째 날이 되자 옹개와 고정이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촉나라 진영을 공격해 왔다.

한편, 제갈량이 위연에게 두 갈래 길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자, 과연 옹개와 고정익의 군사 두 무리가 몰려왔다. 이들은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아 태반이 죽거나 다쳤고, 수많은 이들이 생포되어 본진으로 끌려왔다. 옹개의 부하들은 한쪽에 가두고, 고정익의 부하들은 다른 쪽에 가두어 두었다.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고정익의 부하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나, 옹개의 부하들은 모두 죽일 것이다.' 모든 군사가 이 말을 들었다.

잠시 후, 제갈량이 옹개의 부하들을 장막 앞으로 불러내어 물었다. '너희는 모두 누구의 부하냐?' 그러자 부하들이 거짓으로 대답했다. '고정익의 부하입니다.' 제갈량은 그들의 목숨을 모두 살려주고 술과 음식을 내려 위로한 뒤, 사람을 시켜 경계 어귀 밖으로 내보내어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어 제갈량이 고정익의 부하들을 불러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우리는 정말로 고정익의 부하입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제갈량은 역시 그들의 목숨을 모두 살려주고 술과 음식을 내렸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옹개가 오늘 사람을 보내 항복하면서, 너희의 주군(고정)과 주보의 머리를 바쳐 공을 세우려 하기에 내가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다. 너희는 이미 고정익의 부하들이니 내가 너희를 놓아줄 터, 다시는 배반하지 마라. 만약 다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때는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모두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다시 본진으로 돌아온 이들은 고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고정은 즉시 사람을 몰래 보내 옹개의 진영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제갈량의 덕망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옹개의 부하들 중에도 고정에게 귀순하려는 마음을 품은 이가 많다고 했다.

그럼에도 고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한 사람을 제갈량의 진영으로 보내 허실을 떠보게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길목을 지키던 매복군에게 붙잡혀 제갈량 앞에 끌려왔다. 제갈량은 일부러 그를 옹개의 부하인 것처럼 꾸며 장막 안으로 불러들인 뒤 물었다.

"네 원수가 고정과 주보의 머리를 가져오기로 약속해 놓고 어찌하여 기한을 어겼느냐? 이놈아, 네가 이렇게 덜렁대어서 어찌 첩자 노릇을 하겠느냐!"

군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자, 제갈량은 술과 음식을 내려주며 비밀 편지 한 통을 써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 편지를 옹개에게 전해주어라. 어서 빨리 손을 써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고 전해라."

첩자가 감사를 표하며 물러간 뒤, 고정을 찾아가 제갈량이 보낸 편지를 올리며 옹개의 행태를 상세히 보고했다. 고정이 편지를 다 읽고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대했거늘, 저놈은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는 즉시 오환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오환이 말했다. '제갈량은 어진 사람이니, 그를 배신하면 상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 악행을 저지른 것은 모두 옹개 때문이니, 차라리 그를 죽여 제갈량에게 투항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고정이 물었다. '어떻게 손을 써야 하겠는가?' 오환이 답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보내 옹개를 청하십시오. 만약 그에게 탄마음이

없다면 태연하게 올 것이요, 만약 오지 않는다면 분명 탄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군께서 앞쪽을 공격하시면, 제가 진영 뒤쪽의 작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사로잡겠습니다.' 고정은 오환의 말을 따라 잔치를 베풀어 옹개를 청했다. 과연 옹개는 지난번 군사들을 풀어주었다는 말을 의심하여 두려운 마음에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고정이 군사를 이끌고 옹개의 진영을 습격했다. 알고 보니 제갈량이 살려 보내준 군사들이 모두 고정의 은덕을 생각하여, 기회를 틈타 전투를 도왔다. 옹개의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옹개는 말을 타고 산길을 따라 달아났다. 채 이 리를 가지 못했을 때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바로 오환이었다. 오환이 방천극을 쫓아내고 앞장서서 말을 몰았다. 옹개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오환의 창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고, 곧바로 목이 베였다. 부하 군사들은 모두 고정에게 항복했다.

고정이 두 부대의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에게 항복하러 와서, 막사 안에서 옹개의 머리를 바쳤다. 제갈량이 막사 위 높은 자리에 앉아 좌우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고정을 밀어 넣고, 그 머리를 베어 오라고 호령했다.

고정이 말했다. "소인은 승상의 큰 은혜에 감복하여, 이제 옹개의 머리를 바치며 항복하러 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네놈은 거짓으로 항복하러 하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고정이 물었다. "승상께서는 제가 거짓으로 항복하려 한다는 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칼집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고정에게 건네며 말했다. "주보가 이미 사람을 보내 항복 서신을 몰래 바치며, 너와 옹개가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라 말하더구나. 그런데 어찌 너희가 갑자기 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서 나는 네가 거짓으로 항복하러 온 것을 알았다."

고정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했다. "주보가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절대로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 또한 한쪽 말만 듣고는 믿기 어렵다. 네가 만약 주보를 직접 잡아 온다면, 그때야 네 진심을 믿어 주마."

고정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의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이 가서 주보를 잡아 승상을 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렇게 한다면 나의 의심도 풀릴 것이다."

고정은 부하 장수인 오환과 본부 군사들을 이끌고 주보의 진영을 향해 거침없이 돌격했다. 진영에서 십 리쯤 떨어졌을 때, 산 뒤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는데 바로 주보의 군대였다. 주보는 고정에게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고정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고정이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어찌 제갈 승상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를 해치려는 이간계를 썼단 말이나!' 주보는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오환이 말 뒤쪽에서 갑자기 돌진해 나와 창으로 주보를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고정이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겠다!' 그러자 모든 군사가 일제히 절하며 항복했다. 고정은 두 부대의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을 찾아가 장막 아래에서 주보의 머리를 바쳤다.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일부러 네가 이 두 도적을 죽이게 하여 충심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이어 제갈량은 고정을 익주태수로 임명하여 세 군을 총괄하게 하고, 오환을 아장으로 삼았다. 이로써 세 갈래의 군마가 모두 평정되었다.

영창태수 왕항이 성 밖으로 나와 제갈량을 맞이했다. 제갈량이 성안으로 들어간 뒤, 왕항에게 물었다.

"누가 이 성을 지켜 아무런 탈이 없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왕항이 대답했다.

"오늘 제가 이 군을 위태로움 없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영창의 선비인 여개 덕분입니다. 성씨는 여요, 이름은 개이며 자는 계평인데, 모두 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입니다."

제갈량이 즉시 여개를 불러들였다. 여개가 들어와 예를 갖추자 제갈량이 말했다.

"여개 선생이 영창의 고결한 선비라는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선생 덕분에 이 성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군요. 이제 제가 남만의 반란을 평정하려 하는데, 선생의 높은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개가 지도를 하나 꺼내 제갈량에게 바치며 말했다.

"제가 관직에 몸담은 이래로 남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 그곳의 형세를 살피고, 군사를 주둔시켜 싸우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지도로 그렸으니, 이름을 '평만지장도'라 합니다. 이제 감히 명공께 바치오니, 한번 살펴보시면 남만 정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여개를 행군 교수와 길 안내를 맡는 향도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여 남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군대가 행군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천자의 사절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이 중군 막사로 들어가 보니, 흰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마속이었다. 마속은 형 마량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탓에 상복을 입고 있었다. 마속이 말했다. "주상의 칙명을 받들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술과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제갈량이 조서를 받은 뒤 명에 따라 하나하나 나누어 준 뒤, 마속을 막사에 머물게 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갈량이 물었다. "내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남만 세력을 평정하려 하네. 자네의 식견이 높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으니, 부디 가르침을 주게나." 마속이 대답했다. "미천한 소견이나마 말씀드릴 테니 승상께서 살펴주십시오. 남만은 땅이 멀고 산세가 험한 것을 믿고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 그들을 꺾는다 해도 내일이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들을 평정할 수 있겠지만, 군대를 돌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조비를 북벌해야 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만약 남만 병사들이 나라 내부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란은 반

드시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며, 마음을 싸워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병력으로 싸우는 것은 하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승상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만 힘쓰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자네는 참으로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먼!" 그리하여 제갈량은 마속을 참군으로 임명하고 곧바로 대군을 거느리고 전진했다.

한편, 남만왕 맹획은 제갈량이 지략으로 옹개 등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세 동의 원수를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첫 번째 동의 원수는 금환삼결이고, 두 번째 동은 동도나, 세 번째 동은 아회남이었다. 세 원수가 맹획을 알현하자 맹획이 말했다.

“지금 제갈량 승상이 대군을 이끌고 우리 땅을 침략해 오고 있으니, 힘을 합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너희 세 사람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하라. 만약 승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동주로 삼겠다.”

이 명령에 따라 금환삼결은 가운데 길을, 동도나는 왼쪽 길을, 아회남은 오른쪽 길을 맡기로 했다. 그들은 각각 5만 명의 만군을 이끌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제갈량이 진영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세 명의 동 원수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갈량은 보고를 듣자마자 조운과 위연을 불러들였으나, 딱히 별다른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어 왕평과 마충을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지금 남만 군사가 세 갈래로 몰려오고 있다. 나는 조운과 위연을 보내고 싶지만, 두 사람은 이곳 지리에 어두우니 함부로 쓸 수가 없구나. 왕평은 왼쪽 길로 가서 적을 맞이하고, 마충은 오른쪽 길로 가서 적을 맞이하라. 나는 조운과 위연을 뒤에 보내어 지원하게 하겠다. 오늘은 군마를 정돈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출발한다."

두 사람이 명령을 듣고 물러가자, 제갈량은 다시 장익과 장익을 불러 지시했다.

"너희 둘은 한 부대를 이끌고 가운데 길로 가서 적을 맞이하라. 오늘은 군마를 잘 점검해 두었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왕평, 마충과 약속한 대로 함께 진군하라. 조운과 위연을 보내고 싶어도 그들이 지리를 잘 모르니 차마 쓸 수가 없구나."

장익과 장익도 명령을 받들고 물러갔다.

조운과 위연은 제갈량이 자신들을 쓰지 않자 저마다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그대들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 위험한 곳에 나갔다가 만인들에게 허를 찔려 기세를 잃을까 걱정될 뿐이오." 그러자 조운이 물었다. "만약 저희가 지리에 밝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대들은 그저 조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이오." 두 사람은 불만스럽게 물러났다. 조운은 위연을 자신의 진영으로 불러들여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 둘이 선봉을 맡아야 마땅한데, 지리를 모른다는 핑계로 쓰려 하지 않으니 말이오. 이제 저런 후배들을 쓰려 하니 우리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위연이 말했다. "지금 당장 말을 타고 직접 가서 살펴보면 됩니다. 토착민들을

붙잡아 길을 안내하게 하면 만인들을 상대할 수 있으니,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운도 그 말에 동의하여 곧장 말을 타고 중간 길을 따라 나섰다. 채 몇 리도 가지 않아 멀리서 먼지 구름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이 언덕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수십 명의 만인 기병이 말을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양쪽 길로 돌진해 나가자, 만인들은 깜짝 놀라 달아났다. 조운과 위연은 각자 몇 명을 생포하여 진영으로 돌아온 뒤,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만인 병사가 대답했다. "앞쪽 산길 입구에 금환삼결 원수의 큰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의 동쪽과 서쪽 두 길은 각각 오계동과 동도나, 아회남의 각 진영 뒤쪽으로 통합니다."

조운과 위연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정예병 오천 명을 뽑아, 붙잡아 온 남만 병사들에게 길을 안내하게 했다. 군사를 일으켰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이경 무렵이었다. 달빛이 밝고 맑게 비추고 있어, 그 달빛을 따라 행군을 이어갔다. 금환삼결의 큰 진영에 막 도착했을 때는 대략 사경쯤 되었는데, 남만 병사들은 막 밥을 지으며 날이 밝는 대로 싸울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이때 갑자기 조운과 위연이 두 갈래로 돌격해 들어가니 남만 병사들이 크게 혼란에 빠졌다. 조운은 곧장 중군으로 쳐들어갔는데, 마침 금환삼결의 원수와 마주쳤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맞붙어 단 한 합을 겨루는 사이, 조운의 창에 찔린 원수는 말 아래로 떨어졌고 조운은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자 남은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위연은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동쪽 길로 돌아가 동도나의 진영을 습격했고, 조운 역시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서쪽 길로 돌아가 아회남의 진영을 쳤다. 남만 병사들의 큰 진영에 이르러 싸울 때쯤에는 이미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먼저 위연이 기세 좋게 달려가 동도나의 진영을 습격했다. 동도나는 진영 뒤쪽으로 군사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병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막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진영 앞문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남만 병사들이 크게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왕평의 군마가 이미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양쪽에서 협공을 가하자 남만 병사들은 대패했다. 동도나는 길을 뚫고 도망쳤으나 위연이 미처 뒤쫓지 못했다.

한편 조운이 병사를 이끌고 아회남의 진영 뒤쪽까지 들이닥쳤을 때, 마충은 이미 진영 앞까지 공격해 들어온 상태였다. 양쪽에서 협공이 어지자 남만 병사들은 대패했고, 아회남은 혼란을 틈타 도망쳤다. 각 부대는 군사를 거두어 제갈량에게 보고하러 돌아갔다.

제갈량이 물었다. "세 동의 남만 병사 중 두 명의 우두머리가 도망쳤다니, 금환삼결 원수의 머리는 어디에 있는가?"

조운이 원수의 머리를 바치며 공을 보고했다.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동도나와 아회남은 모두 말을 버리고 고개를 넘어 달아났기에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내가 사로잡았네." 조운과 위연을 비롯한 모든 장수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잠시 후, 장익이 동도나를, 장익이 아회남을 사로잡아 끌고 왔다. 장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여개의 '평만지장도'를 보고 이미 그들이 머무는 진영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운과 위연의 용맹함을 북돋워 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한 것이다. 먼저 금환삼결을 격파하게 한 뒤, 즉시 군사를 나누어 좌우 진영의 뒤편을 차단하게 하고 왕평과 마충이 이를 뒷받침하게 했다. 조운과 위연이 아니면 이 임무를 감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도나와 아회남이 반드시 지름길인 산길로 도망칠 것이라 예상했기에, 장억과 장익에게 복병을 보내 기다리게 하고 관소에게 군사를 보내 지원하게 하여 이 두 사람을 생포하도록 한 것이다."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의 계책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묘하십니다!"

제갈량은 동도나와 아회남을 막사로 압송하게 한 뒤, 그들을 묶었던 밧줄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리고 술과 음식, 옷을 하사하며 각자의 동굴로 돌아가되 다시는 악행을 돕지 말라고 명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는 각자 작은 길을 통해 돌아갔다.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맹획이 반드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올 것이다. 그 때를 노려 그를 사로잡아야 한다."

그러고는 조운과 위연을 불러 계책을 전하며 각각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게 했다. 또한 왕평과 관소를 불러 또 다른 군사를 맡기며 계책을 일러준 뒤 보내버렸다. 제갈량은 군사 배치를 모두 마친 뒤, 막사에 앉아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남만왕 맹획이 막사 안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세 명의 동 원수가 모두 제갈량에게 사로잡혔으

며, 부하 병사들도 제각기 흩어져 도망쳤다는 내용이었다. 맹획은 크게 분노하여 즉시 남만 군사를 일으켜 몰아붙였는데, 마침 왕평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양측 진영이 마주 서자, 왕평이 말을 타고 칼을 가로로 든 채 적진을 살폈다. 그러자 적의 깃발이 열리며 수백 명의 남만 기병들이 위세를 떨치며 나타났다. 그 중심에서 맹획이 말을 타고 나왔다. 그는 머리에 보석이 박힌 자금관을 쓰고, 화려한 붉은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옥으로 장식한 사자 모양 벨트를 찼고, 발에는 초록빛이 도는 장화를 신고 있었다. 또한 털이 붉은 적토마를 타고 양옆에는 보석을 박은 검 두 자루를 차고는 당당한 모습으로 좌우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남만 장수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제갈량이 병법에 능하다고들 하더니, 지금 이 진영을 보니 깃발은 어지럽고 대열은 뒤섞여 있구나. 저들의 칼과 창, 무기 중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제야 예전 사람들이 했던 말이 틀렸음을 알겠구나. 진작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벌써 저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누가 감히 나가서 촉나라 장수를 사로잡아 군의 기세를 떨쳐보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아장이 대답하며 달려 나왔다. 그는 머리를 자르는 데 특화된 커다란 도를 휘두르며 황색 말에 올라타 왕평을 잡으러 왔다. 두 장수가 맞붙어 싸웠으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왕평이 먼저 퇴각했다. 맹획은 군사를 몰아 거세게 몰아붙이며 뒤를 쫓았다. 관소 역시 잠시 맞서 싸우다 물러났는데, 약 이십여 리를 물러갔다. 맹획이 기세 좋게 추격하며 죽이려던 찰나,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왼쪽에서는 장익이, 오른쪽에서는 장익이 두 갈래로 군사를 몰고 나와 퇴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왕평과 관소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공격하자, 앞뒤로 협공을 받은 남만군은 대패했다. 맹

획은 부하 장수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겨우 탈출하여 금대산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는 세 갈래의 추격군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다. 맹획이 허둥지둥 달아나고 있는데, 앞쪽에서도 갑자기 함성이 울리며 한 부대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상산 출신의 조운이었다. 맹획은 이를 보고 크게 놀라 황급히 금대산의 좁은 길로 도망쳤다. 조운이 한바탕 돌격하자 남만군은 대패했고, 수많은 병사가 생포되었다. 맹획은 겨우 수십 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뒤쪽에서는 추격군이 코앞까지 닥쳤고, 앞쪽 길은 너무 좁아 말을 타고 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말을 버려둔 채 산을 타고 고개를 넘으며 도망쳤다. 그때 갑자기 골짜기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갈량의 계책을 받은 위연이 보병 오백 명을 이끌고 이곳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맹획은 적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위연에게 생포되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모두 항복했다.

위연이 맹획을 끌고 제갈량이 머무는 진영으로 왔다. 제갈량은 이미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준비해 두었는데, 막사 안에는 일곱 줄로 늘어선 망나니들과 칼, 창, 검, 극이 서슬 퍼런 서리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또한 황제가 하사한 황금 도끼를 들고, 곡선형 손잡이가 달린 우산을 쓴 채 앞뒤로는 악사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으며, 좌우로는 어림군이 엄격하게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제갈량이 막사 상석에 단정히 앉아 있으니, 수많은 남만 병사들이 줄을 지어 끌려오는 모습이 끝이 없었다.

제갈량은 막사 안으로 불러들인 뒤 병사들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며 달랬다. "너희는 모두 선량한 백성들인데, 불행히도 맹획에게 붙잡혀

큰 혼란을 겪게 되었구나. 너희의 부모와 형제, 아내들이 문밖에서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만약 진영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분명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모두 풀어줄 테니, 어서 돌아가서 가족들을 안심시키거라." 말을 마친 제갈량은 병사들에게 술과 음식, 쌀을 나누어 주고 돌려보냈다. 남만 병사들은 제갈량의 은혜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떠났다.

제갈량은 무사를 불러 맹획을 압송해 오라고 명했다. 잠시 후, 병사들이 앞뒤에서 떠밀어 맹획을 막사 앞으로 끌고 왔다. 맹획이 막사 아래 무릎을 꿇자 제갈량이 물었다. "선황제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하였거늘,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하느냐?" 맹획이 대답했다. "이 두 지역은 모두 남의 땅인데, 너희 주군이 힘을 앞세워 빼앗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데, 너희가 무례하게 우리 땅을 침범하니 이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이냐?"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내가 이제 너를 사로잡았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복종하겠느냐?" 맹획이 외쳤다.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어쩌다 너희 손에 걸린 것이지, 내가 어찌 순순히 굴복하겠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네가 복종하지 않겠다면, 너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맹획이 말했다. "나를 놓아준다면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승부를 겨루어 보겠다. 만약 그때도 나를 다시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기꺼이 복종하겠다."

제갈량은 즉시 맹획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입을 옷을 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으며, 말과 안장까지 챙겨주어 사람을 붙여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웅했다.

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도 다시 놓아주니, 오랑캐가 교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구나. 과연 다음 싸움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8회 — 노수를 건너 번왕을 다시 사로잡고, 거짓 항복을 알아채고 맹획을 세 번 사로잡다

渡瀘水再縛番王 識詐降三擒孟獲

한편, 제갈량이 맹획을 풀어주자 장수들이 막사로 올라와 물었다.

"맹획은 남만의 우두머리인데, 이번에 운 좋게 사로잡았으니 이제 남만은 평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놓아 주셨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를 사로잡는 일은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니, 그리하면 남만은 자연히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장수들은 이 말을 듣고도 모두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날 맹획이 로수에 이르니, 마침 패하여 흩어졌던 남만 병사들이 정탐을 하러 오다가 맹획을 발견했다. 병사들은 맹획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물었다.

"대왕님,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맹획이 대답했다.

"촉나라 놈들이 나를 막사 안에 가두었으나, 내가 열댓 명을 죽이고 어두운 밤을 틈타 탈출했다. 도망치던 중에 마침 순찰하던 기병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이리 올 수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맹획을 호위해 로수를 건넜다. 그들은 진을 치고 각 동굴의 추장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전에 놓아주었던 남만 병사들까지 차례로 불러 모으니 그 수가 십여 만 기병에 달했다. 이때 동도나와 아회남도 이미 동굴에 머물고 있었다. 맹획이 사람을 보내 그들을 청하자,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동굴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맹획이 명령을 내렸다.

"나는 이미 제갈량의 계책을 알아챘다. 그와 싸워서 안 된다. 싸우다가는 적의 궤계에 빠질 뿐이다. 저 촉나라 군대는 멀리서 오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하물며 오늘처럼 날씨가 무더운데 어찌 오래 머물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 로수의 험난한 지형이 있다. 모든 배와 뗏목을 남쪽 기슭에 모아두고, 토성을 쌓아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구축하자. 제갈량이 과연 어떤 계책을 쓰는지 두고 보자!"

여러 주장이 이 계획을 따랐다. 그들은 모든 배와 뗏목을 남쪽 기슭으로 옮겨두고 토성을 쌓았다. 또한 산과 절벽을 끼고 있는 지형에는 높은 망루를 세우고, 망루 위에는 활과 노, 투석기를 넉넉히 배치하여 오래 버틸 준비를 마쳤다. 군량과 풀은 각 동굴에서 계속 보급하기로 했다. 맹획은 이것이 만전의 계책이라 여겨 아무런 걱정 없이 태연하게 있었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여 전군이 이미 로수에 이르렀다. 정찰하던 기병이 급히 보고하기를, "로수 안에는 배나 뗏목이 전혀 없으며, 물살 또한 매우 거셉니다. 강 건너편 일대에는 토성을 쌓아놓고 만병(남만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때는 마침 5월이라 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남쪽 지방의 더위는 유독 극심하여 군마와 병사들이 갑옷을 입고 버티기 힘든 정도였다. 제갈량이 로수 근처까지 가서 상황을 살핀 뒤 본진으로 돌아와,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지금 맹획의 군대가 로수 남쪽에 깊은 도랑과 높은 성벽을 쌓고 우리 군을 막아내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 어찌 빈손으로 돌아가겠느냐? 너희는 각자 군사를 이끌고 산을 등지고 나무를 곁에 두며, 숲이 우거진 곳을 골라 인마를 쉬게 하라."

제갈량은 곧 여개를 보내 로수에서 백 리 떨어진 곳의 그늘진 곳을 찾아 네 개의 진영을 나누어 구축하게 했다. 그리고 왕평, 장익, 장익, 관소를 각각 한 진영씩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진영 안팎에 모두 풀로 초막을 만들어 말들을 가려주고 장병들이 더위를 피하며 쉴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참군 장완이 제갈량에게 다가가 물었다.

"제가 보니 여개가 만든 진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에 선제(유비)께서 동오에 패했을 때의 지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만약 만병들이 로수를 몰래 건너와 진영을 습격하고 불을 지른다면 어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공께서는 너무 의심하지 마시오. 나에게는 이미 묘책이 있소."

장완을 비롯한 이들은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다.

한편, 촉군 진영에 마대가 더위를 식힐 약과 식량을 가지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마대를 들여보내게 했다. 마대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곧바로 쌀과 약을 네 개의 진영에 나누어 배분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자네는 군사를 얼마나 데려왔는가?"

마대가 대답했다.

"삼천 명을 데려왔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우리 군사들은 계속된 전투로 지치고 힘든 상태라네. 자네 군사를 쓰고 싶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겠는지 모르겠군."

마대가 말했다.

"모두 조정의 군사들인데 어찌 우리와 남을 가리겠습니까? 승상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맹획이 로수에 버티고 서 있어 건널 길이 없네. 나는 먼저 저들의 식량 길목을 끊어 군사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려 하네."

마대가 물었다.

"어떻게 식량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여기서 백오십 리 떨어진 로수 하류의 사구에 가면 물살이 느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뗏목을 만들어 건널 수 있네. 자네는 본대 삼천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곧장 만인들의 동굴로 들어가 먼저 식량을 끊게나. 그런 다음 동도나와 아회남 두 부족의 추장을 만나 안에서 돕는 대응 역할을 하게.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네."

마대는 기꺼이 길을 떠났다. 군사를 거느리고 사구에 도착해 물을 건너려는데, 물이 얇은 곳에서는 굳이 뗏목을 타지 않고 옷을 벗어 던진 채 건너는 병사들이 많았다. 그런데 물을 건너던 병사들이 절반도 채 못 가 모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급히 강가로 구조해 보니, 병사들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마대는 크게 놀라 밤을 도와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제갈량이 즉시 길을 안내하는 토인을 불러 물었다. 토인이 대답했다. "지금은 몹시 더운 날씨라 로수에 독기가 모여 있습니다. 낮에는 열기가 심해 독기가 막 솟구치니, 누군가 물을 건너면 반드시 독에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물을 마시기라도 하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만약 물을 건너려면 반드시 밤이 깊어 물이 차갑고 독기가 가라앉았을 때, 배불리 먹고 건너야 비로소 무사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토인에게 길 안내를 맡기고, 정예 병사 오륙백 명을 선발하여 마대를 따라 로수 사구로 보냈다. 그들이 뗏목을 만들어 한밤중에 물을 건너니 과연 아무런 탈이 없었다. 마대는 이천 명의 용맹한 군사를 이끌고 토인의 안내를 받아, 남만 부족의 식량 운반로인 협산곡으로 곧장 향했다.

협산곡은 양옆이 산으로 막혀 있고 가운데로 겨우 말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만 나 있는 곳이었다. 마대는 협산곡을 선점한 뒤 군사들을 나누어 진을 치고 울타리를 세웠다. 남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식량을 나르고 있다가, 앞뒤로 길을 막아선 마대의 군사들에게 걸려들었다. 결국 식량 백여 수레를 빼앗겼고, 이 소식은 맹획의 본진으로 전해졌다.

이때 맹획은 진영 안에서 온종일 술을 마시며 즐길 뿐 군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여러 추장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제갈량과 맞붙는다면 반드시 간단한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이 로수의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 깊은 도랑을 파고 높은 성벽을 쌓아 적을 기다려야 한다. 촉나라 사람들은 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반

드시 퇴각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뒤를 쫓아 공격한다면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을 마친 맹획은 허허거리며 크게 웃었다.

그때 한 추장이 나서서 말했다. "사구는 물이 얕으니, 만약 촉나라 군사가 몰래 건너온다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군사를 나누어 지켜야 합니다." 맹획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곳 토인이면서 어찌 그것을 모르느냐? 나는 오히려 촉나라 군사가 이 물을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너기만 하면 반드시 물속에서 죽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자 추장이 다시 물었다. "만약 어떤 토인이 밤에 강을 건너는 법을 알려준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맹획이 말했다. "의심할 것 없다. 우리 땅의 사람이 어찌 적을 돕겠느냐?"

말을 나누던 중, 갑자기 촉나라 군사가 얼마인지 모를 만큼 많은 무리가 로수를 몰래 건너 협산곡의 식량 길목을 끊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그들은 '평북장군 마대'라는 깃발을 내걸고 있었다. 맹획은 웃으며 말했다. "저런 애송이들이 무엇이 대수라고!" 그러고는 즉시 부장 망아장에게 삼천 명의 군사를 주어 협산곡으로 보내게 했다.

한편, 마대는 남만 군사가 도착한 것을 보고 즉시 이천 명의 군사를 산 앞에 배치했다. 양쪽 진영이 서로 마주 보자, 망아장이 말을 타고 나와 마대와 맞붙었다. 그러나 단 한 합을 겨루기도 전에 마대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남만 군사는 크게 패하여 도망치듯 돌아가 맹획에게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맹획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누가 가서 마대를 상대하겠느냐?"라고 묻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도나가 나서며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

며 곧장 삼천 명의 병사를 주어 그를 보냈다. 또한 맹획은 누군가 다시 로수를 건너올까 두려워, 아회남에게 삼천 명의 병사를 붙여 사구를 지키게 했다.

한편, 동도나가 남만 군사를 이끌고 협산곡에 진을 치자 마대가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갔다. 마대의 부하 중에 동도나를 알아본 이가 있어 마대에게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마대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 크게 꾸짖었다.

"은혜를 저버리는 의리 없는 놈들아! 우리 승상께서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었거늘, 이제 와 다시 배반하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동도나는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하여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한 채 싸우지도 않고 물러났다. 마대는 한바탕 기세를 몰아 적을 몰아붙인 뒤 돌아왔다. 동도나가 돌아가 맹획에게 보고했다.

"마대가 워낙 용맹하여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맹획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놈이 원래 제갈량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일부러 싸우지 않고 물러난 것이 분명하다!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러자 여러 추장이 거둬들인 끝에 겨우 죽임을 면할 수 있었다. 맹획은 무사들에게 동도나를 몽둥이로 백 대 때리게 한 뒤, 자신의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여러 추장이 동도나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가 비록 오랑캐 땅에 살고는 있으나, 감히 중원을 침범한 적이 없으며 중원에서도 우리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맹획의 세력이 우리를 압박해 오니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제갈량의 신기묘산한 계책은 조조나 손권조차 두려워할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오랑캐들이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모두는 그에게 목숨을 구걸해 살아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습니다. 이제 차라리 목숨을 버리고 맹획을 죽여 제갈량에게 항복함으로써, 우리 부족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동도나가 물었다. "그대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때 제갈량이 풀어준 사람 중 일부가 있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대답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동도나는 강철 칼을 손에 쥐고 백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맹획의 진영으로 곧장 달려갔다. 마침 맹획은 막사 안에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다. 동도나가 무리를 이끌고 칼을 든 채 막사로 들이닥치자, 막사 아래에는 두 장수가 시립하고 있었다. 동도나가 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 또한 제갈 승상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으니, 마땅히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두 장수가 말했다. "장군께서 직접 손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맹획을 생포하여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막사 안으로 들어가 맹획을 결박한 뒤, 로수 강가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북쪽 기슭으로 건너가 먼저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제갈량은 이미 첩자를 통해 이 일을 알아차리고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각 진영의 장수와 병사들에게 무기를 정비하게 한 뒤, 추장들에게는 맹획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가 대기하게 했다. 동도나가 먼저 중군으로 들어와 제갈량을 만나 이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은 동도나에게 큰 상을 내리고 좋은 말로 달려서 추장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나서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에게 명하여 맹획을 밀고 들어오게 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그대는 다시 잡히기만 하면 항복하겠다고 말했소. 오늘은 어떠시오?"

맹획이 말했다. "이것은 그대의 능력이 아니라, 내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요. 내가 어찌 항복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이번에도 그대를 다시 풀어준다면 어찌하겠소?"

맹획이 대답했다. "내가 비록 오랑캐라 하나 병법을 꽤 알고 있소. 만약 승상이 이번에도 나를 동굴로 돌려보내 준다면, 나는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다시 나타나 승부를 가릴 것이요. 만약 승상이 이번에도 나를 생포한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항복할 것이니 다시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이번에 생포했는데도 만약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겠소."

제갈량은 좌우 병사들에게 명하여 맹획의 포박을 풀게 하고, 여전히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장막 안에 나란히 앉게 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초가집을 나서 이래로 싸우면 지지 않았고, 공격하면 얻지 못한 것이 없었소. 그대 같은 남만 사람이 어찌하여 행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오?"

맹획은 아무 말 없이 대답하지 않았다.

제갈량이 술을 마신 뒤 맹획을 불러 말에 태우고 진영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각 진영의 울타리 안에 쌓인 식량과 비축된 무기들을 살펴보았다. 제갈량이 맹획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가 내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오. 나에게 이토록 정예한 병사와 용맹한 장수들, 그리고 충분한 식량과 무기가 있는데 그대가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소? 만약 일찍 행복했다면 내가 즉시 천자에게 보고하여 그대가 왕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이 오랑캐 땅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했을 것이오. 그대의 생각을 어떠하오?"

맹획이 대답했다.

"제가 비록 행복하고 싶다 한들, 동굴 속의 사람들이 아직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으니 어찌겠습니까? 만약 승상께서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

신다면, 제 부하들을 불러 모아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기꺼이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은 기뻐하며 맹획과 함께 큰 진영으로 돌아왔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자 맹획이 작별을 고했다. 제갈량은 직접 맹획을 로수 강가까지 배웅하여 그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

맹획은 본진으로 돌아오자마자 먼저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을 막사 앞에 매복시켰다. 그러고는 심복을 동도나와 아회남의 진영으로 보내, 제갈량이 전할 명령이 있다고 속여 두 사람을 큰 막사로 유인한 뒤 모두 죽여 시체를 골짜기에 버리게 했다. 이어 맹획은 측근들을 시켜 험한 길목을 지키게 한 뒤, 직접 군사를 이끌고 협산곡을 나와 마대와 싸우려 했다. 하지만 막상 나가 보니 적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토인들에게 물어보니, 어젯밤에 이미 식량과 풀을 모두 옮겨 로수 강을 건너 본진으로 돌아갔다고 일제히 대답했다. 맹획이 다시 동굴로 돌아와 친동생 맹우와 상의하며 말했다. "이제 제갈량의 허실을 내가 완전히 파악했으니, 너는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맹우는 형의 계책을 따라 백여 명의 남만 병사를 이끌고 금과 구슬, 보물, 상아, 코뿔소 뿔 같은 물건들을 싣고 로수를 건너 제갈량의 본진으로 향했다. 막 강을 건너려는데, 앞쪽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마대였다. 맹우는 크게 놀랐다. 마대는 맹우에게 무슨 일인지 물은 뒤, 그를 바깥 행영에 머물게 하고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보고하게 했다.

한편 제갈량은 막사 안에서 마속, 여개, 장완, 비위 등과 함께 남만을 평정할 방도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막사 밖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 맹획의 동생 맹우가 보물을 바치러 왔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이 마속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가 온 의도를 알겠느냐?" 마속이 대답했다.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제가 종이에 적어 승상께 올릴 테니 뜻에 맞는지 살펴주십시오." 제갈량이 이를 허락했다. 마속이 글을 써서 제갈량에게 올리자, 제갈량은 그것을 다 읽고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맹획을 사로잡을 계책은 이미 내가 다 세워두었느니라. 네 생각이 나와 정확히 일치하는구나." 그러고는 곧장 조운을 불러들여 꺾속말로 이리저리 지시하였고, 이어 위연을 불러 역시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왕평, 마충, 관색을 차례로 불러들여 비밀리에 상세히 지시하였다.

제갈량은 계책에 넘어간 이들에게 명령을 내려 물러가게 한 뒤, 맹우를 막사 안으로 불렀다. 맹우가 막사 아래에서 절을 하며 말했다.

"저희 형님 맹획께서 승상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 우선 금과 구슬, 보석 등을 조금 준비해 군사들의 상금으로 쓰시라고 보냅니다. 다음에 다시 천자께 올릴 예물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자네 형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승상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직접 은강산으로 가서 보물을 채겨 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사람은 얼마나 데려왔는가?"

"감히 많이 데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짐을 나를 사람 백여 명 정도만 데려왔습니다."

제갈량이 사람들을 모두 막사 안으로 불러들여 살펴보니, 모두 눈은 푸르고 얼굴은 검으며 머리카락은 노랗고 수염은 보랏빛을 띤 이들이었다. 귀에는 금고리를 걸고 머리는 흐트러뜨린 채 맨발로 다니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다. 제갈량은 즉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장수들에게 술을 권하며 정성스럽게 대접하도록 명했다.

한편, 맹획은 막사 안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맹획이 그들을 불러 상황을 물으니 다음과 같았다.

"제갈량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수행원들을 모두 막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연회를 베풀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두 대왕께서 저에게 비밀리에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두 번째 경(二更)에 안팎에서 함께 움직여 큰일을 도모합시다."

맹획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즉시 삼만 명의 남만 병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소집했다. 그러고는 각 동굴의 추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각 부대는 모두 불을 붙일 도구를 챙겨라. 오늘 밤 축군의 진영에 도착하면 불을 피워 신호로 삼는다. 나는 직접 중앙 진영으로 쳐들어 가 제갈량을 사로잡을 것이다."

수많은 남만 장수들이 이 계책을 받아들여, 해 질 녘 무렵 각자 로슈 강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맹획은 심복 장수 백여 명을 거느리고 곧장 제갈량의 대진영으로 향했는데, 길목에는 그를 막아서는 군사가 한 명도 없었다. 맹획이 장수들을 이끌고 말을 달려 진영 문 앞까지 이르러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그곳은 텅 빈 진영이었고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맹획이 중앙 막사로 돌진해 들어가 보니, 막사 안은 촛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맹우와 초병들은 모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알고 보니 맹우는 제갈량의 지시를 받은 마속과 여개에게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악사들을 불러 잡극을 공연하게 하고 정성스럽게 술을 권했는데, 사실 술에 약을 섞었기에 모두가 마치 술에 취해 죽은 사람처럼 혼절해 있었던 것이다. 맹획이 막사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물으니, 깨어 있는 자가 있었으나 그저 입을 가리키는 것뿐이었다.

맹획은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맹우와 부하들을 구출했다. 그러나 본진으로 급히 돌아가려는데, 앞쪽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남만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왔는데, 바로 촉나라 장수 왕평이었다. 맹획이 크게 놀라 왼쪽 부대 쪽으로 급히 달아나니, 이번에는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며 또 다른 군사가 들이닥쳤다. 그 앞장선 촉나라 장수는 위연이었다. 맹획이 당황하여 오른쪽 부대 쪽을 바라보았으나, 또다시 불길이 일더니 또 다른 군사가 습격해 왔다. 그 선두에

선 측나라 장수는 조운이었다. 세 방향에서 군사들이 협공해 들어오니 도망칠 길이 전혀 없었다. 결국 맹획은 군사들을 버려둔 채 말을 타고 로수 쪽으로 도망쳤다. 마침 로수 위에서 남만 병사 수십 명이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 보여, 맹획은 급히 배를 가까운 강가로 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사람과 말이 막 배에서 내리려는 찰나, 갑자기 고함이 터져 나오더니 맹획이 결박당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마대가 계책을 써서 자기 부대 병사들을 남만 병사처럼 변장시킨 뒤 배를 띄워 놓고, 맹획을 유인해 잡으려 했던 것이었다.

한편, 제갈량은 남만 군사들을 투항시키려 권유했고, 이에 수많은 병사가 항복했다. 제갈량은 항복한 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달래 주었을 뿐, 결코 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남아 타고 있던 불을 끄도록 명령했다.

잠시 후, 마대가 맹획을 사로잡아 왔고, 조운은 맹우를 잡아 왔다. 이어 위연, 마충, 왕평, 관색이 각 부족의 추장들을 잡아 왔다. 제갈량이 맹획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네가 먼저 네 동생을 시켜 예의를 갖추는 척하며 속이려 했는데,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이번에도 나에게 잡혔으니, 이제는 복종하겠느냐?"

맹획이 대답했다.

"이것은 내 동생이 먹을 것만 탐내다가 그대의 계략에 빠져 일을 그르친 것이다. 내가 직접 왔다면 동생이 군사를 일으켜 응전했을 것이니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다. 내가 어찌 복종하겠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세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어찌 아직도 복종하지 않느냐?"

맹획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너를 다시 놓아주겠다."

맹획이 말했다.

"승상께서 만약 내 형제들을 놓아주신다면, 집안의 친척과 가솔들을 불러 모아 승상과 크게 한판 싸워보겠다. 그때 잡힌다면 그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항복하겠다."

제갈량이 말했다.

"만약 다시 잡힌다면 그때는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고, 병법서를 부지런히 읽으며 믿음직한 부하들을 다시 정비하여 좋은 책략을 빨리 써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맹획과 맹우, 그리고 각 부족 추장들의 포박을 풀어주어 모두 한꺼번에 놓아주었다. 맹획 일행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이때 측군 병사들은 이미 로수를 건너온 상태였다. 맹획 일행이 로수를 건너자, 강가에는 장수들이 군대를 늘어세우고 깃발이 어지럽게 펄럭이고 있었다. 맹획이 진영 앞에 이르자, 마대가 높은 곳에 앉아 칼로 그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이번에 잡히면 절대로 그냥 보내주지 않겠다!" 맹획이 자신의 채에 도착했을 때는, 조운이 이미 그곳을 습격하여 병사들을 배치해 둔 상태였다. 조운은 커다란 깃발 아래 앉아 칼을 쥐고 엄중히 말했다. "승상께서 이토록 대우해 주시니, 그 큰 은혜를 잊지 말라!" 맹획은 연신 대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맹획이 성밖 산길로 나갈 때, 위연이 정예병 천 명을 이끌고 언덕 위에 매복해 있다가 말을 몰며 크게 외쳤다. "네놈이 제 발로 소굴 깊숙이 들어와 요충지를 내주었거늘, 아직도 어리석게 대군에 맞서려 하느냐! 이번에 잡히면 갈갈이 찢어 죽일 것이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맹획 일행은 머리를 감싸 쥐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며 본거지인 은강동을 향해 달아났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다.

"오월에 군사를 몰아 불모의 땅으로 들어가니, 밝은 달 아래 로수에는 독한 안개가 높이 피어오르네. 삼고초려의 큰 뜻을 펼치려 결심했으니, 남만을 일곱 번이나 놓아주는 수고로움을 어찌 두려워하랴?"

한편, 제갈량이 로수를 건너 진영을 구축한 뒤 삼군에 큰 상을 내리고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말했다.

"맹획을 두 번째로 사로잡았을 때, 내가 모든 진영의 허실을 살피게 한 것은 그가 우리 진영을 습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맹획이 병법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일부러 병마와 군량미를 과시하여 그가 우리의 허점을 보고 화공을 펼치게 만들려 했다. 또한 그가 동

생을 시켜 거짓 행복을 하게 한 것도 안에서 내응하려는 속셈이었다. 내가 그를 세 번이나 사로잡고도 죽이지 않는 것은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지, 그 무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니,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말고 오직 나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임하라."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지혜와 인덕, 용맹까지 모두 갖추셨으니, 비록 옛 성인인 강태공이나 장량이라 할지라도 승상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가 어찌 감히 옛사람들과 비교되기를 바라겠는가? 모두 너희의 힘을 빌려 함께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뿐이다."

막사 안의 장수들은 제갈량의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뜻을 모았다.

한편, 맹획은 세 번이나 사로잡히는 수모를 겪자 분노에 가득 차 은 갱동으로 돌아갔다. 그는 곧장 심복들을 보내 금과 구슬, 보물을 가지고 팔번(八番)과 구십삼전(九十三甸) 등지와 여러 남만 부족들을 찾아가게 하여, 방패와 칼을 든 요족 병사와 건장한 군사 수십만 명을 빌려 정해진 날짜까지 모두 준비하게 했다. 각 부대의 군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안개처럼 밀려들 듯 모여들었으니, 모두 맹획의 부름에 따르는 것이었다. 이를 미리 살피던 정찰병이 이 사실을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은 웃으며 말했다.

"남만 군사들이 모두 모여드는 것을 보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어야겠구나."

그러고는 작은 수레에 올라타 길을 떠났다.

동굴 주인의 위엄이 저토록 사나운데, 어찌 군사의 수단이 저토록 높음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9회 — 무향후가 네 번 계책을 쓰고, 남만왕이 다섯 번 사로잡히다

武鄉侯四番用計 南蠻王五次遭擒

한편, 제갈량은 작은 수레를 타고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린 채 길을 살피러 나섰다. 앞에는 서이하라는 강이 있었는데, 물살은 비록 느렸으나 배나 뗏목이 한 척도 없었다. 제갈량이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건너게 하려 했으나, 나무를 물에 띄우니 죄다 가라앉아 버렸다. 제갈량이 여개에게 방법을 묻자 여개가 대답했다. "서이하 상류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대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굵기가 사람 여러 명이 둘러쌀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대나무를 베어다가 강 위에 대나무 다리를 놓으면 군사와 말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즉시 삼만 명의 군사를 산으로 보내 수십만 대나무를 베어내게 했다. 그리고 대나무를 물길을 따라 내려보낸 뒤, 강폭이 좁은 곳에 폭이 십여 장에 달하는 대나무 다리를 놓았다. 이어 대군을 강 북쪽 기슭에 일렬로 배치하여 진을 쳤다. 강을 해자처럼 삼고, 대나무 다리를 문으

로 쓰며, 흙을 쌓아 성을 만들었다. 다리를 건너 남쪽 기슭에는 세 개의 큰 진영을 일렬로 세워 남만군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렸다.

한편, 맹획은 수십만 명의 남만 군사를 이끌고 분노에 가득 차 몰려왔다. 맹획이 앞장선 만 명의 병사를 서이하 근처까지 몰고 오더니, 곧장 측근 앞 진영을 압박하며 싸움을 걸어왔다. 제갈량은 머리에 유건을 쓰고 학창의를 걸친 채,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났다. 좌우로는 여러 장수가 그를 호위하며 뒤따랐다.

제갈량이 보니, 맹획은 코뿔소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붉은 투구를 쓴 채,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붉은 털이 난 소를 타고 육설을 내뺏고 있었다. 그 수하의 만여 명에 달하는 병사들도 저마다 칼과 방패를 휘두르며 거칠게 몰려들었다.

제갈량은 급히 본진으로 물러가 성문을 굳게 닫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 싸우지 말라고 명령했다. 남만 병사들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차림으로 진영 문 앞까지 밀려와 소리를 지르며 육설을 퍼부었다. 이를 본 장수들이 크게 분노하여 제갈량에게 달려와 말했다.

"저희가 진영 밖으로 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갈량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수들이 거듭 싸우겠다고 간청하자 제갈량이 그들을 말렸다.

"저들은 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기세가 매우 사납고 광포하니 맞서 싸워서 안 됩니다. 우선 며칠간 굳게 지키

며 적의 기세가 조금 꺾이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저들을 물리칠 묘책이 제게 있습니다."

이에 촉나라 군대는 며칠 동안 굳게 성을 지키며 버텼다. 제갈량은 높은 언덕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남만군이 이미 많이 지치고 해이해진 것을 보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그대들은 감히 출전하겠는가?"

장수들은 모두 기쁜 기색으로 출전하겠다고 답했다. 제갈량은 먼저 조운과 위연을 막사로 불러 귓속말로 세세하게 계책을 일러주었다. 두 사람은 계책을 듣고 먼저 나갔다. 이어 왕평과 마충을 불러 계책을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마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분부했다.

"나는 이제 이 세 군영을 버리고 강 북쪽으로 후퇴할 것이니, 우리 군이 물러가면 즉시 띄워놓은 다리를 걷어내고 이를 하류로 옮겨라. 그리하여 조운과 위연의 군마가 강을 건너와 우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라."

마대는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다시 장익을 불러 말했다.

"우리 군이 퇴각할 때 진영 곳곳에 횃불을 많이 밝혀두어라. 맹획이 이를 보면 반드시 뒤쫓아올 것이니, 그대는 적의 뒤를 차단하라."

장익도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관색에게 수레를 호위하도록 명했다. 촉나라 군대가 물러나면서 진영 곳곳에 불빛을 가득 밝히자, 이를 본 남만군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맹획이 대규모 만만 병사들을 이끌고 축한의 진영으로 들어닥쳤다. 그런데 살펴보니 세 곳의 큰 진영 모두 병사나 말은 보이지 않고, 안에는 버려진 식량 수레와 짐수레 수백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맹우가 말했다. "제갈량이 진영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분명 무슨 계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맹획이 대답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갈량이 보급 수레를 버리고 떠난 것은 분명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오나라가 침공해 왔거나, 아니면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헛되이 횃불을 밝혀 의심스러운 군대를 만들어 놓고 수레들을 버려둔 채 떠난 것이니, 서둘러 추격하여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맹획은 직접 앞장서서 군사를 몰아 서이하 강가까지 나아갔다. 강 북쪽 기슭을 바라보니 진영의 깃발들이 예전처럼 가지런히 꽂혀 있어 구름무늬 비단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을 따라 성벽 같은 방어 시설까지 세워져 있었다. 만만 병사들이 초병을 통해 이를 보고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맹획이 맹우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이 우리가 추격해 올 것을 두려워하여 강 북쪽 기슭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니, 이를 안에 반드시 떠날 것이다." 맹획은 즉시 만만 병사들을 강가에 주둔시키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시켜 산에서 대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게 했다. 그러고는 싸울 만한 병사들을 모두 진영 앞으로 옮겨 놓았다. 하지만 축한의 군사들이 이미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사방에서 횃불이 밝게 빛나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한 군사들이 몰려왔다. 남만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부딪히며 엉켰고, 맹획은 크게 놀라 종족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터서 서둘러 옛 진영으로 도망쳤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진영에서 튀어나왔는데, 바로 조운이었다. 맹획은 황급히 서이하 쪽으로 돌아 산의 외진 곳을 향해 달아났다. 뒤이어 또 다른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으니, 바로 마대였다. 맹획은 겨우 수십 명의 패잔병만을 거느린 채 산골짜기를 향해 도망쳤다.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 세 방향에서 먼지 구름과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동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겨우 산고개를 돌아서자 커다란 숲 앞에 수십 명의 수행원이 작은 수레 한 대를 끌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허허 웃으며 말했다. "남만왕 맹획아! 하늘의 뜻이 이토록 기울었으니, 내가 이미 너를 오래 기다렸다!" 맹획은 크게 분노하며 좌우를 돌아보고 외쳤다. "내가 저자의 계략에 빠져 벌써 세 번이나 수치를 당했구나! 이제 여기서 마주쳤으니, 너희는 힘을 다해 저놈과 수레를 통째로 박살 내버려라!"

남만 병사 몇 명이 말을 타고 맹렬히 앞으로 달려 나갔다. 맹획이 앞장서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숲 앞까지 달려갔으나, 발을 헛디뎠다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모두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위연이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남만 병사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어 밧줄로 꿰뚫어 묶었다.

한편 제갈량은 먼저 진영으로 들어가 남만 병사들과 여러 마을의 추장, 마을 사람들을 행복시키고 달렸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을로 돌아간 상태였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행복했다. 제갈량은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좋은 말로 위

로하며 모두 돌려보내 주었다. 남만 병사들은 모두 감탄하며 물러갔다.

잠시 후, 장익이 맹우를 끌고 왔다. 제갈량이 그를 보고 꾸짖으며 말했다. "네 형은 어리석고 미혹되어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네가 마땅히 그를 간언해야 한다. 벌써 네 형이 내게 네 번이나 사로잡혔는데,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보겠느냐!" 맹우는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바닥에 엎드려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너를 죽이는 것은 오늘이 아니다. 우선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가서 네 형을 잘 타 이르도록 해라." 제갈량이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맹우의 포박을 풀게 하자, 맹우는 울면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연이 맹획을 끌고 왔다. 제갈량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번에도 또 내게 사로잡혔으니,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맹획이 대답했다. "내가 이번에 속임수에 빠졌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소!" 제갈량이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맹획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제갈량을 돌아보며 말했다. "만약 나를 다시 놓아준다면, 반드시 이 네 번의 원한을 갚으리라!"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좌우에 명하여 맹획의 결박을 풀게 하고,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게 한 뒤 장막 안으로 앉혔다.

제갈량이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네 번이나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는데도 여전히 복종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이나?" 맹획이 말했다. "내가 비록 문명 세계 밖의 사람이긴 하나, 승상처럼 온통 속임수만 쓰는 사람은 아니오. 내가 어찌 기꺼이 복종하겠소?"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내가 너를 다시 놓아준다면, 또다시 싸우겠느냐?" 맹획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만약 나를 다시 사로잡으신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항복하여 내 동굴의 모든 것을 바쳐 군사들을 대접하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소."

제갈량은 웃으며 그를 보내주었다. 맹획은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맹획은 곧바로 여러 동굴에서 장정 수천 명을 모아 남쪽으로 줄지어 나아갔다. 한참을 가는데 멀리 먼지 구름이 일더니 병사 한 무리가 다가왔다. 바로 맹획의 동생 맹우가 패잔병을 추스르고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맹우가 말했다. "제 병사들은 번번이 패하고 촉나라 군대는 계속 승리하니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산음동 안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며 나올 기회를 엿볼 수밖에요. 촉나라 군사들도 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맹획이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고 묻자 맹우가 대답했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면 독룡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타사 대왕이 저와 사이가 매우 좋으니 그곳으로 몸을 피하면 됩니다."

맹획은 먼저 맹우를 독룡동으로 보내 도사 대왕을 만나게 했다. 도사가 급히 동굴 병사들을 이끌고 마중 나오자, 맹획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나눈 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했다.

도사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만약 촉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친다면, 그들이 말 한 마리, 사람 한 명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제갈량과 함께 이곳에서 모두 죽게 만들겠습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도사에게 계책을 물었다. 도사가 대답했다.
"이 동굴에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동북쪽으로 난 길은 대왕께서
들어오신 길인데, 지형이 평탄하고 흙이 두터우며 물맛도 달아서 사람
과 말이 다니기에 좋습니다. 만약 나무와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린다
면, 설령 백만 대군이 몰려온다 해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서
북쪽으로 난 길은 산세가 험하고 고개가 험악하며 길도 매우 좁습니다.
그중에 작은 길이 있기는 하나 독사나 전갈 같은 흉측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황혼 무렵에는 독한 안개가 크게 피어올라 사시
와 오시가 되어서야 걷히니, 오직 미시, 신시, 유시 세 시간대에만 오
갈 수 있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어 사람과 말이 지나가기 매우 어렵습
니다.

또한 이곳에는 네 개의 독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천인데, 물맛
은 제법 달콤하지만 사람이 마시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열흘 안에 반
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는 멸천으로, 물이 끓는 탕과 다를 바 없어 사람
이 몸을 담그면 살점이 다 썩어 빠가 드러나며 반드시 죽습니다. 세 번
째는 흑천인데, 물이 약간 맑아 보여서 몸에 튀기만 해도 손발이 검게
변하며 죽습니다. 네 번째는 유천으로, 물이 얼음처럼 차가워 사람이
마시면 목구멍에 온기가 사라지고 몸이 솜처럼 흐물흐물해져 죽게 됩
니다. 이곳에는 벌레나 새조차 살지 못하며, 예전에 한나라의 복파장
군이 이곳에 왔던 이후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
다.

그러니 동북쪽 큰길을 막아버리고 대왕께서는 이 동굴에서 편히 계
십시오. 촉나라 군사들이 동쪽 길이 끊긴 것을 보면 반드시 서쪽 길로

들어올 텐데, 그 길에는 마실 물이 없고 이 네 독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백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모두 돌아가지 못할 터이니, 어찌 칼과 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이제야 겨우 몸을 피할 곳이 생겼구나! 제갈량이 아무리 신기한 계책을 낸다 한들 이곳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네 독샘의 물이면 패배한 원한을 갚기에 충분하다!"

이후 맹획과 맹우는 종일 도사 대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지냈다.

한편, 제갈량은 며칠 동안 맹획의 군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대군에 명령을 내려 서이하를 떠나 남쪽으로 진군하게 했다. 이때는 마침 무더운 6월이라 열기가 마치 불길처럼 뜨거웠다. 후대의 어떤 이가 남방의 무더위를 읊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았다.

"산과 높은 타들어 가고, 불빛은 하늘을 뒤덮었으니, 천지 밖의 더위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또 시 한 구절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붉은 황제께서 권세를 잡으시니 검은 구름 감히 생겨나지 못하고, 구름은 무더위에 피어오르고 외로운 학은 혈떡이며, 바다는 뜨거워 거대한 자라가 놀라노라. 시냇가에 앉아 있다 차마 떠나기 어렵고, 대숲 거니는 일조차 나른하여 그만두는구나. 하물며 사막 변방의 나그네가 어찌하여 갑옷을 갖춰 입고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하는가?"

제갈량이 대군을 거느리고 행군하던 중, 갑자기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맹획이 돌룡동으로 퇴각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의 길목마다 진을 치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산세가 험하고 고개가 가팔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갈량이 여개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으니, 여개가 대답했다. "저도 이 동굴에 통하는 길이 하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자 장완이 말했다. "맹획은 이미 네 번이나 사로잡혔으니 기세가 꺾였을 텐데, 어찌 감히 다시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날씨도 무더워 군마들이 지쳐 있으니, 무리하게 공격해 보아야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맹획의 계략에 빠지는 꼴이 됩니다. 우리 군이 물러나면 저들이 반드시 그 기세를 몰아 추격해 올 것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즉시 왕평에게 수백 명의 군사를 주어 전위 부대로 삼게 하고, 새로 항복한 남만 병사들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여 북서쪽의 작은 길로 들어서게 했다. 길을 가다 보니 한 샘이 나타났는데, 사람과 말이 모두 목이 말라 다투어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왕평이 이 길을 확인한 뒤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대영채에 도착했을 때는 병사들이 모두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가리킬 뿐이었다.

제갈량은 크게 놀라 병사들이 독에 중독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작은 수레를 몰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현장을 살피러 나

섰다. 도착해 보니 맑은 물이 고인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데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병사들이 감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제갈량이 수레에서 내려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이 험준한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의구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때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오래된 사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갈량이 덩굴을 잡고 산을 타고 올라가 보니, 돌로 만든 집 안에 장군상이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바로 한나라의 북파장군 마원에게 모시는 사당이었다. 마원이 남만 정벌을 위해 이곳까지 왔던 일을 기려 현지 사람들이 세운 것이었다.

제갈량이 두 손 모아 절하며 말했다. "저 제갈량은 선황제로부터 고아를 돌보라는 중책을 받았고, 이제 성旨를 받들어 이곳에 와서 남만을 평정하려 합니다. 남만을 평정하고 나면 위나라를 치고 오나라를 삼켜 한나라의 위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지리에 어두워 실수로 독물을 마시는 바람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신령께서 우리 조정의 은혜를 보살피시어, 신비로운 힘을 나타내어 우리 삼군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갈량이 기도를 마친 뒤, 사당을 나와 현지인을 찾아가 사정을 물었다. 그때 저 멀리 건너편 산에서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이 한 명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했다. 제갈량이 노인을 사당으로 모셔 들여 예를 갖추는 뒤, 돌 위에 마주 앉았다. 제갈량이 물었다.

"어르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대국의 승상께서 명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만 사람들은 승상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이가 많으니, 모두 그 은혜가 깊습니다."

제갈량이 샘물의 정체에 대해 묻자 노인이 답했다.

"군사들이 마신 물은 아천의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말을 하기 어려워지며, 며칠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이 샘 외에도 세 개의 샘이 더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물이 매우 차가운 유천이 있는데,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목구멍에 온기가 사라져 몸이 약해지다 죽습니다. 정남쪽에는 물을 몸에 맞으면 손발이 검게 변하며 죽는 흑천이 있고, 서남쪽에는 물이 끓는 탕처럼 뜨거워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살점이 다 벗겨져 죽는 멸천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 네 개의 샘이 있어 독기가 모여 있으니 고칠 약도 없습니다. 게다가 독한 안개까지 심하게 피어올라, 미시, 신시, 유시 세 시간대에만 오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독한 안개가 뻑뻑하게 깔려 있어, 달기만 해도 죽고 맙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대로라면 남만 세력을 평정할 수 없겠구나. 남만이 평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오나라와 위나라를 병합하고 한나라의 부흥을 이끌 수 있겠는가? 선제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무거운 책임을 저버리게 된다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부가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어르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서 서쪽으로 몇 리만 가면 산골짜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안으로 스무 리쯤 들어가면 만안계라는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만안은자라고 불리는 고결한 선비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시냇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내왔지요. 그 초가집 뒤편에는 안락천이라는 샘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독에 중독되었다면 그 물을 길어 마시기만 해도 곧 나을 것입니다. 또한 피부병에 걸리거나 독한 기운에 노출된 사람이라도 만안계 물에 몸을 담그면 자연히 나아 집니다. 게다가 초가집 앞에는 '해엽운향'이라는 풀이 있는데, 사람이 그 잎을 입에 물고 있으면 독한 기운이 몸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승상께서는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구해 오십시오."

제갈량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물었다. "어르신께서 이토록 생명을 살릴 덕을 베풀어 주시니 감격스러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함이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나는 이곳의 산신으로, 복파장군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길을 안내하러 왔소."

말을 마친 노인은 사당의 석벽을 호통치듯 열고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제갈량은 몹시 놀라 사당 신에게 다시 한번 절을 올린 뒤,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 수레를 찾아 대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제갈량은 향과 예물을 준비하여 왕평과 눈먼 병사들을 데리고 밤을 도와 산신이 말한 곳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산골짜기의 좁

은 길을 따라 20여 리쯤 들어서자, 울창한 소나무와 백송, 무성한 대나무와 기이한 꽃들이 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울타리 안에는 초가집 몇 채가 있었는데,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내음이 풍겨왔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마을 집 문을 두드리자 어린 아이 하나가 나왔다. 제갈량이 막 이름을 밝히고 인사를 하려는데, 대나무 관을 쓰고 풀신을 신은 채 흰 도포에 검은 띠를 두른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푸른 눈에 노란 머리를 한 채 반갑게 외쳤다. "오시는 분이 혹시 한나라의 승상 아니십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물었다. "고결한 선비께서 어찌 저를 알아보십니까?" 은자가 대답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정벌하신다는 소문을 오래전부터 들었으니,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곧 제갈량을 초가집 안으로 모셨다. 인사가 끝나고 주인과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유비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성지를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이곳까지 왔으니, 남만 땅을 복종시켜 왕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맹획이 동굴로 숨어드는 바람에 우리 군사들이 실수로 아천의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밤사이 복파장군께서 나타나셔서, 이곳 고결한 선비께 치료할 수 있는 약수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신령한 물을 내려주시어, 병든 군사들의 목숨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은자가 말했다. "저는 그저 산야에서 은거하며 사는 노인일 뿐인데, 승상께서 이 먼 곳까지 직접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샘은 바로 암자 뒤에 있습니다." 그는 물을 떠 오라고 일러주었다.

동자가 왕평과 군사들을 이끌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떠 마시게 하니, 병사들이 곧 입안의 더러운 침을 뱉어내고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동자는 군사들을 만안계로 데려가 몸을 씻게 했다. 한편, 은거하던 맹절은 암자에서 백자차와 송화채를 준비하며 제갈량을 기다렸다. 맹절이 제갈량에게 말했다.

"이곳 만만 동굴에는 독사와 전갈이 아주 많습니다. 버들꽃 가루가 시냇물 사이로 흘러드니 그 물을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 그 물을 길어 마셔야 합니다."

제갈량이 '해엽운향'을 구해달라고 청하자, 맹절은 군사들에게 이를 마음껏 채집하게 하며 말했다.

"군사들은 각자 입에 잎사귀 하나씩을 물고 계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장기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량이 맹절의 성함을 여쭙니, 맹절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맹획의 형인 맹절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은 깜짝 놀랐다. 맹절이 말을 이었다.

"승상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짧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세 아들을 낳으셨는데, 첫째가 바로 이 늙은이 맹절이고, 둘째가 맹획이며, 셋째가 맹우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두 동생은 성정이 거칠고 악하여 왕의 교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언했으나 듣지 않았기에, 저는 이름을 바꾸고 성도 고쳐 이곳에 은거해 왔습니다. 이제 동생이 죄를 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승상께서 이 척박한 땅까지 깊숙이 오시게 되었으니, 이런 일을 겪게

한 저 맹절은 마땅히 만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승상 앞에서 먼저 죄를 청하고자 합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도척이나 하해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그 실례를 직접 보는구려."

그러고는 맹절에게 제안했다.

"제가 천자께 상소를 올려 어르신을 왕으로 세워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맹절이 대답했다.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여 이곳으로 도망쳐 온 사람인데, 어찌 다시 부귀를 탐하겠습니까!"

제갈량이 금과 비단을 준비해 선물하려 했으나, 맹절은 완강히 거절했다. 제갈량은 탄식을 금치 못하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훗날 어떤 이가 시를 지어 이렇게 읊었다.

"고결한 선비는 깊은 산속에 홀로 문을 닫고 사는데, 무후가 일찍이 이곳에서 만인을 굴복시켰네. 지금도 고목이 우거진 인적 없는 땅에, 차가운 안개만이 옛 산을 감싸고 있구나."

제갈량이 대체로 돌아와 군사들에게 땅을 파서 물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스무 길 넘게 땅을 파 내려갔으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열

곳 넘게 파 보아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군사들의 마음은 공포로 술렁였다. 제갈량은 한밤중에 향을 피워 하늘에 고하며 말했다.

"부족한 신 제갈량은 한나라의 복을 입어 남만 정벌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물이 부족하여 군사와 말들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께서 한나라의 운명을 끊지 않으신다면 감미로운 샘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약 나라의 운이 다했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밤에 기도를 마친 뒤 다음 날 아침에 살펴보니, 파놓은 모든 우물에서 달콤한 샘물이 가득 솟아오르고 있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나라를 위해 남만을 평정코자 대군을 거느리니, 그 마음 바른 도를 지녀 신명과 부합하였도다. 경공이 우물에 절하니 단 샘물이 솟아났고, 제갈량의 지극한 정성에 물이 밤사이 솟아났네."

제갈량의 군사들이 감천을 얻어 갈증을 해소하자, 곧바로 작은 길을 따라 돌룡동 앞으로 진격하여 평온하게 진을 쳤다. 남만 병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맹획에게 보고했다. "촉나라 군사들은 독한 기운에 중독되지도 않았고, 갈증으로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샘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사 대왕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맹획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촉나라 군사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커다란 통과 작은 지계를 이용해 물을 나르고, 물을 마시며 밥을 짓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을 본 도사는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맹획을 돌아 보고 말했다. "저들은 신령스러운 군대입니다!"

맹획이 말했다. "나와 내 동생이 촉나라 군사와 생사를 걸고 싸우다 군대 앞에서 죽을지언정, 어찌 순순히 사로잡히겠느냐!"

도사가 말했다. "만약 대왕께서 패하신다면 저와 제 처자식도 끝장입니다. 마땅히 소와 말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동굴의 병사들에게 크게 상을 내리며,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촉나라 진영으로 돌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만만 병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막 길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은야동의 스물한 개 동굴을 다스리는 동주 양봉이 삼만 병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웃 동네 병사들이 나를 돕는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고는 즉시 도사 대왕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양봉이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며 말했다. "내게는 철갑을 두르고 산과 고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정예병 삼만이 있으니, 촉나라 군사 백만 명과 맞서 싸워도 충분합니다. 또한 무예가 뛰어난 다섯 아들이 있으니, 대왕을 돕고자 합니다." 양봉이 다섯 아들을 불러 절하게 하니, 모두 건장한 체격에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맹획은 매우 기뻐하며 양봉 부제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양봉이 말했다. "군중에 즐길 거리가 부족하군요. 제 부하 중에 칼과 방패를 들고 춤을 잘 추는 만고(남만 여인)들이 있으니, 이들을 불러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맹획이 흔쾌히 응

했다. 잠시 후,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춤을 추는 수십 명의 만고들이 막사 밖에서 춤을 추며 들어오자, 남만 병사들도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양봉이 두 아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두 아들이 잔을 들어 맹획과 맹우 앞에 다가갔다. 두 사람이 잔을 받아 마시려 하자, 양봉이 크게 호통을 쳤다. 그러자 두 아들은 재빨리 맹획과 맹우를 붙잡아 아래쪽 자리로 끌어내렸다. 도사 대왕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양봉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만고들이 막사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으니 감히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맹획이 말했다.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더니,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나나 너나 각 동굴의 주인으로서 예전에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 하는가?" 양봉이 말했다. "내 형제와 조카들이 모두 제갈 승상의 은덕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반역을 꾀하니, 어찌하여 잡아서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각 동굴의 남만 병사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도망쳤다. 양봉은 맹획과 맹우, 타사를 사로잡아 제갈량의 진영으로 압송해 왔다. 제갈량이 안으로 들여보내라 명하자, 양봉 일행은 막사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희 조카와 자식들이 모두 승상의 은덕에 감복하였기에, 맹획과 맹우 등을 사로잡아 바치나이다."

제갈량은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맹획을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승복하였느냐?"

맹획이 대답했다.

"그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 이렇게 된 것뿐이다. 죽이려거든 그냥 죽여라. 다만 승복할 수 없
을 뿐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가 나를 물이 없는 험한 곳으로 유인하고, 아천, 멸천, 흑천, 유
천 같은 독샘까지 이용했음에도 우리 군사가 아무 탈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어찌 그리 미련하게 구는가?"

맹획이 다시 말했다.

"우리 조상은 은강산 속에 살았는데, 그곳은 세 갈래 강이 흐르는 험
한 지형에 관문까지 견고하다. 만약 그대가 그곳까지 와서 나를 잡는다
면, 내 자손 대대로 마음을 다해 승복하겠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를 다시 놓아줄 테니, 가서 병마를 다시 정비하여 나와 마지막
결판을 내자. 그때도 만약 잡혔을 때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구족
을 멸할 것이다."

제갈량이 좌우에 명령하여 맹획의 포박을 풀게 하고 놓아주었다. 맹획은 다시 절을 하고 떠났다. 제갈량은 맹우와 타사 대왕의 포박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제갈량은 말과 안장을 준비시켜 그들을 돌려보냈다.

험한 땅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기묘한 계책을 펼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과연 맹획이 군사를 정비하여 다시 올 때, 승패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0회 — 거대한 짐승을 몰아 만병을 여섯 번 물리치고, 등갑을 태워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다

驅巨獸六破蠻兵 燒藤甲七擒孟獲

한편, 제갈량이 맹획 일행을 모두 풀어주고 양봉 부자에게는 관직을 내려 상을 듬뿍 내리자, 양봉 일행은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물러갔다. 맹획 일행은 그날 밤 곧장 은궐동으로 돌아갔다. 그 동굴 밖에는 노수, 감남수, 서성수라는 세 갈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삼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굴 북쪽으로는 300여 리에 걸쳐 평탄한 땅이 펼쳐져 있어 만물이 풍성하게 자랐다. 동굴 서쪽으로 200리 가면 소금 우물이 있었고, 남서쪽으로 200리 가면 노수와 감남수에 닿았다. 남쪽으로 300리 떨어진 곳에는 양도동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이 동굴을 감싸듯 둘러싸고 있었다. 그 산에서 은광이 나서 은궐산이라 불렸다. 산 중턱에는 궁전과 누각을 지어 남만왕의 거처로 삼았는데, 그 안에는 '가귀'라 불리는 조상 사당이 있었다. 사계절마다 소와 말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복귀'라 했으며, 매년 축나라 사람이나 타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약을 먹으려 하지 않으면 무당에게 기도하며 '약귀'라 불렀다. 이곳에는 별도의 형법이 없으나 죄를 지으면 즉시 목을 베었다. 딸이 성장하면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게 하는데,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각자 원하는 대로 짝을 맺어도 부모가 금하지 않으니 이를 '학예'라 했다. 매년 비가 적절히 내리면 벼를 심었고, 만약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뱀을 잡아 국을 끓이고 꼬끼리를 삶아 밥을 해 먹었다. 마을마다 가장 높은 집안은 '동주', 그다음은 '추장'이라 불렀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모두 삼강성으로 모여 물건을 사고팔며 교역했는데, 그 풍습이 이러하였다.

한편, 맹획은 동굴 안에서 종족 사람 천여 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촉나라 군사들에게 여러 번 수치를 당했으니,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대들은 어떤 좋은 생각이 있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다. "제가 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갈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맹획의 처남이자 현재 여덟 부족(팔번)의 부장인 도래동주였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누구인지 급히 물었다. 도래동주가 말했다. "서남쪽 팔남동으로 가면 그곳의 주인인 목록대왕이 계시는데, 법술에 매우 능하십니다. 그분은 꼬끼리를 타고 다니며 바람과 비를 부를 수 있고, 항상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늑대, 독사, 전갈 같은 맹수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또한 수하에 삼만 명의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서신과 예물을 보내 도움을 청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서 청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승낙만 하신다면 촉나라 군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맹획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처남에게 서신을 쓰게

했다. 그러고는 도사대왕에게 삼강성을 지키게 하여 앞길의 방패로 삼았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삼강성까지 이르렀다. 멀리서 보니 이 성은 세 면이 강에 접해 있고, 한 면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제갈량은 즉시 위연과 조운에게 군대를 맡겨 육로를 통해 성을 공격하게 했다.

군대가 성 아래에 도착하자 성 위에서 활과 노가 일제히 쏟아졌다. 알고 보니 동굴에 사는 남만 사람들은 활쏘기에 매우 능했는데, 노 한번에 화살 열 발이 동시에 날아갔으며 화살촉에는 모두 독이 발려 있었다. 화살에 맞기라도 하면 살점이 다 썩어 들어가 장기가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조운과 위연은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자 제갈량에게 돌아가 독화살에 관한 일을 보고했다. 제갈량은 직접 작은 수레를 타고 군대 앞으로 나가 적의 형세를 살핀 뒤, 진영으로 돌아와 군대를 몇 리 뒤로 물려 진을 치게 했다.

남만 병사들은 촉나라 군대가 겁을 먹고 멀리 물러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웃으며 축하했다. 그들은 그저 촉군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이라 여겨, 밤새 경계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편, 제갈량은 군대를 물려 돌아온 뒤 곧바로 진영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닷새 동안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는데, 어느 날 황혼 무렵 왼쪽에서 갑자기 미풍이 불어왔다. 제갈량이 명령을 내렸다. "각군은 옷자락 한 폭씩을 준비하라. 초경(初更) 무렵이 되면 점검할 것이

니, 준비하지 않은 자는 즉시 처단하겠다." 장수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으나 군사들은 명령에 따라 준비를 마쳤다.

초경이 되자 다시 명령이 내려졌다. "각 군은 옷자락 한 폭에 흙 한 주머니씩을 싸라. 준비하지 않은 자는 즉시 처단하겠다." 군사들은 여전히 영문을 몰랐으나 그저 명령대로 흙을 싸서 준비했다. 제갈량이 다시 명령했다. "모든 군은 흙을 싼 것을 가지고 삼강성 아래로 모여라. 먼저 도착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명령을 들은 군사들은 깨끗한 흙을 가득 싸서 성 아래로 달려갔다. 제갈량은 쌓은 흙을 길처럼 만들어 성을 먼저 오르는 자를 일등 공신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자 촉나라 군사 10여 만 명과 항복했던 남만군 1만여 명이 싸 온 흙을 일제히 성 아래에 쏟아부었다. 순식간에 흙이 산처럼 쌓이더니 성벽까지 이어졌다. 제갈량이 암호 신호를 보내자 촉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성 위로 올라갔다. 남만군이 급히 노를 쏘려 했으나 이미 태반이 사로잡혔고, 남은 자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도사대왕은 혼란스러운 싸움 중에 전사했다. 촉나라 장수들은 군대를 나누어 적을 소탕했다. 제갈량은 삼강성을 함락시킨 뒤 얻은 보물들을 삼군 장병들에게 모두 상으로 내렸다. 패배하여 흩어진 남만군이 맹획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도사대왕께서 전사하셨고, 삼강성도 빼앗겼습니다." 맹획은 크게 놀랐다.

한참 고민하던 찰나, 촉나라 군대가 이미 강을 건너 지금 우리 동굴 앞에 진을 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맹획은 몹시 당황했다. 그때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크게 웃으며 나오며 말했다.

"사내자식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리 지혜롭지 못합니까? 비록 나는 여인이지만,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겠습니다."

맹획이 보니 바로 아내인 축융부인이었다. 부인은 남만에서 대대로 살아온 축융씨의 후손으로, 날아다니는 칼을 쓰는 솜씨가 백발백중이었다. 맹획이 일어나 고마움을 표하자, 부인은 흔쾌히 말에 올라타 종족의 용맹한 장수 수백 명과 생력동의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은궤동을 나서 촉군에 맞서러 나갔다.

이제 막 동굴 입구를 빠져나오는데,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촉나라 장수는 바로 장억이었다. 남만 병사들이 그를 보자마자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다. 축융부인은 등에 다섯 자루의 비도를 꽂고 손에는 길쭉한 창을 든 채, 붉은 털이 난 적토마를 타고 있었다. 장억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두 사람이 말을 몰아 격돌했다. 하지만 몇 합 싸우지 못해 부인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억이 뒤쫓아 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비도가 날아들었다. 장억이 급히 손으로 막으려 했으나 비도는 정확히 그의 왼쪽 팔을 맞췄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남만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장억을 사로잡았다.

마충이 장억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하러 나갔으나, 이미 남만 병사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마충이 축융부인이 창을 들고 말 위에서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달려들었지만, 말의 발이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역시 사로잡히고 말았다.

두 장수는 모두 동굴로 끌려가 맹획 앞에 놓였다. 맹획은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부인은 칼을 든 병사들에게 장억과 마총을 내쫓아 처형 하라며 호통을 쳤다. 그러자 맹획이 만류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나를 다섯 번이나 풀어주었는데, 이번에 저 장수들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이다. 일단 동굴에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제갈량을 사로잡으면 그때 죽여도 늦지 않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따르며 웃으며 술을 마시고 즐겼다.

한편, 패잔병들이 제갈량을 찾아와 상황을 보고했다. 제갈량은 즉시 마대, 조운, 위연 세 사람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고, 각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했다.

다음 날, 남만군이 동굴 안으로 전령을 보내 조운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알렸다. 축융부인은 즉시 말을 타고 나가 맞이했다. 두 사람이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조운이 말을 돌려 달아났다. 축융부인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이어 위연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오자, 축융부인은 말을 달려 맞서 나갔다. 한창 격렬하게 칼을 맞대던 중, 위연이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도망치자 축융부인은 굳이 뒤쫓지 않았다.

다음 날, 조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오자 축융부인은 동굴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나가 맞이했다. 두 사람이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조운이 다시 패하는 척하며 달아나자, 축융부인은 깃발을 잡고 그대로 쫓지 않았다.

축융부인이 군사를 거두어 동굴로 돌아가려 할 때, 위연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 일제히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축융부인은 화가 나 창을 앞세워 위연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위연은 말을 돌려 달아났고, 축융부인은 분노하며 뒤쫓다가 위연이 산속의 좁은 길로 급히 말을 몰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위연이 뒤를 돌아보니 축융부인이 안장째 말에서 떨어져 있었다. 알고 보니 마대가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말 발목을 묶는 밧줄로 축융부인의 말을 넘어뜨린 것이었다. 마대는 즉시 축융부인을 사로잡아 대장막으로 끌고 왔다. 남만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구하러 달려왔으나, 조운이 한바탕 몰아치며 그들을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다.

제갈량이 막사 안에 단정히 앉아 있을 때, 마대가 축융부인을 끌고 왔다. 제갈량은 급히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녀의 결박을 풀게 하고, 옆 막사에서 술을 대접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이어 사자를 보내 맹획에게 축융부인을 돌려보낼 테니 장억과 마충 두 장수를 바꿔 달라고 전했다. 맹획이 이를 승낙하자, 곧장 장억과 마충을 풀어 제갈량에게 돌려보냈다. 제갈량은 축융부인을 은궁동으로 돌려보냈다. 맹획은 아내를 맞이하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그때 갑자기 팔납동의 주인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맹획이 동굴 밖으로 나가 마중하니, 목록대왕이 흰 코끼리를 타고 금과 구슬로 장식한 갓끈을 늘어뜨린 채 허리에는 커다란 칼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늑대를 기르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들어왔다. 맹획은 그에게 절을 올리며 그간의 일을 슬프게 호

소했다. 목록대왕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다음 날, 목록대왕이 자기 부하들과 맹수들을 이끌고 나왔다. 조운과 위연은 남만군이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와 말을 배치하여 진을 쳤다. 두 장수가 진영 앞에 서서 살펴보니, 남만군의 깃발과 무기가 여느 군대와는 사뭇 달랐다. 병사들은 대부분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맨몸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얼굴은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몸에 네 자루의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었고, 군대에서는 북이나 나팔 소리 대신 금을 흔드는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목록대왕은 허리에 보검 두 자루를 차고 손에는 종을 든 채 흰 코끼리를 타고 커다란 깃발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조운이 위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이토록 기이한 자는 처음 보는구려." 두 사람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목록대왕이 입으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손에 든 종을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고 모래와 돌이 소나기처럼 들이닥쳤다. 이어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리자,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늑대, 독사 같은 맹수들이 바람을 타고 튀어나와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촉나라 병사들이 이를 어찌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기 바빴고, 남만군은 그 뒤를 쫓아 삼강 경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격을 멈추었다.

조운과 위연이 패잔병을 모아 제갈량의 막사로 찾아와 죄를 청하며 그간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초가집을 나서기 전부터 남만에는 호랑이나 표범을 부리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축나라에서 이 진법을 깨뜨릴 물건들을 준비해 두었느니라. 군대를 따라온 스무 대의 수레가 모두 그것들이다. 오늘은 그중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쓸 곳이 있다."

제갈량이 즉시 좌우에 명령하여 붉은 기름을 칠한 수레 열 대를 막사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검은 기름을 칠한 수레 열 대는 뒤에 남겨두었다. 장수들은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제갈량이 수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나무로 깎아 채색한 거대한 짐승들이 들어 있었다. 짐승들은 오색 비단실로 털을 만들고 강철로 이빨과 발톱을 만들었는데, 수레 하나에 열 명까지 올라탈 수 있었다. 제갈량은 정예병 천여 명을 선발하고, 거대 짐승 백 마리를 끌어내어 그 입안에 화약을 채워 넣은 뒤 군중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 제갈량이 군사를 몰아 진격하여 동굴 입구에 진을 쳤다. 남만 병사들이 이를 알아채고 동굴로 들어가 맹획에게 보고했다. 목록대왕은 스스로 무적이라 자부하며 맹획과 함께 동굴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다. 제갈량은 부드러운 관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맹획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수레 위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제갈량이다! 저 자를 잡기만 하면 대업을 이룰 수 있다!"

목록대왕이 주문을 외우며 손에 든 종을 흔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광풍이 몰아치며 남만의 진짜 맹수들이 튀어나왔다. 그때 제갈량이 깃

털 부채를 한 번 휘두르자, 그 바람이 역으로 남만 진영을 향해 불어갔다. 동시에 축나라 진영에서 가짜 짐승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만 동굴의 진짜 짐승들은 축나라의 거대 짐승들이 입에서 불을 뿜고 코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몸에는 방울을 달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짐승들은 모두 남만 동굴로 도망치며 오히려 남만 병사들을 들이받아 수없이 쓰러뜨렸다. 제갈량이 군사를 몰아 진격하며 북과 나팔을 울리자, 축군은 앞을 향해 추격하며 적을 소탕했다. 목록대왕은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에서 전사했다. 동굴 안에 있던 맹획의 무리는 궁궐을 버리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으며 도망쳤다. 제갈량의 대군은 은궐동을 점령했다.

다음 날, 제갈량이 병력을 나누어 맹획을 추격하려 할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맹획의 처남인 도래동주가 맹획에게 항복을 권유했으나 맹획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래동주가 맹획과 축융부인, 그리고 그 일족 수백 명을 모두 사로잡아 승상께 바치러 왔습니다."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장억과 마충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두 장수는 계책을 전해 듣고 정예병 이천 명을 이끌고 양옆의 복도에 매복했다. 제갈량은 문을 지키는 장수에게 모두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도래동주가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맹획 일행 수백 명을 이끌고 들어와 전각 아래에서 절을 올렸다. 제갈량이 크게 호통을 쳤다. "모두 잡아라!" 복도에 매복해 있던 용맹한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한 명당 두 명씩 붙잡으니, 맹획 일행은 모두 결박당했다.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네놈들의 얄팍한 계책이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지난 두 번이나 이 동네 사람이 너희를 잡아 항복시키러 온

것을 보고도 내가 해치지 않으니, 나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동굴 안에서 나를 죽이려 한 것이로구나!" 제갈량이 무사들에게 그들의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모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다. 제갈량이 맹획에게 물었다. "전에는 네 집에서 너를 잡아야 진심으로 복종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어떠냐?" 맹획이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죽으러 온 것이지, 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복종하지 않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너를 여섯 번이나 사로잡았는데도 여전히 복종하지 않으니, 대체 언제까지 이럴 셈이냐?" 맹획이 말했다. "일곱 번째로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복종하고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근거지가 파괴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걱정하겠느냐!" 제갈량은 무사들에게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고는 꾸짖었다. "이번에 잡아주었으니, 다시 한번 탄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겠다!" 맹획 일행은 머리를 조아린 채 황급히 도망치듯 물러갔다.

한편, 패배하여 흩어진 남만 군사 천여 명 중 대부분은 부상을 입은 채 도망치다가 남만왕 맹획과 마주쳤다. 맹획은 패잔병들을 거두어들이며 내심 안도했으나, 곧 도래동주와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우리 거처가 촉나라 군대에게 점령당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 하겠는가?"

도래동주가 대답했다.

"촉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 곳뿐입니다."

맹획이 기뻐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면 되겠는가?"

"여기서 동남쪽으로 700리 정도 가면 우고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의 국주인 우골골은 키가 12척이나 되고, 곡기를 먹지 않는 대신 살아있는 뱀이나 흉악한 짐승을 먹고 삽니다.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이 덮여 있어 칼이나 화살도 뚫지 못합니다. 그 수하 군사들도 모두 등갑을 입고 있는데, 그 등나무는 산골짜기 바위벽에 엉켜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채취해 기름에 담가 두었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꺼내어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열 번 넘게 거쳐야 비로소 갑옷이 완성되는데, 이 갑옷을 입으면 강을 건너도 가라앉지 않고 물에 젖지도 않으며 칼과 화살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등갑군이라 부릅니다. 대왕께서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신다면, 제갈량을 사로잡는 일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우고국으로 가서 우골골을 만났다. 그곳은 집이 따로 없고 모두 흙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맹획은 굴 안으로 들어가 우골골에게 지난 일을 간곡히 하소연했다. 그러자 우골골이 말했다.

"내가 내 부하들을 일으켜 그대와 함께 원수를 갚아주겠소."

맹획은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다. 곧 우골골은 부장인 토안과 해니를 불러 3만 명의 군사를 일으키게 했다. 군사들은 모두 등갑을 입은 채 우고국에서 북동쪽을 향해 진격했다. 한강에 이르니 그곳은 도화수라

는 강이었는데, 강 양옆에 복숭아나무가 있어 해마다 떨어진 낙엽이 물 속에 가득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물을 마시면 모두 죽지만, 우고국 사람들은 오히려 마실수록 기운이 솟구쳤다. 우골골의 군대는 도화수 나루터에 진을 치고 축나라 군대를 기다렸다.

한편, 제갈량은 남만 사람들에게 맹획의 소식을 정탐하게 했다. 잠시 후 보고가 올라왔다.

"맹획이 우고국 국주에게 도움을 청하여, 3만 명의 등갑군을 이끌고 현재 도화수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족의 남만 병사들을 불러 모아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여 도화수 나루터에 이르렀다.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남만 병사들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고 매우 흉측했다. 제갈량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마침 오늘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고 있어 강물을 마실 수 없다고 했다. 제갈량은 5리쯤 뒤로 물러나 진을 치게 하고, 위연을 남겨 진영을 지키게 했다.

다음 날, 우고국의 국주가 등갑을 입은 군사 한 무리를 이끌고 강을 건너오니 북소리와 징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갔으나, 남만군은 땅을 휩쓸 듯 무서운 기세로 몰려왔다. 축나라 군사들이 노를 쏘아 등갑을 맞추었으나 화살이 뚫지 못하고 모두 땅으로 떨어졌으며, 칼로 베고 창으로 찔러도 갑옷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 남만군이 날카로운 칼과 강철 삼지창을 휘두르며 몰아붙이자, 축나라 군사들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어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남만군은 굳이 쫓아가지 않고 그대로 물러났다.

위연이 다시 돌아가 보니 도화수 나루터에 남만군이 갑옷을 입은 채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중 기운이 빠져 힘겨워하는 자들은 갑옷을 벗어 물 위에 띄워 놓고, 그 위에 앉아서 강을 건너기도 했다. 위연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이 여개와 현지인들을 불러 상황을 물었다.

여개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 남만에는 우고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을 보호하는 등갑까지 갖추고 있어 상처를 입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곳 도화수에는 독한 물이 흐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셔도 오히려 기운이 솟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마시면 즉사하고 맙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남만 땅을 상대로 설령 대승을 거둔들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군대를 돌려 조속히 돌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 그리 쉽게 돌아가겠소? 내일이면 나에게 남만을 평정할 계책이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러고는 조운에게 명하여 위연을 도와 진영을 지키게 하고,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다음 날, 제갈량은 현지인을 길잡이로 삼아 작은 수레를 타고 도화수 나루 북쪽 기슭의 외진 곳까지 가서 지형을 살폈다. 산세가 험하고 고개가 가파른 곳은 수레가 다닐 수 없어 제갈량은 수레를 버려두고 직접 걸어갔다. 그러다 어느 산에 이르렀는데, 긴 뱀처럼 생긴 골짜기가 눈에 들어왔다. 골짜기는 온통 매끄럽고 가파른 바위벽으로 이루어져

나무 한 그루 없었으며, 그 가운데로 커다란 길이 나 있었다. 제갈량이 현지인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현지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반사곡이라 합니다. 골짜기를 나가면 바로 삼강성으로 통하는 큰길이 나오고, 골짜기 앞은 타랑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이곳에서 공을 세우라고 주신 기회로구나!"

제갈량은 곧장 돌아가 수레를 타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대를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너에게 검은 기름을 칠한 수레 열 대와 대나무 장대 천 개를 주겠다. 수레 안에는 이런저런 물건들을 실어 두었으니, 너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반사곡 양쪽 끝을 지켜라. 명령대로 실행하되, 보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준비해 두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마대는 계책을 받들어 물러갔다. 이어 제갈량은 조운을 불러 지시했다.

"너는 반사곡 뒤편으로 가서 삼강성으로 통하는 큰길 입구를 지켜라. 필요한 물건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모두 준비해 두도록 하겠다."

조운 역시 명령을 받고 떠났다. 다음으로 제갈량은 위연을 불러 말했다.

"너는 부하들을 이끌고 도화수 나루 아래에 진을 쳐라. 만약 남만군이 물을 건너와 공격해 오면, 즉시 진영을 버리고 내 백기가 보이는 곳을 향해 도망쳐라. 보름 안에 반드시 열다섯 번의 전투에서 패해주는 척하며 일곱 개의 진영을 버려야 한다. 만약 열네 번만 패하고 열다섯 번을 채우지 못한다면, 내게 얼굴을 들고 오지 마라."

위연은 명령을 받았으나 마음속으로 불쾌해하며 마지못해 물러갔다. 제갈량은 이어 장익을 불러 다른 군대를 이끌고 지시한 곳에 진영을 구축하게 했으며, 장익과 마충에게는 항복한 현지인 천 명을 데리고 똑같이 행동하라고 일렀다. 모든 장수와 병사들이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맹획은 우고국의 국주 우골골에게 말했다. "제갈량이 기묘한 계책을 많이 써서 곳곳에 매복을 해두었소. 앞으로 싸울 때는 삼군에게 명하여, 산골짜기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오."

그러자 우골골이 대답했다. "대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원 사람들이 잔피를 많이 부린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대왕께서는 뒤에서 지휘를 맡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상의를 마치고마자, 촉군이 도화수 나루 북쪽 기슭에 진을 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우골골은 즉시 두 명의 부장을 보내 등갑

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축군과 맞붙게 했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연이 패하며 도망쳤다. 남만군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쫓아가지 않고 곧장 돌아갔다.

다음 날, 위연이 다시 진을 치자 남만군 정찰병들이 이를 발견하고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와 공격했다. 위연이 맞서 싸웠으나 얼마 못가 다시 패하며 도망쳤다. 남만군은 십여 리를 추격하다가 주변에 아무런 기척이 없자 축군의 진영에 머물렀다.

다음 날, 두 부장이 우골골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우골골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여 위연을 한바탕 몰아붙였다. 축군 병사들은 갑옷과 무기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저 멀리 흰 깃발이 보였다. 위연은 패퇴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급히 흰 깃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진영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 위연은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우골골이 군사를 몰아 쫓아오자, 위연은 다시 병사들을 이끌고 진영을 버린 채 도망쳤다. 결국 남만군이 축군의 진영을 차지했다.

다음 날, 남만군은 다시 앞을 향해 추격했다. 위연이 군사를 돌려 맞서 싸웠으나 세 합을 채 못가 다시 패했고, 또다시 흰 깃발이 보이는 쪽을 향해 도망쳤다. 그곳에 또 다른 진영이 나타나자 위연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다음 날 남만군이 다시 들이닥치자, 위연은 짧게 교전한 뒤 또 도망쳤고, 남만군은 다시 축군의 진영을 점령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위연은 싸우는 척하며 계속 도망쳤는데, 벌써 열다섯 번의 전투에서 패하고 일곱 개의 진영을 내주었다. 남만군은 기

세를 몰아 무섭게 추격해 왔다. 우골골은 군대 앞에서 적을 격파하며 나아갔으나, 숲이 무성한 곳만 나타나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 살펴보니 과연 나무 그늘 사이로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우골골이 맹획에게 말했다. "과연 대왕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군요." 맹획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제갈량이 이번에는 내 수를 읽지 못했구나! 대왕께서 연달아 열다섯 번의 전투에서 이기고 일곱 개의 진영을 빼앗았으니, 촉나라 병사들은 우리 기세만 봐도 도망칠 것이다. 제갈량은 이제 계책이 다했으니, 이번 한 번만 더 몰아붙이면 대사를 이룰 수 있다!" 우골골은 크게 기뻐하며 더 이상 촉나라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제16일이 되자, 위연은 패잔병을 이끌고 나타나 등갑군과 맞섰다. 우골골은 코끼리를 타고 앞장섰는데, 머리에는 해와 달이 그려진 늑대 털 모자를 쓰고 몸에는 금구슬이 달린 장식을 둘렀으며, 옆구리 아래로는 비늘 모양의 갑옷이 드러나 있었다.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손가락으로 위연을 가리키며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위연은 즉시 말을 돌려 달아났고, 그 뒤를 남만 병사들이 거세게 몰아붙였다.

위연은 병사들을 이끌고 반사곡을 돌아 흰 깃발이 보이는 곳을 향해 도망쳤다. 우골골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우골골은 산 위에 풀이나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매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마음 놓고 추격했다. 골짜기에 다다르자 길목에 검은 기름을 칠한 궤짝 수레 수십 대가 놓여 있었다. 남만 병사가 보고했다. "이것은 촉나라 군사가 식량을 운반하던 길인데, 대왕의 군대가 들이닥치자 식량 수레

를 버려두고 달아난 것입니다." 우골골은 크게 기뻐하며 병사들에게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골짜기 입구를 벗어나려 할 때, 축나라 군사는 보이지 않고 갑자기 통나무와 커다란 바위들이 굴러 내려와 골짜기 입구를 꽉 막아 버렸다. 우골골이 병사들에게 길을 내어 전진하라고 명령하자, 앞쪽에 놓인 크고 작은 수레들에 실린 마른 장작들이 일제히 불길에 휩싸였다. 우골골이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으나, 뒤쪽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보고하기를, 골짜기 입구가 이미 장작더미로 막혔고 수레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모두 화약이라 한꺼번에 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우골골은 산에 풀이나 나무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길을 찾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산 양옆에서 햇불이 마구 던져지더니, 햇불이 닿는 곳마다 땅에 깔린 화약선에 불이 붙으며 곳곳에서 대포가 터져 나왔다. 골짜기 전체가 불꽃으로 어지럽게 춤을 추었고, 등갑을 입은 병사들은 불길이 닿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타올랐다. 결국 우골골과 삼만 명의 등갑군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불길에 휩싸여 반사곡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

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갈량이 보니, 남만 병사들은 불길에 타 죽거나 대포에 맞아 머리가 산산조각이 난 채 골짜기 안에 가득 했다. 그 시신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내가 비록 나라에 공을 세웠으나, 반드시 수명이 줄어들겠구나!" 곁에 있던 장수와 병사들도 모두 함께 탄식했다.

한편, 맹획은 진영에서 남만 병사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여 명의 병사가 진영 앞에 나타나 웃으며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고국의 군대가 촉나라 군대와 크게 싸우는 와중에 제갈량을 반사곡에 가두었습니다. 대왕께서 어서 가셔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두 이 근처 동굴 출신이라 어쩔 수 없이 촉나라에 항복했으나, 대왕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러 왔습니다."

맹획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자기 일족과 모여 있던 남만인들을 이끌고 밤을 도와 말을 타고 출발했다. 그리고 남만 병사들에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게 했다. 막 반사곡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는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맹획이 계책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물려 퇴각하려 하자, 왼쪽에서는 장억이, 오른쪽에서는 마충이 양쪽에서 들이닥쳤다. 맹획이 막 적을 맞서 싸우려는데 갑자기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알고 보니 남만군이라던 병사들 중 절반 이상이 촉나라 군사였고, 맹획의 일족과 모여 있던 남만인들은 모두 사로잡히고 말았다.

맹획은 말을 몰아 포위망을 뚫고 산길을 따라 도망쳤다. 한참을 달리던 중, 산골짜기 발 근처에 인마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소형 수레 한 대가 밀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수레 안에는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쓴 채, 부채를 들고 단정히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갈량이었다. 제갈량이 크게 호통을 쳤다.

"반역자 맹획아! 이번에는 어떠냐?"

맹획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하자, 옆에서 장수 한 명이 번개같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으니 바로 마대였다. 맹획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마대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이때 왕평과 장익이 이미 군사를 이끌고 남만 진영에 도착하여, 축융부인과 그 가족들을 모두 생포해 왔다.

제갈량이 진영으로 돌아와 막사 안으로 들어가 앉으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번에 쓴 계책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 나의 음덕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적들은 분명 내가 숲 곳곳에 매복을 해두었을 것이라 생각할 터인데, 나는 깃발만 세워두고 실제 병마는 두지 않아 적의 의심을 사게 하려 했다. 또한 위연이 열다섯 번의 전투에서 연달아 패하게 한 것도 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내가 보니 반사곡은 길이 하나뿐이고 양쪽 벽은 모두 매끄러운 돌로 되어 있어 나무가 전혀 없으며 바닥은 모래땅이다. 그래서 마대에게 검은 기름 껌짝을 골짜기에 배치하게 했는데, 그 껌짝 안에는 미리 만들어 둔 화포인 '지뢰'를 넣어두었다. 지뢰 하나에 아홉 개의 작은 화포가 들어 있는데, 이를 서른 걸음 간격으로 묻고 대나무 막대를 연결해 도화선으로 삼게 했다. 일단 터지면 산이 무너지고 돌이 쪼개질 것이다.

또한 조운에게는 풀로 만든 수레를 준비시켜 골짜기에 배치하게 했고, 산 위에는 큰 나무와 돌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위연을 시켜 우골 골과 등갑군을 골짜기로 유인하게 한 뒤, 위연을 풀어준 직후 그들의 길을 끊고 곧바로 불을 지르게 할 것이다. 내가 듣기로 '물에 유리한 것

은 반드시 불에 불리하다'고 했다. 등갑이 비록 칼과 화살을 막아낼 수는 있으나 기름에 절인 물건이니 불을 만나면 반드시 타오를 것이다. 남만 병사들이 이토록 완고하니, 화공을 쓰지 않고서야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고국 사람들을 씨도 없이 전멸시키는 것은 나의 큰 죄가 될 것이다!"

장수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의 계책은 하늘의 기밀과 같아 귀신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압송해 오라고 명하자, 맹획이 막사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제갈량은 맹획의 포박을 풀게 하고, 우선 별도의 막사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이어 제갈량이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리를 불러 침상 앞으로 오게 한 뒤, 이러저러한 지시를 내리고 돌려보냈다.

한편, 맹획은 축융부인, 맹우, 도래동주를 비롯한 일족과 함께 별도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맹획의 막사로 들어와 말했다.

"승상께서 부끄러움을 느끼셔서 차마 공을 직접 뵙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저를 보내 공을 풀어주며, 다시 군사를 모아 결판을 내자고 전하셨습니다. 공께서는 이제 어서 돌아가십시오."

맹획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일곱 번이나 잡았다가 일곱 번이나 풀어주다니, 예부터 이런 일은 없었소. 내가 비록 문명 세계 밖의 사람이긴 하나 예의는 좀 아는데, 어찌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신단 말이오?"

그러고는 형제와 처자식, 일족들을 모두 데리고 막사 아래에 엎드려 가슴을 드러낸 채 죄를 빌며 외쳤다.

"승상의 위엄이 하늘과 같으니, 남만 사람들은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물었다.

"공께서는 이제 진심으로 복종하십니까?"

맹획이 울면서 답했다.

"저와 제 자손 대대로 승상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으니,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맹획을 막사 안으로 모셔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주고, 그에게 영원히 동주의 자리를 지키게 했다. 또한 빼앗았던 땅도 모두 돌려주었다. 맹획의 일족과 남만 군사들은 모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다. 훗날 사람들이 제갈량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이러하다.

"깃털 부채와 비단 두건 쓰고 푸른 깃발 휘날리니, 일곱 번 잡고 놓는 묘책으로 만왕을 굴복시켰네. 그 위엄과 덕망은 지금까지 동굴에 전해지니, 고원 지대 사람들은 그를 위해 사당을 세우려 하네."

장사 비위가 들어와 간언했다. "지금 승상께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험한 불모지까지 깊숙이 들어가 남만 세력을 복속시키셨습니다. 이제 남만왕이 이미 항복하였으니, 어찌하여 관리를 두어 맹획과 함께 이곳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지인을 남겨두려면 군사도 함께 남겨야 하는데, 군사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으니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남만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부모와 형제를 잃은 상황에서, 외지 관리만 남겨두고 군사를 남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남만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죄를 짓고 죽임을 당했기에 이미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외지인을 남겨둔다 한들 그들이 끝내 믿어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남기지도 않고 군량을 운반하지도 않으며, 그저 그들이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도록 둘 뿐입니다."

모두가 제갈량의 말에 깊이 수긍했다. 이에 남만 사람들은 모두 제갈량의 은덕에 감동하여, 제갈량을 위해 생사(生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세우는 사당)를 세우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며 그를 '자애로운 아버지'라 불렀다. 또한 각지에서 진주와 금보화, 붉은 칠을 한 약재, 쟁기질할 소와 전쟁용 말들을 보내 군사 비용에 보태게 하니,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로써 남쪽 지방이 평정되었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며 격려하는 일을 마친 뒤, 촉군이 본국으로 회군하기 시작했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본대 병력을 이끌고 앞장서서 길을 열라고 명령했다.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노수에 막 다다랐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니 수면 위

로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모래와 돌이 사방으로 튀어 올라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위연은 군대를 물려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제갈량은 곧 맹획을 불러 이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변방의 오랑캐는 이제야 겨우 복종하려는데, 물가의 귀신 군대는 다시 날뛰는구나."

맹획이 과연 무엇이라 말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1회 — 노수를 제사 지내며 한나라 상 이 군사를 일으키고, 중원을 정벌하려 무 후가 상소를 올리다

祭瀘水漢相班師 伐中原武侯上表

한편,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자 맹획은 각 동굴의 우두머리들과 여러 부족을 거느리고 나와 정중히 배웅했다. 앞장선 부대가 노수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구월의 가을이었으나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보고를 올렸다. 제갈량이 맹획에게 이유를 묻자 맹획이 대답했다. "이 강에는 원래 창신이라는 신이 재앙을 일으키는데, 오가는 이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제갈량이 "무엇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오?"라고 묻자, 맹획이 말했다. "예전에는 이 나라에 창신이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의 머리 마흔아홉 개와 검은 소, 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잔잔해지며,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이제 일을 평정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이겠소?"라고 말한 뒤, 직접 노수 강가로 가서

살펴보았다. 과연 음산한 바람이 크게 일고 파도가 휘몰아치니, 사람과 말들이 모두 겁에 질려 떨어졌다.

제갈량은 매우 의아하게 여겨 즉시 현지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현지인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뒤로, 밤마다 물가에서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황혼 무렵부터 동이 틀 때까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독한 안개 속에는 음귀가 무수히 깔려 있으니, 이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것은 모두 나의 허물이다. 지난번 마대가 이끄는 촉나라 군사 천여 명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고, 남만 사람들을 죽여 이곳에 버려두기도 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과 원귀들의 한을 풀어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오늘 밤 내가 직접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

현지인이 말했다. "예전 방식대로 사람의 머리 마흔아홉 개를 베어 제물로 바쳐야 원귀들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사람이 죽어 원귀가 된 것인데, 어찌 또 사람을 죽여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라."

제갈량은 즉시 주방을 불러 소와 말을 잡게 했다.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사람 머리 모양을 빚은 뒤, 그 속에는 소나 양고기를 채워 넣고 이를 '만두'라 불렀다. 그날 밤 노수 강가에 향안을 차리고 제물을 올린 뒤, 등불 마흔아홉 개를 늘어놓고 깃발을 세워 혼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만두 등을 땅에 정성껏 차려 놓았다.

한밤중 삼경이 되자, 제갈량은 금관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채 직접 제사에 임하였고, 동궐에게 축문을 읽게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한나라 건흥 3년 가을 9월 1일, 무향후이자 익주목을 겸하고 있는 승상 제갈량이 정성껏 제례를 갖추어, 촉나라의 땅에서 전사한 장수들과 남만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축문을 읽었다.

"우리 한나라 황제께서는 다섯 패자의 위엄을 능가하고 삼왕의 밝은 뜻을 이어받으셨다. 근래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이 침입하여 병사를 일으켰으니, 간사한 꾀로 요망한 기운을 일으키고 늑대 같은 심보로 난을 일으켰도다. 이에 우리는 왕명을 받들어 먼 변방의 죄를 물으려 하니, 용맹한 군사를 대거 일으켜 저 미천한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 한다. 웅장한 군대가 구름처럼 모여드니 미쳐 날뛰던 도적들은 얼음 녹듯 사라지고,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로 승전보를 올리니 적들은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구주의 호걸들이요, 관리와 장수들은 모두 천하의 영웅들이다. 무예를 익히고 군에 들어와 밝은 주군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세 가지 명령을 받들어 일곱 번 사로잡는 대업을 함께 이루고자 하며,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정성과 임금께 충성하는 뜻이 모두 한결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잠시 군사의 기회를 놓치고 간사한 계책에 빠졌단 말이나. 어떤 이는 화살에 맞아 혼백이 저승으로 떠나고, 어떤 이는 칼과 창에 맞아 넋이 영원한 밤으로 돌아갔구나. 살아 있을 때는 용맹하였으나, 죽어서야 이름을 남기는구나."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려 하니, 포로를 바치는 의식도 곧 치러질 것이다. 너희의 명령이 아직 머물러 있으니, 정성을 다해 빌면 반드시 들으리라. 나의 깃발을 따르고 부하들과 함께 움직여, 다 같이 상국으로 돌아가자. 각자 고향을 찾아가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고 제사를 받도록 하겠다. 타향의 귀신이 되어 낯선 땅의 냇으로 떠돌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천자에게 아뢰어 너희의 가족들이 모두 은혜를 입게 하고, 매년 의복과 양식을 주며 매달 녹봉을 내리게 하겠다. 이로써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답하려 한다. 또한 이 땅의 토신과 남방의 망령들도 늘 제사를 받아왔으니, 머물 곳이 멀지 않을 것이다. 산자가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듯, 죽은 자 또한 왕의 교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편히 갖고 슬피 울지 말거라."

"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니, 부디 굽어살펴 주옵소서. 아아, 슬프도다! 부디 편안히 받으소서!"

축문을 다 읽은 제갈량이 목을 놓아 크게 통곡하니 그 슬픔이 지극히 간절하여, 그 감정이 삼군에까지 전달되어 모든 병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맹획을 비롯한 무리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의 구름과 원망의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수천 명의 귀신이 어렴풋이 나타나 바람을 따라 흩어지는 듯했다. 이에 제갈량은 좌우에 명하여 제사에 쓰던 제물을 모두 노수에 버리게 했다.

다음 날,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노수 남안에 이르니, 구름은 걷히고 안개는 흩어져 바람이 멎고 물결도 잔잔했다. 촉나라 군사들은 무사히 노수를 건넜으며, 과연 채찍이 등자 울리는 소리와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기세가 대단했다. 영창에 도착한 제갈량은 왕향과 여개를 남

겨 사군을 지키게 하고, 맹획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게 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농사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맹획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떠났다.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갔다. 유선은 직접 수레를 타고 성 밖 삼십 리까지 마중 나가 수레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제갈량을 맞이했다. 제갈량이 황급히 수레에서 내려 길바닥에 엎드려 말했다. "신이 남쪽을 빠르게 평정하지 못해 주상께 근심을 끼쳐 드렸으니, 이는 신의 죄입니다." 유선은 제갈량을 일으켜 세워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갔다. 그리고 태평연회를 베풀어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때부터 먼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곳이 이백여 곳에 달했다. 제갈량은 유선에게 아뢰어,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은 이들의 가족을 하나하나 살펴 정성껏 보살피게 했다. 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고, 조정과 민간이 모두 평온해졌다.

한편, 위나라 황제 조비가 재위한 지 7년째 되는 해는 축한의 건흥 4년이였다. 조비는 먼저 원소의 차남 원희의 아내였던 견씨를 후궁으로 맞이했는데, 이는 예전에 업성을 함락할 때 얻은 여인이었다. 조비는 견씨와의 사이에서 조예라는 아들을 낳았다. 조예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조비가 매우 아꼈다.

그 후 조비는 안평 광종 사람인 곽영의 딸을 귀비로 들었는데, 조비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 딸은 여인 중의 왕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딸을 자랑스러워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여왕'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비가 곽귀비를 총애하게 되자 견부인은 눈

밖에 나가게 되었다. 광귀비는 황후 자리를 노리고 총애받는 신하인 장도를 불러 모의를 꾸몄다.

당시 조비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장도는 견부인의 궁궐에서 오동 나무로 만든 인형을 파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인형에 천자가 다스리는 연월일시를 적어 넣으며, 이것이 저주를 내리기 위한 물건이라고 조비에게 보고했다. 크게 분노한 조비는 견부인에게 자결을 명하여 죽게 하고, 광귀비를 황후로 세웠다. 광귀비는 자식이 없었기에 조예를 양자로 삼아 키웠다. 조비는 조예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그를 후계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조예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 활쏘기와 말타기에 매우 능숙해졌다. 그해 봄 2월, 조비는 조예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산골짜기 사이를 지나가던 중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 한 쌍을 몰아냈는데, 조비가 화살을 쏘아 어미 사슴을 맞춰 쓰러뜨렸다. 그러자 새끼 사슴이 조예의 말 앞으로 달려왔다. 조비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내 아들이야, 어찌 저 새끼를 쏘지 않느냐?"

말 위에 있던 조예가 울먹이며 말했다. "폐하께서 이미 어미를 죽이셨는데, 어찌 차마 그 새끼까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조비는 활을 땅에 내던지며 외쳤다. "내 아들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 덕이 있는 군주가 될 재목이로다!" 이에 조비는 조예를 평원왕으로 봉하였다.

5월 여름, 조비는 추위로 인한 병이 깊어져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에 조비는 중군대장군 조진, 진군대장군 진군, 무군대장군

사마의 세 사람을 침궁으로 불러들였다. 조비는 아들 조예를 불러들인 뒤 조진 등에게 말했다.

"이제 나의 병세가 위중하여 다시 살아나기 어렵겠구나. 조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경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잘 보필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세 사람이 모두 대답했다.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폐하께서 만수무강하실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조비가 말했다.

"올해 허창의 성문이 아무 이유 없이 무너졌으니 이는 불길한 징조다. 나 또한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다."

말을 이어가던 중, 내시가 정동대장군 조휴가 문안을 드리러 왔다고 보고했다. 조비는 조휴를 불러들여 말했다.

"경들은 모두 국가의 기둥 같은 신하들이다. 만약 모두 마음을 합쳐 내 아들을 보필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말을 마친 조비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였으며, 재위 기간은 7년이었다. 이에 조진, 진군, 사마의, 조휴 등은 슬픔을 표하는 동시에 조예를 받들어 대위의 황제로 세웠다. 조비의 시호는 문황제로, 어머니 견씨의 시호는 문소황후로 정했다. 종요를 태부로 봉하고, 조진을 대장군으로, 조휴를 대사마로, 화흠을 태위로, 왕랑을 사도

로, 진군을 사공으로, 사마의를 표기대장군으로 삼았다. 그 외의 문무 관료들도 각자 품계에 따라 봉직하게 하고 천하에 대사면을 실시했다.

당시 옹주와 양주 지역은 지키는 사람이 부족했는데, 사마의가 서량 등지를 지키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조예가 이를 허락하자, 사마의는 옹주와 양주의 병마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아 명을 받들고 떠났다.

이미 첩자가 촉한으로 급히 소식을 전해왔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했으니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으나, 사마의는 모략이 깊은 자다. 지금 그가 옹주와 양주의 병마를 감독하고 있으니, 만약 군사를 잘 훈련시켜 세력을 키운다면 반드시 촉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차라리 먼저 군사를 일으켜 그를 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참모 마속이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는 남쪽을 평정하고 성도로 돌아오시는 길이라 군사들이 지치고 말들도 몹시 피로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군사를 돌보며 쉬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다시 먼 길을 떠나 원정을 가시겠습니까? 제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사마의가 조예의 손에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승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갈량이 어떤 계책인지 묻자 마속이 대답했다. "사마의가 비록 위나라의 대신이지만, 조예는 평소 그를 깊이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몰래 사람을 낙양과 업성 등에 보내 사마의가 반역을 꾀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십시오. 더불어 사마의를 처단한다는 방을 만

들어 천하 곳곳에 붙인다면, 조예가 의심을 품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입니다."

제갈량은 이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게 했다.

한편, 업성 성문 위에 어느 날 갑자기 방이 하나 붙었다. 문지기가 이를 붙인 뒤 조예에게 보고했다. 조예가 그 글을 살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표기대장군으로서 옹주와 량주 지역의 병마를 총괄하는 사마의는 삼가 믿음과 의리로 천하에 공포하노라. 옛날 태조 무황제께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실 때, 본래 진사왕 자건(조식)을 사직의 주인으로 세우려 하셨다. 그러나 불행히도 간사한 모함이 끊이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잠룡의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 황손 조예는 본래 덕행이 없으면서 제멋대로 존귀한 자리에 앉아 태조께서 남기신 뜻을 저버렸다. 이제 나는 하늘의 뜻에 따르고 백성의 뜻을 받들어, 정해진 날에 군사를 일으켜 만백성의 염원을 달래고자 한다. 이 공고가 닿는 대로 각자 마땅히 새 임금에게 복종하라. 만약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구족을 멸할 것이다! 먼저 이 사실을 알려 들으려 하니, 모두 명확히 알아두길 바란다.

조예가 다 읽고는 얼굴색이 급격히 변하며 크게 놀라 즉시 신료들에게 물었다. 태위 화흠이 아뢰기를, "사마의가 옹주와 량주를 지키겠다고 상소를 올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전에 태조 무황제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의는 매처럼 날카롭게 살피고 이리처럼 뒤를

돌아보는 상이니, 병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오래 두면 반드시 나라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반역의 기운이 이미 싹트고 있으니 속히 처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랑 또한 아뢰기를, "사마의는 지략이 깊고 병법에 밝으며 평소 큰 뜻을 품고 있었으니, 조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예가 교지를 내려 군사를 일으켜 직접 친정하려 할 때, 갑자기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 대장군 조진이 나타나 아뢰기를, "안 됩니다. 문황제께서 저희 몇 사람에게 고아를 부탁하신 것은 사마의에게만 마음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성급히 군사를 움직이면 오히려 그를 반역으로 몰아붙이는 꼴이 됩니다. 혹시 촉나라나 오나라의 간첩이 반간계를 써서 우리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빈틈을 타서 공격해 올지도 모르니, 폐하께서는 부디 살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조예가 물었다. "사마의가 정말로 모반을 꾀한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조진이 대답했다. "만약 폐하의 마음이 의심스러우시다면, 한나라 고조가 운몽에서 유람했던 계책을 본떠 보십시오. 폐하께서 안읍으로 행차하시면 사마의가 반드시 마중을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의 움직임을 살핀 뒤, 마차 앞으로 다가가 사로잡으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조예가 이 말을 따랐다. 그리하여 조진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맡기고, 자신은 직접 어림군 10만 명을 거느리고 안읍으로 향했다.

사마의는 영문도 모른 채, 천자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군사를 정비하여 수만 명의 갑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갔다. 이때 측근이 보고하기를, "사마의가 정말로 십여 만의 군사를 이끌고 저항하러 오니, 참으로 반역할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예는 당황하여 조휴에게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라고 명령했다. 사마의는 군마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천자의 수레가 직접 오는 줄로만 여겨, 길가에 엎드려 마중을 나갔다. 조휴가 나서서 말했다. "중달, 그대는 선제께서 고아를 맡기신 중책을 받았거늘, 어찌하여 반역을 꾀하는가?" 사마의는 안색이 급변하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조휴가 앞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자 사마의가 말했다. "이것은 오나라와 촉나라의 간자가 쓴 반간계입니다. 우리 군신이 서로를 해치게 만들어, 적들이 그 틈을 타 공격하려는 속셈입니다. 제가 직접 천자를 뵈고 이를 밝혀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군마를 물린 뒤 조예의 수레 앞으로 가서 엎드려 울며 고했다. "신은 선제께서 고아를 맡기신 중책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판마음을 품겠습니까? 이는 필시 오나라와 촉나라의 간계입니다. 신이 청하옵건대 군사 한 부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먼저 촉나라를 깨뜨리고 그 뒤에 오나라를 쳐서, 선제와 폐하께 신의 충심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조예는 의심이 가 풀리지 않았다. 이때 화흠이 나서서 말했다. "병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즉시 직위를 박탈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예는 그 말을 따라 사마의의 관직을 깎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조휴에게 용주와 양주의 군마를 총괄하도록 명령했다. 조예는 수레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첩자가 이 소식을 알아내어 축한 땅으로 보고했다. 제갈량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위나라를 치고자 한 지 오래되었으나, 사마의가 옹주와 양주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가 계책에 빠져 직위까지 잃었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튿날, 유선이 조례를 열어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제갈량이 대열 앞에 나아가 《출사표》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신 제갈량이 말씀드립니다. 선헌제께서 대업을 이루기도 전에 중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익주의 형편이 매우 쇠약해졌으니, 지금은 참으로 위태롭고도 절박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 호위하는 신하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밖에서 싸우는 충성스러운 선비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선헌제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폐하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폐하께서는 신하들의 말을 너그럽이 들어주어 선헌제의 남겨진 덕을 빛내고, 충직한 이들의 기개를 드높여 주셔야 합니다. 결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거나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충성스러운 간언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궁궐 안의 신하와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하나와 같으니, 상을 주고 벌을 내림에 있어 선과 악을 가리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도 안 됩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나, 반대로 충성스럽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법을 담당하는 관청에 맡겨 그에 합당한 형벌과 상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폐하의 밝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안팎의 법이 다르게 적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중과 사랑인 곽유지, 비의, 동운 등은 모두 참되고 성실하며 뜻이 충직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선황제께서 직접 뽑아 폐하께 맡기신 것입니다. 소신이 생각하기에 궁중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이들에게 물어본 뒤에 시행한다면, 반드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 향충은 성품이 온화하고 평온하며 군사 업무에도 밝습니다. 예전에 시험 삼아 써 보았을 때 선황제께서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셨기에, 여러 사람이 향충을 추천하여 감독으로 삼으려 합니다. 소신이 생각하기에 군영의 일 또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다면, 반드시 군대가 화합하고 질서가 잡히며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이 전한이 흥성했던 이유이며, 소인을 가까이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하는 것이 후한이 기울어 망한 이유입니다. 선제께서 살아 계실 때 저와 이 일을 논할 때마다, 환제와 영제의 실정을 두고 탄식하며 한스러워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들은 모두 절개를 지키며 곧고 밝은 신하들이니, 부디 폐하께서는 이들을 가까이하고 믿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한나라 왕실이 다시 일어설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본래 평범한 선비로 남양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난세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제후들에게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대 황제께서 신의 비천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몸소 초가집까지 세 번이나 찾아와 주시며 세상의 대사를 물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선대 황제를 모시고 힘써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나라가 뒤집히는 환란을 겪을 때도 패배한 군대 속에서 임무를 맡고 위태로운 순간마다 명을 받들어 달려왔으니, 어느덧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대 황제께서 신의 신중함을 믿으셨기에 위기의 순간에 이 중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래로 밤낮으로 근심하며, 혹여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선황제 폐하의 밝은 뜻을 더럽히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방이 평정되었고 군사도 충분히 갖추었으니,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해야 합니다. 비록 저의 재능은 부족하나, 온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예전의 도읍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황제 폐하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을 다해야 할 직분입니다.

더 나아가 정사를 살피고 보태거나 덜어내는 일, 그리고 충성스러운 의견을 다하는 일은 유지, 비의, 동윤이 맡아야 할 임무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저에게 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공을 맡겨 주십시오.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저를 벌하여 선황제 폐하의 영전에 고하게 하소서. 만약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유지, 비의, 동윤 등이 소홀히 한 죄를 물어 그들의 오만함을 밝히소서. 또한 폐하께서도 스스로 도를 구하고 어진 이들에게 물으시며, 선황제 폐하의 유지를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으니 감격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게 되어 표문을 앞에 두고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선이 표문을 읽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남쪽을 정벌하시느라 멀리까지 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막 성도로 돌아와 채 앉기도 전에 또다시 북쪽을 치려 하시니, 소신은 승상의 심신이 너무 지칠까 두렵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신은 선제께서 홀로 남겨진 저를 맡기신 막중한 책임을 지고 밤낮으로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쪽이 평정되었으니 안쪽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적을 토벌하여 중원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또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이때 부하 중 태사 조주가 나서서 말했다. "신이 밤에 하늘의 형상을 살펴보니, 북방의 기운이 매우 성하고 별들도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벌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제갈량을 돌아보며 물었다. "승상께서는 천문을 잘 아시는데, 어찌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하늘의 도는 변화무쌍하여 일정하지 않은 법인데, 어찌 작은 법도에만 얽매이겠습니까? 일단 군사들을 한중에 머물게 하며 상황을 지켜본 뒤에 움직이겠습니다."

조주가 간곡히 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은 곽유지, 동윤, 비의 등을 남겨 시중으로 삼아 궁중의 모든 일을 돌보게 했다. 또한 향충을 대장으로 남겨 어림군을 총괄하게 했고, 진진을 시중으로, 장완을 참군으로, 장예를 장사로 삼아 승상부의 업무를 맡겼다. 두경은 간의대부로, 두미와 양홍은 상서로, 맹광과 내민은 제주로, 윤목과 이훤은 박사로, 극정과 비시는 비서로, 조주는 태사로 임명했다.

이처럼 내외의 문무 관료 백여 명이 함께 축한의 국정을 돌보게 되었다.

제갈량이 황제의 조서를 받고 관청으로 돌아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전독부이자 진북장군으로서 승상사마와 양주자사, 도정후를 겸한 위연, 전군도독이자 부풍태수를 겸한 장익, 아문장이며 비장군인 왕평, 후군영병사로서 안한장군과 건녕태수를 겸한 이회, 그리고 그 부장인 정원장군이자 한중태수를 겸한 여의, 군량 운반을 겸관하는 좌군영병사이자 평북장군이며 진창후인 마대, 부장인 비위장군 요화, 우군영병사이자 분위장군이며 박양정후인 마충, 무용장군이자 관내후인 장의, 행중군사인 차기대장군이자 도향후인 유염, 중감군인 양무장군 등지, 중참군인 안원장군 마속, 전장군이자 도정후인 원침, 좌장군이자 고양후인 오의, 우장군이자 현도후인 고상, 후장군이자 안락후인 오반, 장사를 겸한 수군장군 양의, 전장군이자 정남장군 유바, 전호군이자 편장군이며 한성정후인 허윤, 좌호군이자 독신중랑장 정함, 우호군이자 편장군 유치, 후호군이자 전군중랑장 관웅, 행참군인 소무중랑장 호제, 행참군인 간의장군 염안, 행참군인 편장군 찬습, 행참군인 비장군 두의, 무락중랑장 두기, 수읍도위 성발, 종사인 무락중랑장 번기, 전군서기 번진, 승상 영사인 동궐, 장막 앞 좌호위사인 용상장군 관흥, 그리고 우호위사인 호익장군 장포까지 모두 대기하라."

이 모든 관원들은 평북대도독이자 승상, 무향후, 익주목으로서 내외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제갈량을 따라 북벌에 나설 것을 명했다.

군사 배치가 모두 결정된 후, 제갈량은 이엄 등에게 친구를 지켜 동오의 침입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날을 택하여 건흥 5년 봄 3월 병인일에 위나라를 치기 위해 출정하기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막사 안에서 한 노장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앞으로 나아왔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으나, 염파의 용맹과 마원의 웅장함이 아직 남아 있소! 이 두 옛사람은 모두 늙음에 굴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쓰지 않는단 말시오?"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조운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남중을 평정하고 성도로 돌아왔을 때 마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제 팔 하나가 잘려 나간 듯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연세가 높으시니, 만약 전장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여 평생 쌓아온 명성을 더럽히고 촉한의 기세를 꺾는 일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조운이 다시 크게 외쳤다. "제가 선제님을 모신 이래로 전투에서 물러선 적이 없으며, 적을 만나면 항상 앞장섰습니다. 대장부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 어찌 한이 되겠습니까? 부디 저를 전군 선봉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갈량이 몇 번이고 간곡히 만류했으나, 조운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만약 저를 선봉으로 세워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 계단 아래로 떨어받아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정 선봉이 되시겠다면, 반드시 함께 갈 사람이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노장군을 도와 한 부대를 이끌고 적을 격파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갈량이 살펴보니 바로 등지였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정예병 5천 명과 부장 10명을 뽑아 조운과 등지에게 붙여 보냈다.

제갈량이 출정하자, 유선은 백관을 거느리고 북문 밖 십 리까지 나가 그를 배웅했다. 제갈량이 유선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자, 깃발은 들판을 뒤덮고 창과 칼은 숲을 이룬 듯 장관을 이루었다.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한중을 향해 줄지어 나아갔다.

한편, 변방에서 이 소식을 알아채고 낙양에 보고했다. 마침 그날 조예가 조회를 열었는데, 가까운 신하가 나아가 아뢰었다.

"변방 관리의 보고에 따르면, 제갈량이 30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한중에 주둔하며 조운과 등지를 앞장세워 국경을 침범하려 한다 합니다."

조예가 크게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장수가 되어 촉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대답하며 나서 말했다.

"신은 아버지가 한중에서 돌아가신 뒤 그 한을 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촉나라 군대가 국경을 범하고 있으니, 신이 본래 부리던 맹장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관서 지역의 병력까지

내려주어 축나라를 격파하게 해주십시오. 위로는 나라에 힘을 보태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면, 신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는 바로 하후연의 아들 하후무였다. 하후무의 자는 자휴로, 성격이 매우 급하고 인색했다. 어려서부터 하후돈의 양자로 자랐는데, 후에 하후연이 황충에게 죽임을 당하자 조조가 그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딸인 청하공주를 시집보내 부마로 삼았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도 그를 존경하며 대접했다. 하지만 병권을 쥐고는 있었어도 전장에 나가 싸워본 적은 없었다. 이때 그가 스스로 출정을 청하자 조예는 즉시 그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관서 지역의 모든 군마를 동원해 적을 맞이하게 했다.

사도 왕랑이 간언했다.

"안 됩니다. 하후 부마는 평소 전투 경험이 없는데, 지금 이토록 큰 임무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게다가 제갈량은 지혜와 계책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능통하니 결코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하후무가 꾸짖으며 말했다.

"사도께서는 혹시 제갈량과 내통하여 안에서 돕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병법을 배웠고 병법에 매우 밝으니, 어찌 나를 어리다고 속이려 드는가! 만약 내가 제갈량을 생포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자를 뵈지 않겠소!"

왕랑을 비롯한 신하들은 감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하후무는 위나라 황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안으로 달려가, 관서

지역의 군마 20여 만을 소집하여 제갈량에게 맞서게 했다. 이를 두고
이르기를,

하얀 깃발 잡고 장병들을 지휘하려 하나, 정작 병권은 주둥이 노란
뿔내기에게 맡겼구나.

과연 승패가 어떻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2회 — 조자룡이 다섯 장수를 힘차게 베고, 제갈량이 지혜로 세 성을 취하다

趙子龍力斬五將 諸葛亮智取三城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면현에 이르렀을 때 마초의 무덤을 지나게 되었다. 제갈량은 마초의 동생인 마대에게 상복을 입혀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신도 직접 나서서 정중히 제를 올렸다. 제사를 마친 제갈량은 진영으로 돌아와 진군 계획을 논의했다. 그때 갑자기 초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위나라 황제 조예가 부마 하후무를 보내 관중의 여러 군대를 불러 모아 적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자 위연이 막사로 올라와 계책을 올렸다.

"하후무는 그저 먹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겁쟁이이며 피가 없는 자입니다. 제게 정예병 오천 명만 주신다면, 보충을 거쳐 진령산맥 동쪽으로 돌아 자오곡을 통해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열흘이면 장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후무가 제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 성을 버리고 횡문 쪽 저택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동쪽에서 나타나면 승상께서는 군사를 크게 몰아 사곡을 통해 진격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함양 서쪽 지역은 단숨에 평정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만전의 계책이 아니네. 자네는 중원에 뛰어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만약 누군가 이 사실을 보고하여 산골짜기 외딴곳에서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우리를 가로막아 죽인다면, 오천 명의 병사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의 사기도 크게 꺾일 것이네. 결코 그런 방법은 쓸 수 없네."

위연이 다시 말했다.

"승상께서 큰길로 진군하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관중의 모든 군사를 일으켜 길목에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리면 언제 중원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나는 농우의 평탄한 큰길을 따라 법도에 맞게 진군할 것이니, 이기지 못할까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결국 제갈량은 위연의 계책을 쓰지 않았다. 위연은 못내 아쉬워하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제갈량은 사람을 보내 조운에게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하후무는 장안에 여러 길의 군마를 집결시켰다. 마침 서량의 대장 한덕이 있었는데, 그는 커다란 도끼를 잘 다루었으며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다. 한덕은 서량과 서강의 군사 8만 명을 이끌고 달려왔다. 하후무는 한덕을 보자 큰 상을 내리며 선봉을 맡겼다. 한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무예에 정통하고 활쏘기와 말 타는 솜씨가 남달랐다. 장남은 한영, 차남은 한요, 삼남은 한경, 사남은 한기였다. 한덕이 네 아들과 함께 서량군 8만 명을 거느리고 봉명산에 이르니, 마침 촉나라 군사와 맞닥뜨려 양 진영이 서로 마주 보게 되었다.

한덕이 말을 타고 나가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라를 배신한 도적놈들아,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

이를 본 조운이 크게 분노하여 창을 들고 말을 몰아 단독으로 한덕에게 달려들어 맞싸웠다. 장남 한영이 말을 달려 맞서 보았으나,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조운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차남 한요가 이를 보고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싸우려 했다. 조운은 예전의 호랑이 같은 위엄을 떨치며 정신을 집중해 맞서 싸웠고, 한요는 적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삼남 한경이 급히 창을 들고 말을 달려와 협공하려 했다. 그러나 조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창법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맞섰다. 사남 한기가 두 형이 조운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역시 말을 달려 두 자루의 도를 휘두르며 조운을 에워쌌다.

조운은 중앙에서 홀로 세 장수와 싸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기가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한덕의 진영에 있던 편장이 급히 구하러 나갔고, 조운은 창을 끌며 뒤로 물러났다. 이때 한경이 창을 잡고 급히

활을 꺼내 화살을 쏘았으나, 조운이 창으로 세 번이나 연속해서 쳐내 버렸다. 한경이 크게 화가 나 다시 창을 잡고 말을 몰아 쫓아왔으나, 조운이 쏜 화살에 얼굴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한요가 말을 달려 보도를 휘두르며 조운을 베려 하자, 조운은 창을 땅에 버려두고 칼을 피한 뒤 한요를 생포하여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몰아 창을 들고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한덕은 네 아들이 모두 조운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져 먼저 진영 안으로 도망쳤다. 서량과 서강의 군사들은 평소 조운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날 그의 용맹함이 예전과 다름없음을 보고는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다. 조운이 말을 달리는 곳마다 진영은 뒤로 밀려났다. 조운은 홀로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진영 사이를 누볐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옛날 상산의 조운은 일흔의 나이에도 기이한 공을 세웠으니, 홀로 네 장수를 베고 진영을 격파함이 마치 당양에서 주군을 구하던 그 웅장함과 같구나."

등지가 조운의 대승을 보고 축한 군사를 이끌고 몰아치자, 서량군은 대패하여 달아났다. 한덕은 조운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갑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조운과 등지가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오자, 등지가 축하하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이미 연세가 일흔이신데도 용맹함이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장수 네 명을 베어 넘기시다니, 세상에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옵니다!”

조운이 대답했다.

“승상께서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쓰려 하지 않으시니, 그저 내 능력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했을 뿐이요.”

말을 마친 조운은 즉시 사람을 보내 포로 한요를 압송하게 하고, 승전보를 적어 제갈량에게 전해 보고하게 했다.

한편, 한덕은 패배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하후무를 만나 그간의 일을 보고하며 통곡했다. 하후무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조운을 맞으러 나왔다. 이때 정찰병이 촉한 진영으로 달려 들어와 하후무가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조운은 창을 움켜쥐고 말에 올라타 천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봉명산 앞으로 나가 진을 쳤다. 그날 하후무는 금투구를 쓰고 백마에 올라 커다란 칼을 손에 든 채 군기 아래 서 있었다. 조운이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는 것을 보고 하후무도 직접 싸우려 했다. 그러자 한덕이 “내 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겠소!”라며 말을 몰아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조운을 향해 돌진했다. 조운도 분노하며 창을 내질러 맞섰다. 채 세 합도 되지 않아 창이 번뜩이는 순간, 한덕은 말 아래로 짙려 죽었다. 조운은 즉시 말을 돌려 하후무를 공격했다. 하후무는 황급히 본진으로 몸을 피했다. 등지가 군사를 몰아 공격을 퍼부었으나 위나라 군사는 또 한 차례 무너졌고, 결국 십여 리를 후퇴하여 진을 쳤다. 하후무는 밤을 도와 장수들과 상

의하며 말했다. “내가 조운의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직접 본 적은 없었다. 오늘 보니 나이가 들었음에도 영웅의 기질이 여전하니, 당양 장판파에서의 이야기가 참임을 이제야 믿겠다. 이대로는 대적할 자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참군 정무는 정욱의 아들인데, 나서서 말했다. “제가 보기에 조운은 용맹할 뿐 지략이 없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일 대도독께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좌우에 매복을 두십시오. 그리고 대도독께서는 전투 중에 먼저 퇴각하여 조운을 매복한 곳으로 유인하십시오. 그사이 대도독께서 산 위에 올라가 사방의 군마를 지휘하여 겹겹이 에워싸면 조운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후무가 이 말을 따랐다. 이에 동희에게 삼만 군사를 주어 왼쪽에 매복하게 하고, 설척에게 삼만 군사를 주어 오른쪽에 매복하게 하니, 두 군대의 매복이 모두 완료되었다.

다음 날, 하후무는 다시 깃발과 북을 정비하고 군사를 이끌어 진격했다. 이에 조운과 등지가 마중 나갔다. 등지가 말 위에서 조운에게 말했다.

“어젯밤 위나라 군대가 대패하여 달아나더니 오늘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 분명 속임수가 있을 것이오. 노장군께서는 부디 경계하십시오.”

조운이 대답했다.

“저런 애송이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오늘 반드시 저들을 사로잡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운이 말 위에서 달려 나가자, 위나라 장수 판수가 마중 나왔으나 조운과 세 합도 채 겨루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났다. 조운이 그 뒤를 쫓자 위나라 진영에서 장수 여덟 명이 일제히 달려 나와 맞섰다. 그러나 그들은 하후무를 먼저 달아나게 한 뒤 자신들도 차례로 돌아났다. 조운이 그 기세를 타고 추격하며 죽이자, 등지도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조운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자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등지는 급히 군사를 거두어 후퇴하려 했으나, 왼쪽에서는 동희가, 오른쪽에서는 설척이 두 갈래로 몰려와 공격해 왔다. 등지는 병력이 적어 조운을 구해낼 수가 없었다. 조운은 적진 한가운데 갇힌 채 동서로 돌파하며 싸웠으나, 위나라 군사들은 갈수록 겹겹이 에워싸 왔다.

당시 조운의 수하에는 천여 명 정도의 병사뿐이었는데, 산비탈 아래까지 밀려들어가 보니 하후무가 산 위에서 삼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운이 동쪽으로 움직이면 적들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으로 움직이면 적들이 서쪽을 가리키며 철저히 막아내는 바람에 조운은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다. 적들은 산 위에서 통나무와 돌을 굴러 아래로 퍼부었기에 조운의 군사들은 산에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조운은 아침 7시경부터 저녁 5시경까지 쉴 새 없이 싸웠으나 끝내 빠져나가지 못했다. 결국 말에서 내려 잠시 쉬며 달빛이 밝아지기를 기다리기로 하고는 갑옷을 벗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막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위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조운은 어서 항복하라!"고 크게 외쳐댔다. 조운은 급히 말

에 올라 적을 맞이했으나, 사방에서 군마가 점점 조여 오고 팔방에서 쏘아대는 노궁의 화살이 너무도 매서워 사람과 말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조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노쇠함을 인정하지 않더니, 결국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갑자기 북동쪽 모퉁이에서 함성이 크게 터져 나오더니 위나라 군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는데, 선두에 선 대장은 장팔점강모를 들고 있었고 말 목 아래에는 사람의 머리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조운이 자세히 보니 바로 장포였다. 장포는 조운을 보고 말했다.

“승상께서 노장군께 변이 생길까 걱정되어, 특별히 저에게 군사 5천을 맡겨 지원하러 오게 하셨습니다. 노장군께서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위망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마침 위나라 장수 설칙을 만났는데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조운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포와 함께 북서쪽 모퉁이를 뚫고 나갔다. 위나라 군사들은 창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때 밖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는데, 선두에 선 대장은 청룡언월도를 들고 손에는 사람의 머리를 쥐고 있었다. 조운이 보니 바로 관흥이었다. 관흥이 말했다.

“승상의 명을 받들어 노장군께 변이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특별히 5천 병력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습니다. 방금 진영에서 위나라 장수 동희를 만나 제가 단칼에 베어 버렸습니다. 그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승상께서도 곧 뒤따라 도착하실 것입니다.”

조운이 말했다.

“두 장군이 이미 큰 공을 세웠으니, 오늘 기세를 몰아 하후무를 사로 잡아 대업을 확정 짓지 않겠는가?”

장포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병사를 이끌고 나갔다. 관흥도 “저도 공을 세우러 가겠습니다”라며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조운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둘은 내 자식과 조카뻘인데도 앞다투어 공을 세우려 하는구나. 나는 나라의 상장수이자 조정의 구신인데, 어찌 저 어린 후배들만 못하겠는가? 내 기꺼이 노구를 던져 선제께 은혜를 갚으리라!” 그리고는 병사를 이끌고 하후무를 잡으러 나섰다.

그날 밤, 세 갈래의 군사가 협공을 가하자 위나라 군사 한 진영이 크게 무너졌다. 등지가 병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나가니, 적들이 들판에 시체가 즐비하고 피가 강물처럼 흐를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하후무는 지력이 없는 데다 나이까지 어려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었다. 그는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는 즉시 휘하의 용맹한 장수 백여 명을 이끌고 남안성을 향해 달아났다. 나머지 군사들도 지휘관을 잃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관흥과 장포 두 장수는 하후무가 남안성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밤을 도와 급히 달려왔다. 하후무는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병사들에게 수비를 명령했다. 관흥과 장포가 도착하여 성을 에워쌌고, 뒤이어 조운도 도착하여 세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지마저 병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연달아 성을 공격했으나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했다.

승상이 후군을 면양에 머물게 하고, 좌군은 양평에, 우군은 석성에 주둔시킨 뒤 중군을 이끌고 직접 이곳으로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운과 등지, 관흥, 장포가 모두 제갈량을 찾아와 며칠째 성을 공격하고 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은 작은 수레를 타고 직접 성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진영으로 돌아와 막사를 치고 앉았다. 장수들이 주위에 둘러서서 명령을 기다리자 제갈량이 말했다.

"이 고을은 해자도 깊고 성벽도 가팔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나의 본래 목적은 이 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너희가 여기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위나라 군사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나와 한중을 치려 한다면 우리 군이 위험해질 것이다."

등지가 말했다. "하후무는 위나라의 부마입니다. 만약 그를 사로잡는다면 백 명의 장수를 베는 것보다 큰 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이곳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나에게는 이미 계책이 있다. 이곳은 서쪽으로 천수군과 맞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안정군과 맞닿아 있는데, 두 곳의 태수는 누구냐?"

정찰병이 대답했다. "천수 태수는 마준이고, 안정 태수는 최량입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위연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어 이와 같이 행하게 했고, 관흥과 장포를 불러 계책을 일러주어 이와 같이 행하게 했으며, 또 심복 군사 두 명을 불러 계책을 일러주어 이와 같이 행하게 했다. 각 장수는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남안성 밖

에서 군사들에게 땔나무를 성 아래에 쌓아두게 한 뒤, 성을 불태우겠다고 외치게 했다. 위나라 군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비웃을 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편, 안정 태수 최량은 성 안에서 촉나라 군대가 남안성을 에워싸고 하후무를 고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즉시 군사 사천 명을 뽑아 성을 지키게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남쪽에서 다가오더니, 긴급한 기밀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최량이 그를 불러 물으니,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저는 하후무 도독의 심복 장수인 배서입니다. 지금 도독의 명령을 받들어 천수와 안정 두 군에 구원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남안성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매일 성 위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며 두 군의 구원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아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포위망을 뚫고 나와 이곳에 급박한 상황을 알리러 왔으니, 부디 밤낮을 가리지 말고 군사를 일으켜 밖에서 도와주십시오. 도독께서 두 군의 병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시면 성문을 열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량이 "도독의 문서가 있소?"라고 묻자, 배서는 땀에 흠뻑 젖은 문서를 품속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최량은 문서를 대강 훑어본 뒤, 즉시 부하에게 말과 채비를 바꾸게 하고는 그를 성 밖으로 내보내 천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음 날, 천수 태수가 남안성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안정군에게 이를 맞이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다. 최량

은 부하 관리들과 이 일을 상의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만약 구하러 가지 않아 남안성을 잃고 하후무를 위기에 빠뜨린다면, 이는 우리 두 군의 모두에게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최량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성을 떠났다. 그는 문관들만 남겨두고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남안성으로 향하는 큰길을 따라 나아갔다.

남안성에 이르기까지 아직 50여 리가 남았을 무렵, 갑자기 앞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들려왔다. 정찰하던 기병이 급히 보고했다. "앞에서는 관홍이 길을 막아섰고, 뒤에서는 장포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안정군의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최량은 크게 놀라 부하 100여 명을 데리고 좁은 길로 방향을 틀어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겨우 탈출하여 안정으로 돌아났다.

그가 겨우 성 해자에 다다르자,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때 촉나라 장수 위연이 성 위에서 소리쳤다. "내가 이미 이 성을 차지했다! 어찌하여 일찍 항복하지 않았느냐!" 알고 보니 위연이 안정군의 군복을 입고 밤을 틈타 성문을 몰래 열어젖힌 뒤, 촉나라 군사를 모두 성 안으로 들여보내 안정성을 점령한 것이었다.

한편, 최량은 겁에 질린 채 천수군으로 도망쳐 왔다. 채 얼마 못 가 앞길에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깃발 아래에는 한 사람이 비단 두건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채, 도포와 학창의 차림으로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최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제갈량이었다. 최량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이때 관홍과 장포가 이끄는 두 갈래 군사가 뒤쫓아와 외쳤다. "어서 항복하라!" 최량은 사방이 모두 촉나라 군사들뿐인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하며 대영채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최량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남안 태수와 귀하는 친분이 두텁습니까?" 최량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양부의 친척 동생인 양릉인데, 저와 이웃 군에 살며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번에 귀하가 성안으로 들어가 양릉을 설득해 하후무를 사로잡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최량이 말했다. "승상께서 저를 보내신다면, 잠시 군사를 물리고 제가 성안에 들어가 설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갈량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즉시 명령을 내려, 사방의 군사들에게 각기 20리 뒤로 물러나 진을 치라고 하였다.

최량은 말을 타고 성가에 도착해 성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는 양릉과 예를 갖춘 뒤, 사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자 양릉이 말했다.

"우리가 위나라 황제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차마 배신할 수 있겠소? 차라리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해 일을 진행합시다."

양릉은 곧바로 최량을 하후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후무가 물었다.

"어떤 계책을 써야 하오?"

양릉이 대답했다.

"제가 성문을 열어준다고 핑계를 대어 촉나라 군사를 유인해 들인 다음, 성 안에서 몰살해야 합니다."

최량은 이 계책대로 행동했다. 그는 성 밖으로 나가 제갈량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양릉이 성문을 열어준다고 하니, 대군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 하후무를 사로잡으십시오. 양릉은 원래 직접 잡으려 했으나, 수하의 용사들이 많지 않아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 일은 아주 쉽소. 지금 그대에게 항복한 병사 백여 명을 촉나라 안정군으로 변장시켜 성 안으로 몰래 들여보내시오. 그들을 먼저 하후무의 집 근처에 매복시킨 뒤, 양릉과 미리 약속하여 한밤중에 성문을 열게 함으로써 안팎에서 협공하도록 합시다."

최량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촉나라 장수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제갈량이 의심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들을 데려가서 안에서 먼저 베어버린 뒤, 불을 피워 신호로 삼아 제갈량을 유인해 들어오게 하여 죽여버리는 편이 낫겠다.'

그리하여 최량은 제갈량의 제안을 수락했다. 제갈량이 당부했다.

"내가 심복인 관흥과 장포를 그대와 함께 먼저 보내겠소. 그들은 구원병인 것처럼 성 안으로 들이닥쳐 하후무를 안심시켜야 하오. 하지만 불이 피워지면 내가 직접 성 안으로 들어가 하후무를 사로잡을 것이오."

날이 저물 무렵, 제갈량의 밀계를 받은 관흥과 장포는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무기를 든 채 안정군 무리에 섞여 최량을 따라 남안성 아래로 내려왔다. 성 위에서 상황을 살피던 양릉은 성벽에 매달린 판을 붙잡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어느 쪽 군대인가?"라고 물었다. 최량이 "안정에서 구원군이 왔소!"라고 외치며 먼저 신호용 화살을 성 위로 쏘아 올렸다. 화살에는 밀서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 제갈량이 두 장수를 먼저 보내 성 안에 매복시켰으니, 안팎에서 호응하려 함이다. 계책이 새 나가지 않도록 절대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일단 부(府) 안으로 들어간 뒤에 일을 도모하자." 양릉은 이 서신을 하후무에게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다. 하후무가 말했다. "제갈량이 우리 계책에 걸려들었으니, 도끼와 칼을 든 병사 백여 명을 부에 매복시켜라. 만약 두 장수가 최 태수를 따라 부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리는 즉시 문을 닫고 그들을 베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성 위에서 횃불을 올려 제갈량을 성 안으로 유인하면,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를 마친 뒤, 양릉이 성 위로 올라가 말했다. "안정군의 군마들이니 성 안으로 들여보내도 좋습니다."

관흥과 최량이 앞장서고 장포가 그 뒤를 따랐다. 양릉이 성 아래로 내려와 문가에서 이들을 맞이하려 할 때, 관흥이 칼을 휘둘러 양릉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최량은 깜짝 놀라 급히 말을 몰아 달아났다. 그가 조교 근처에 이르자, 뒤따라오던 장포가 크게 외쳤다.

"도둑놈아, 거기 서라! 너희의 간사한 계책을 승상께서 어찌 모르실 줄 알았더니!"

장포가 창을 내뺀어 최량 역시 말 아래로 떨어 죽었다. 그사이 관흥은 이미 성 위에 올라가 불을 질렀고, 사방에서 축한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하후무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남문을 열고 힘을 모아 돌파하려 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선봉장은 바로 왕평이었다. 왕평과 하후무가 맞붙어 단 한 합 만에 하후무를 말 위에서 생포하였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전사했다.

제갈량이 남안성에 들어간 뒤 군사와 백성들을 다독이며 교화하니, 그 누구도 조금의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에 여러 장수가 저마다 세운 공을 올렸다. 제갈량은 하후무를 수레에 가두어 포로로 삼았다.

이때 등지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최량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저자가 항복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성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저자는 분명 하후무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한 뒤, 내 계책을 역이용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상황을 보니 저자의 속임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두 장수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만약 저자가 진심이였다면 반드시 나를 막아섰을 터인데, 저자가 기뻐하며 함께 따라간 것을 보니 아마도 내가 의심할까 봐 꾸민 일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두 장수가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성안으로 유인해 곧바로 죽이려 했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군대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고 믿게 하여 안심하고 진격하게 하려 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두 장수에게 성문 아래에서 거사를 치르라고 몰래 일러두었다. 성안에는 분명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니, 우리 군대가 뒤따라 들어가면 허를 찌를 수 있다.”

장수들이 모두 머리를 숙이며 감탄했다. 제갈량이 말을 이었다. “최량을 속이기 위해 내 심복을 위나라 장수 배서로 위장하게 했다. 또한 천수군을 속여 유인하려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는 것을 보니 무슨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금 이 기세를 몰아 천수군을 취할 수 있다.”

그러고는 오의를 남안을 지키게 하고, 유염을 안정에 머물게 한 뒤, 위연의 군마를 빼내어 천수군을 치러 떠났다.

한편, 천수 태수 마준은 하후무가 남안성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백관을 모아 의논하였다. 공조 양서, 주부 윤상, 주기 양건 등이 말했다. "하후무 부마는 황실의 귀한 자손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를 방관한 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태수께서는 어찌하여 본부의 병력을 모두 일으켜 구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마준이 의구심을 품고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하후무가 심복 배서를 보냈다. 배서가 관아에 들어와 공문을 마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도독께서 안정과 천수 두 군의 병력을 요청하셨으니, 밤을 도와 급히 구원하러 오십시오." 말을 마친 배서는 서둘러 떠나갔다. 다음 날 또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안정의 군사들이 이미 먼저 출발했으니, 태수께서는 서둘러 합류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준이 막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한 사람이 급히 들어오며 외쳤다. "태수님, 제갈량의 계책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그는 천수 사람인 강유였다. 성은 강이고 이름은 유이며, 자는 백약이다. 그의 아버지 강경은 예전에 천수 태수의 공조였으나, 과거 강족의 난 때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강유는

어려서부터 책을 널리 읽어 병법과 무예에 통달하였고, 어머니를 지극히 효도로 모셔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후에 중랑장이 되어 천수군의 군무를 맡게 되었다.

그날 강유가 마준에게 말했다.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갈량이 하후무를 격파하여 남안성을 겹겹이 포위하는 바람에, 남안성은 물 썰 틈 없이 막혀 있어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배서라는 자는 이름도 없는 하급 장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안정 태수가 마준에게 보낸 보고에도 공식 문서가 없으니, 이 점을 살펴보건대 배서는 촉나라 장수가 위나라 장수인 척 속이는 것입니다. 태수를 성 밖으로 유인해 내어 성 안의 방비가 허술해지면, 분명 근처에 군사를 몰래 매복시켜 빈틈을 타 천수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마준이 크게 깨달으며 말했다. "백약(강유의 자)의 말이 아니었다면 간사한 계책에 빠질 뻔했구나!"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태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게 제갈량을 사로잡고 남안의 위기를 해결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지략을 펼치려 하니 또 다른 강적을 만났고, 지혜를 겨루려 하니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계책이 과연 어떠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93회 — 강백약이 공명에게 귀순하고, 무향후가 왕랑을 꾸짖어 죽이다

姜伯約歸降孔明 武鄉侯罵死王朗

한편, 강유가 마준에게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제갈량은 반드시 군 뒤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고, 우리 군사를 꺾어 성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그 빈틈을 타 우리를 습격할 것입니다. 제게 정예병 삼천 명을 주시면 요충지에 매복시키겠습니다. 태수께서는 그 뒤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가 시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서른 리 정도만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신호로 삼아 앞뒤에서 협공한다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직접 온다 해도 반드시 제 손에 잡힐 것입니다.” 마준은 그 계책을 받아들여 강유에게 정예병을 맡겼다. 그러고는 스스로 양건을 거느리고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대기했으며, 성에는 양서와 윤상만을 남겨 지키게 했다. 알고 보니 제갈량은 과연 조운을 보내 한 부대를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천수의 군사들이 성을 비우기만을 기다리며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마침 첩자가 조운에게 달려와 보고하기를, “천수 태수 마준

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으며, 문관들만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조운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익과 고상에게 사람을 보내 마준의 길목을 차단하고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두 곳의 병력 또한 제갈량이 미리 매복시켜 둔 것이었다.

한편, 조운이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천수 성 아래로 달려가 크게 외쳤다. “나는 상산의 조운이다! 너희는 이미 계책에 빠졌음을 알고 있으니, 어서 성을 바쳐 목숨을 구하라!” 성 위에서 양서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우리 강유의 계책에 빠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조운이 막 성을 공격하려던 찰나, 갑자기 사방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앞장선 한 젊은 장수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나오며 외쳤다. “천수의 강유를 보았느냐!” 조운은 창을 겨누며 곧장 강유를 공격했다.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데, 강유는 싸울수록 기세가 더욱 드높아졌다. 조운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에 이런 인물이 있을 줄이야!’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마준과 양건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양측을 협공해 왔다. 조운은 앞뒤를 돌볼 겨를도 없이 길을 뚫어 패퇴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달아났고, 강유가 그 뒤를 쫓아왔다. 다행히 장익과 고상이 이끄는 두 갈래 군사가 돌격해 나와 조운의 퇴로를 열어주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조운이 제갈량을 만나 적의 계책에 당했음을 보고하자, 제갈량이 놀라며 물었다. “그 자는 누구기에 나의 깊은 계책을 알아챈 것인가?” 그때 남안 출신의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 사람의 성은 강이고 이름은 유이며, 자는 백약입니다. 천수군 기현 사람으로, 어머니께 효도를 다할 뿐만 아니라 문무를 겸비하고 지혜와 용맹까지 갖추었으니, 참으로 당대의 영걸이라 할 만합니다.” 조운 또한 강유의 창술이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뛰

어나다고 칭찬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이번에 천수를 취하려 했으나, 이런 인물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러고는 즉시 대군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강유가 마준을 만나 말했다. “조운이 패해서 물러갔으니, 제갈량이 반드시 직접 올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군사가 성 안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겠지요. 그러니 지금 본부의 군마를 네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한 부대를 이끌고 성 동쪽에 매복했다가, 적군이 도착하면 길목을 차단하겠습니다. 태수님께서도 양건, 율상과 함께 각각 한 부대씩 이끌고 성 밖에 매복하십시오. 양서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성 위에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사 배치를 모두 마쳤다.

한편, 제갈량은 강유를 염두에 두고 직접 선봉에 서서 천수군을 향해 진군했다. 성 근처에 다다르자 제갈량이 명령을 내렸다. “성채를 공격할 때는 처음 도착한 날에 삼군을 격려하여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곧장 돌격하라. 만약 공성전이 길어져 병사들의 기세가 꺾이면 성을 함락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군은 곧장 성 아래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성 위에 깃발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선불리 공격하지 못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함성이 땅을 울리니 어디서 병사가 나타났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성 위에서도 북소리와 함성이 응답하듯 울려 퍼졌고, 촉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제갈량이 급히 말에 올라타 관흥과 장포 두 장수에게 호위를 받으며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 뒤를 돌아보니 정동쪽에서 군마들이 한 줄기 불빛을 이루며 마치 긴 뱀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제갈량이 관흥에게 정찰을 시키니, 관흥이 돌

아와 보고했다. “강유의 군사들입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병사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달린 법이다. 이 자는 참으로 뛰어난 장수의 재능을 가졌구나!” 제갈량은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온 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안정 사람을 불러 물었다. “강유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가 대답했다. “강유의 어머니는 지금 기현에 계십니다.” 제갈량이 위연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군사 하나를 이끌고 가서 허세로 기현을 취하는 척하라. 만약 강유가 오거든 성안으로 들여보내 주어야.” 이어 다시 물었다. “이 근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가?” 안정 사람이 말했다. “천수의 군량미는 모두 상구에 있습니다. 상구를 함락시키면 보급로가 끊기게 됩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조운에게 군사를 이끌고 상구를 공격하라고 명했다. 제갈량은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일찍이 천수군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촉나라 군사가 세 갈래로 나뉘었다는 내용이었다. 한 갈래는 이곳을 지키고, 한 갈래는 상구를 취하며, 또 한 갈래는 기현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유가 마준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제 어머니가 지금 기현에 계시니 어머니께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게 군사 하나를 주시면 기현을 구하러 가서 노모를 보살피겠습니다.” 마준이 이를 따르기로 하여, 강유에게는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기현을 지키게 하고, 양건에게는 3천 명의 군사를 주어 상구를 지키게 했다.

한편,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기성에 이르렀는데,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촉나라 장수는 바로 위연이었다. 두 장수가 몇 차례 맞붙어 싸우다 위연이 거짓으로 패하며 달아났다. 강유는 성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군사를 거느려 성을 지키며, 노모를 뵈

고는 밖으로 나가 싸우지 않았다. 조운 역시 양건을 놓아주어 상구성으로 가게 했다. 한편, 제갈량은 사람을 보내 남안군으로 가서 하후무를 데려오게 했다. 제갈량이 하후무에게 물었다. “너는 죽는 것이 두려우냐?” 하후무는 당황하여 엎드린 채 목숨을 구걸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강유가 기주를 지키고 있다. 사람을 보내 서신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라. ‘부마만 있다면 기꺼이 항복하겠다’라고 말이다. 내가 지금 네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네가 강유를 투항시키겠느냐?” 하후무가 대답했다. “기꺼이 투항시키겠습니다.” 제갈량은 하후무에게 옷과 말과 안장을 내주되,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가게 했다.

하후무는 채에서 겨우 빠져나와 길을 찾아 떠나려 했으나,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후무가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기현의 백성입니다. 강유가 성을 내주어 제갈량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촉나라 장수 위연이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하여 우리는 집을 버리고 상구로 피난 가는 길입니다." 하후무가 다시 물었다. "지금 천수를 지키는 이는 누구인가?" 현지인이 대답했다. "천수성에는 마 태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후무는 말을 몰아 천수성을 향해 달려갔다. 가는 길에 아이를 안고 여인을 데리고 도망치는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같았다. 하후무가 천수성 아래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니, 성 위에서 그가 하후무임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문을 열어 맞이했다. 마준이 깜짝 놀라 절하며 상황을 물었다. 하후무가 강유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백성들에게 들은 내용도 전했다. 마준이 탄식하며 말했다. "강유가 촉나라에 항복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구나!" 이때 양서가 말했다. "강유는 대도독을 구하려는 마음에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말한 것일 겁니다." 하

후무가 되물었다. "강유가 이미 항복했다는데, 어찌 거짓이란 말인가?" 하후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초경이 되었고 촉나라 군사가 다시 성을 공격해 왔다. 불빛 사이로 강유가 성 아래에서 창을 치켜들고 말을 탄 채 크게 외치는 모습이 보였다. "하후 대도독께서는 대답을 하시오!" 하후무와 마준 등이 모두 성 위로 올라가 보니, 강유가 위세를 떨치며 크게 외치고 있었다. "나는 대도독을 위해 항복했는데, 대도독께서는 어찌하여 앞서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하후무가 말했다. "그대는 위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찌 촉나라에 항복했는가? 앞서 한 말이 무엇이란 말인가?" 강유가 대답했다. "그대가 내게 편지를 보내 촉나라에 항복하라고 가르쳐 놓고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대는 몸을 빼내려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촉나라에 항복하여 상장군이 되었으니, 어찌 다시 위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강유는 군사를 몰아 성을 공격하다가 날이 밝아서야 물러갔다. 알고 보니 밤사이에 강유로 변장했던 것은 제갈량의 계책이었다. 제갈량이 생김새가 비슷한 병사들에게 강유의 모습으로 분장시켜 성을 공격하게 했으니, 불빛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기성을 공격해 왔다. 성 안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군사들의 끼니조차 대기 힘든 상황이었다.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유는 촉나라 군사들이 수레에 식량과 풀을 가득 싣고 위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강유는 곧장 삼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식량을 가로채려 했다. 촉나라 병사들은 식량 수레를 내팽개치고 길을 찾아 달아났다. 강유가 식량을 탈취해 성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촉나라 장수는 장익이었다. 두 장수가 맞붙어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왕평이 이끄는 또 다른 군대가 도착하여 양쪽에서 협공을 가해 왔다.
 강유는 힘이 다해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길을 틀어 성으로 도망치려 했
 다. 그런데 성벽 위에는 이미 촉나라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미 위연이 성을 습격한 상태였다. 강유는 한 갈래 길을 통해 천수성
 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부하들은 겨우 열 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
 다. 게다가 장포에게 한 차례 공격까지 당하자, 강유는 말 한 마리와 창
 한 자루만 남긴 채 천수성 아래에 도착해 성문을 두드렸다. 성 위의 군
 사들이 강유임을 확인하고는 급히 마준에게 보고했다. 마준이 말했다.
 “저놈이 성문을 속여 빼앗으려고 온 것이다!” 그러고는 성 위에서 화살
 을 마구 퍼부었다. 강유가 뒤를 돌아보니 촉나라 군사가 코앞까지 들이
 닥쳐 있었기에, 급히 상구성으로 말을 달려 도망쳤다. 성 위의 양건이
 강유를 보고는 크게 꾸짖었다. “나라를 배신한 도적놈이 감히 우리 성
 을 속이려 드느냐! 네놈이 촉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다!”
 그러고는 화살을 쏘아댔다. 강유는 미처 해명할 겨를도 없이 하늘을 우
 러러 길게 탄식하며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말을 돌려 장안 쪽
 을 바라보며 달아났다. 몇 리를 더 가니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곳이 나
 타났는데, 갑자기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 명의 병사가 쏟아져
 나왔다. 선두에 선 촉나라 장수는 관흥이었고, 그는 강유의 길을 막아
 섰다. 강유는 지치고 힘든 나머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산비탈에서 작은 수레 한 대가 나타났
 다. 머리에는 유건을 쓰고 학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은 채, 손에는 깃털
 부채를 흔들고 있는 이는 바로 제갈량이었다. 제갈량이 강유를 불러 말
 했다. “백약, 어찌하여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가?” 강유는 한참을 생각
 했다. 앞에는 제갈량이 있고 뒤에는 관흥이 가로막고 있으며 도망갈 길

도 없었다. 결국 그는 말에서 내려 항복하기로 했다. 제갈량은 서둘러 수레에서 내려와 강유를 맞이하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초려를 나와 전국을 돌며 인재를 찾아다녔으나, 평생 쌓은 학문을 전수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 한스러웠다. 이제 백약을 만났으니 내 소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강유는 크게 기뻐하며 절을 올리고 감사를 표했다.

제갈량은 강유와 함께 진영으로 돌아가 천수와 상구를 취할 계책을 논의했다. 강유가 말했다. “천수 성 안의 윤상과 양서는 저와 매우 두터운 사이입니다. 밀서 두 통을 써서 화살에 매어 성 안으로 쏘아 넣으면, 성 내부가 혼란에 빠져 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이 의견을 따랐다. 강유는 밀서 두 통을 써서 화살에 매단 뒤, 말을 달려 성 아래까지 간 다음 성 안으로 쏘아 넣었다. 성 안의 하급 관리가 이를 주워 마준에게 바쳤다. 마준은 크게 의심스러워하며 하후무와 상의하며 말했다. “양서와 윤상이 강유와 결탁하여 안에서 호응하려 하니, 대도독께서 서둘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후무가 말했다. “그 두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윤상이 이 소식을 알고 양서에게 말했다. “차라리 성을 내주고 촉나라에 항복하여 앞날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밤, 하후무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양서와 윤상 두 사람을 불러 대화하자고 청했다. 두 사람은 상황이 급박함을 직감하고, 즉시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채 무기를 들고 부하들을 이끌고 성문을 활짝 열어 촉나라 군사를 들여보냈다. 하후무와 마준은 당황하여 수백 명의 병사를 데리고 서문으로 도망쳐 강족 무리 속으로 숨어버렸다. 양서와 윤상은 제갈량을 맞이하여 성 안으로 모셨다.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제갈량이 상구를 취할 계책을 묻자, 양서가 말했다. “그 성은 제 친동생인 양건

이 지키고 있으니, 그를 불러 항복시키겠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했다. 양서는 즉시 상구로 가서 양건을 불러내 항복시켰다. 제갈량은 공을 세운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양서를 천수 태수로, 윤상을 기성 현령으로, 양건을 상구 현령으로 임명했다. 제갈량이 인사를 모두 마치고 군사를 정돈하여 진군하자, 장수들이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하후무를 사로잡지 않으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하후무를 놓아준 것은 오리 한 마리를 놓아준 것과 같으나, 지금 강유를 얻은 것은 봉황 한 마리를 얻은 것과 같다.” 제갈량이 세 성을 차지한 뒤 그 위세가 크게 떨치자, 멀리 떨어진 주와 군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해 왔다. 제갈량이 군마를 정돈하고 한중의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기산으로 나아가자, 군대는 위수 서쪽까지 이르렀다. 이 소식이 첩보를 통해 낙양에 전해졌다.

때는 위나라 황제 조예의 태화 원년이였다. 조예가 궁전에 올라 조회를 열었을 때,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나아가 보고했다.

"하후무 부마가 이미 세 군을 잃고 강족 무리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촉나라 군대는 이미 기산에 이르렀고, 전방 부대는 위수 서쪽까지 내려왔으니, 속히 군사를 일으켜 적을 격파해 주시옵소서."

조예가 크게 놀라며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짐을 도와 촉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사도 왕랑이 나서서 말했다.

"신이 보기에 선제께서 매번 대장군 조진을 쓰실 때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조진을 대도독으로 임명하신다면 촉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예가 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조진을 불러 말했다.

"선제께서 그대에게 고아를 맡기셨거늘, 이제 촉나라 군대가 중원을 침범하고 있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겠는가?"

조진이 대답했다.

"신은 재주와 지혜가 부족하여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랑이 말했다.

"장군은 나라의 기둥 같은 신하이니 결코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늙은이가 미련할지라도 장군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조진이 다시 말했다.

"신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부장 한 명을 붙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조예가 말했다.

"그대가 직접 뽑도록 하라."

조진은 이에 태원 양곡 출신의 곽회라는 사람을 추천했다. 곽회는 자가 백제이며 사정후에 봉해져 옹주 자사직을 맡고 있었다. 조예가 이

를 허락하자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절월을 내리고, 광회를 부도독으로, 왕랑을 군사로 임명했다. 당시 왕랑의 나이는 이미 일흔여섯이었다.

조예는 동경과 서경의 군마 20만 명을 선발하여 조진에게 주었다. 조진은 종친인 조준을 선봉장으로 삼고, 탕구장군 주찬을 부선봉장으로 삼았다. 11월에 군사를 일으키자, 위나라 황제 조예는 직접 서문 밖까지 나가 배웅하고 돌아왔다.

조진이 대군을 이끌고 장안에 도착하여 위수 서쪽에서 진을 쳤다. 조진은 왕랑, 광회와 함께 적을 물리칠 방책을 논의했다. 왕랑이 말했다. “내일 군대를 엄격하게 정비하고 깃발을 넓게 펼치십시오. 이 노부가 직접 나서서 말 몇 마디만 하면, 제갈량이 스스로 손을 모아 항복할 것이며 촉나라 군사들도 싸우지 않고 물러날 것입니다.” 조진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명령을 내렸다. “내일 새벽 사경에 식사를 준비하고, 날이 밝는 대로 반드시 군대의 대열을 정비하라. 인마의 위엄을 갖추고 깃발과 북, 나팔 소리가 각자의 순서에 맞게 울려 퍼지게 하라.” 그러면서 미리 전서를 보내 도전장을 내밀게 했다. 다음 날, 양측 군대가 기산 앞에서 진을 치고 서로 맞닥뜨렸다. 촉나라 군사들이 보니 위나라 군대의 기세가 매우 웅장하여, 예전에 보았던 하후무의 군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삼군의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잦아들자, 사도 왕랑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뒷자리에는 도독 조진이, 아랫자리에는 부도독 광회가 자리했으며, 두 선봉장이 진영의 양 끝을 지켰다. 정찰병이 군대 앞으로 달려 나가 크게 외쳤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불러라!” 그러자 촉나

라 군대의 깃발이 열리며 관흥과 장포가 좌우로 말을 타고 나타나 양옆을 지켰고, 이어 용맹한 장수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깃발 그림자 아래로 중앙에 사륜 수레 한 대가 나타났는데, 제갈량이 수레 안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는 흰 비단 모자에 깃털 부채를 들고 소박한 옷차림에 검은 띠를 맺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처럼 유유자적했다. 제갈량이 눈을 들어 위나라 진영을 보니, 세 개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깃발에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중앙에 있는 흰 수염의 노인이 바로 군사직을 맡고 있는 사도 왕량이었다. 제갈량은 속으로 ‘왕량이 분명 긴 말을 늘어놓을 테니,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레를 진영 밖으로 밀어내게 한 뒤, 호위 장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일렀다. “한나라의 승상이 사도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왕량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다. 제갈량은 수레 위에서 손을 모아 예를 표했고, 왕량은 말 위에서 몸을 굽혀 답례했다. 왕량이 말했다. “공의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요. 공은 이미 천명을 알고 시세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명분도 없는 군대를 일으켰단 말ियो?” 제갈량이 대답했다. “우리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도적을 토벌하러 왔거늘, 어찌 명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왕량이 다시 말했다. “하늘의 뜻이 변하여 천하의 주인도 바뀌는 법이니, 덕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예전 환제와 영제 시절부터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천하가 혼란에 빠졌고, 초평과 건안 연간에 이르러서는 동탁이 반역을 꾀하고 이각과 곽사가 뒤를 이어 폭정을 일삼았소. 원술은 수춘에서 스스로 황제를 칭했고, 원소는 업에서 세력을 떨쳤으며, 유표는 형주를 차지하고 여포는 서주를 집어삼켰지. 도적들이 들끓고 간신들이 날뛰니, 나라는 달걀을 썬아 올린 듯 위태롭고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 듯 절박한 처지였소. 우리 태조 무황제께서 천하를

깨끗이 정리하고 사방을 평정하시니, 만백성이 마음을 다해 따랐고 사방에서 덕을 우러러보았소. 이는 권세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의 뜻이 돌아온 것이었소. 또한 세조 문제께서도 신성하고 문무를 겸비하여 대통을 이어받으셨으니, 요임금과 순임금의 선례를 따라 중원을 다스리며 만방을 평정하셨소.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며 백성의 마음이 아니겠소? 이제 공은 큰 재능을 품고 큰 그릇을 지녀, 스스로 관중과 악의에 비견되려 하니, 어찌하여 억지로 천리를 거스르고 인정을 저버리는 일을 하려 하는가?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번창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지 않았소? 지금 우리 대위나라는 갑옷 입은 군사가 백만이며 용맹한 장수가 천 명에 달하오. 썩은 풀에서 나오는 반딧불 빛이 어찌 하늘의 밝은 달빛에 비길 수 있겠소? 공은 차라리 무기를 내려놓고 예로써 행복해 오시오. 그러면 후작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고, 나라가 안녕해지고 백성이 즐거워질 터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소!”

제갈량이 수레 위에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한나라의 충직한 신하로서 반드시 높은 식견을 가졌으리라 믿었거늘, 어찌 이런 비루한 말을 내뱉을 줄 알았겠는가! 내가 한마디 할 테니 모든 군사는 조용히 듣도록 하라. 옛 환제와 영제 시절, 한나라의 정통이 기울고 환관들이 화근을 일으키니, 나라가 어지럽고 흉년이 들어 사방이 소란스러웠다. 황건적의 난 이후에는 동탁과 이각, 광사 같은 자들이 잇달아 일어나 한나라 황제를 겁박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그 때문에 조정에는 썩은 나무 같은 자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전각 사이에는 짐승 같은 자들이 녹봉을 축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늑대와 개 같은 무리가 조정에 넘쳐나고, 아침하며 비굴하게 구는 무리가 정치를 휘두르니,

결국 사직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나는 네가 어떤 자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너는 대대로 동해 바닷가에 살며 효렴으로 뽑혀 관직에 나갔으니, 마땅히 임금을 바로잡고 나라를 도와 한나라를 안정시키고 유씨의 대업을 일으켜야 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리어 역적을 도와 찬탈을 꾀했던 말이나! 그 죄악이 너무나 깊어 하늘과 땅이 용납지 않을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네 살점을 씹어 먹기를 원할 것이다! 다행히 하늘이 한나라의 맥을 끊지 않아 소열제께서 서천의 대업을 이어받으셨다. 나는 이제 후계자의 뜻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러 왔다. 너는 이미 아침하는 신하가 되었으니, 그저 몸을 낮추고 숨어 지내며 입에 풀칠이나 할 것이지, 어찌 감히 군대 앞에 나서서 하늘의 뜻을 운운하며 망언을 내뱉느냐! 머리가 하얗게 센 평범한 사내이자, 흰 수염을 기른 늙은 역적 같으니! 너는 조만간 저승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무슨 면목으로 한나라 역대 스물네 황제를 뵈 수 있겠느냐! 늙은 역적아, 어서 물러가라! 그래야 저 반역자들과 내가 제대로 승부를 겨룰 것 아니냐!” 왕랑은 이 말을 다 듣고는 가슴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더니 말 아래로 곤두박질쳐 죽고 말았다. 후세 사람들이 제갈량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 “서쪽 진나라에서 군마가 출동하니, 그 영웅적 재능은 만 명의 적과 맞설 만하다. 가벼운 혀를 놀려 꾸짖으니, 늙고 간사한 신하가 맞아 죽었구나.”

제갈량이 부채로 조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대를 억지로 몰아붙이지는 않겠소. 군사와 말을 잘 정돈해 두었다가 내일 결전을 치릅시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수레를 돌려 물러났다. 이에 양측 군대는 모두 퇴각했다. 조진은 왕랑의 시신을 관에 담아 장안으로 보냈다.

부도독 곽희가 말했다. "제갈량이 우리 군이 상을 치르는 틈을 타 오늘 밤 반드시 진영을 습격할 것입니다. 병력을 네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두 갈래는 산속의 험한 길을 통해 몰래 움직여 촉군의 진영을 기습하고, 나머지 두 갈래는 우리 진영 밖에 매복했다가 촉군이 오면 좌우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조진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계책이 내 생각과 딱 맞소!" 그러고는 즉시 선봉장인 조준과 주찬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 둘은 각각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 뒤쪽을 우회하여 나가라. 촉군이 우리 진영을 향해 오는 것이 보이면 즉시 진격하여 촉군의 진영을 습격하되, 만약 촉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하며 함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조진이 다시 곽희에게 말했다. "우리도 각각 한 부대씩 이끌고 진영 밖에 매복하자. 진영 안에는 땔나무를 쌓아놓아 비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사람만 몇 명 남겨 두게. 만약 촉군이 도착하면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여러 장수는 모두 좌우로 나뉘어 각자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제갈량이 막사로 돌아와 먼저 조운과 위연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 두 사람이 각각 본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위나라의 진영을 습격하라."

그러자 위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조진은 병법에 밝은 자이니, 분명 우리가 적의 빈틈을 타서 진영을 습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오히려 조진이 내가 진영을 습격할 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네. 그는 반드시 기산 뒤편에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우리 군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우리 진영을 기습하려 할 것이네. 그래서 내가 그대들 두 사람에게 군사를 이끌고 산기슭을 돌아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으로 가 있으라고 명하는 것이네. 위나라 군사가 우리 진영을 습격하러 올 때, 불길이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아 두 갈래로 군사를 나누게나. 위연은 산길 입구를 막아 적을 저지하고, 조운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적을 치게. 조운이 위나라 군사와 맞닥뜨리면 일부러 그들을 놓아주어 퇴각하게 만들게나. 그때 위연이 기세를 몰아 공격하면, 위나라 군사들은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될 것이니 반드시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네."

두 장수는 계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이어 제갈량은 관흥과 장포를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기산의 요충지에 매복하라. 위나라 군사를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둔 뒤, 그들이 왔던 길을 따라 위나라 진영으로 거침없이 돌격하라."

두 장수도 명령을 받고 떠났다. 또한 마대, 왕평, 장익, 장익 네 장수에게는 진영 밖에 매복하여 사방에서 위나라 군사를 맞이해 공격하라고 일렀다. 제갈량은 진영의 울타리를 허술하게 세우고 가운데에는 땔

감을 쌓아 두어 불신호에 대비하게 한 뒤,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진영 뒤편으로 몰려나 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한편, 위나라의 선봉장 조준과 주찬은 해가 저물자 진영을 떠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밤 두 시경이 되었을 무렵, 왼쪽 산앞에서 병사들이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어렴풋이 보였다. 조준은 속으로 '곽회 부도독은 참으로 신묘한 계책을 가졌구나!'라고 감탄하며 서둘러 군사를 몰아 전진했다. 촉나라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세 시경이었다. 조준이 먼저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그곳은 아무도 없는 빈 진영이었다. 계책에 빠졌음을 직감한 조준이 급히 군사를 돌려 퇴각하려 하자 진영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뒤이어 도착한 주찬의 군사들은 불길과 혼란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바람에 인마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준과 주찬이 서로 말을 맞대고 싸우다 보니,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짓밟으며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급히 병력을 합치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왕평, 마대, 장익, 장익이 들이닥친 것이다. 조준과 주찬은 심복 기병 백여 명을 이끌고 큰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갑자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그 앞장선 대장은 바로 상산의 조운이었다. 조운이 크게 외쳤다. "적장들은 어디로 가느냐! 어서 죽음을 받아라!" 조준과 주찬은 길을 뚫고 도망치려 했으나, 다시 함성이 터져 나오며 위연이 이끄는 또 다른 군사가 습격해 왔다. 조준과 주찬은 대패하여 겨우 본진으로 도망쳤다. 본진을 지키던 병사들은 촉나라 군사가 습격해 온 줄로만 알고 황급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때 왼쪽에서는 조진이, 오른쪽에서는 곽회가 들이닥치며 서로 엉켜 싸우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뒤로 촉나라 군사 세 갈래가

몰려왔다. 중앙에는 위연, 왼쪽에는 관흥, 오른쪽에는 장포가 나타나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위나라 군사는 십여 리를 패퇴하며 도망쳤고, 죽은 위나라 장수도 매우 많았다. 제갈량이 대승을 거둔 뒤에야 비로소 군사를 거두었다. 조진과 곽희는 패배한 군사를 수습해 진영으로 돌아와 의논했다. "지금 우리 위나라 군사는 세력이 고립되었고 촉나라 군사는 기세가 대단하니, 어떻게 물러나야 하겠는가?" 그러자 곽희가 말했다. "승패는 병가상사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촉나라 군사가 앞뒤를 돌볼 겨를이 없게 만들면 분명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가련한 위나라 장수들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서쪽으로 구원병을 구하려 애쓰는구나. 과연 그 계책이 무엇일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4회 — 제갈량이 눈 속에서 강족 병사를 격파하고, 사마의가 기일을 놓치지 않고 맹달을 사로잡다

諸葛亮乘雪破羌兵 司馬懿剋日擒孟達

한편, 곽회가 조진에게 말했다. "서량 강족은 태조(조조) 시절부터 매년 공물을 바쳐왔고, 문황제(조비)께서도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험한 지형을 거점으로 삼아, 사람을 보내 셋길로 강족에게 직접 구원을 요청하고 화친을 약속한다면, 강족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촉나라의 뒤를 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앞뒤로 협공한다면, 어찌 크게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조진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족에게 서신을 보냈다.

한편, 서량 강족의 국왕 철리길은 조조 시절부터 매년 조공을 바쳐왔다. 그의 수하에는 문관인 야단 승상과 무관인 월길 원수가 있었다. 위나라 사절이 금과 구슬, 그리고 서신을 가지고 강족의 나라에 도착하

자, 먼저 야단 승상을 찾아가 예물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뜻을 상세히 전했다. 야단은 국왕을 뵙고 서신과 예물을 올렸다. 철리길은 서신을 읽어본 뒤 사람들을 모아 상의했다. 야단이 말했다. "우리 강족은 평소 위나라와 교류해 왔습니다. 지금 조진 도독이 도움을 요청하며 화친까지 제안했으니, 마땅히 응해야 합니다." 철리길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여, 야단과 월길 원수에게 강족 병사 15만 명을 일으키라고 명했다. 이들은 모두 활과 화살, 창과 칼, 가시 돋친 철구와 철퇴 같은 무기를 다루는 데 능숙했다. 또한 철판을 덧대고 못을 박은 전차를 사용했는데, 이 전차에는 식량과 무기, 각종 물자를 실었다. 전차를 끌 때는 낙타를 쓰기도 하고 노새나 말을 쓰기도 하여 이를 '철차병'이라 불렀다. 두 장수는 국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군사를 이끌어 곧장 서평관을 공격했다.

서평관을 지키던 촉나라 장수 한정이 급히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가서 강족의 군사를 물리겠느냐?" 그러자 장포와 관흥이 나서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너희 둘이 가기에는 길이 익숙하지 않구나." 그러고는 마대를 불러 말했다. "너는 평소 강족의 성질을 잘 알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으니, 길잡이가 되어주어라." 제갈량은 곧 정예병 5만 명을 일으켜 관흥, 장포와 함께 보냈다. 관흥과 장포가 군사를 이끌고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강족 군사와 맞닥뜨렸다. 관흥이 먼저 기병 100여 명을 이끌고 언덕에 올라 살펴보니, 강족 군사들이 철차를 앞뒤로 길게 이어 붙이고 곳곳에 진영을 치고 있었다. 철차 위에는 병기들이 가득 놓여 있어 마치 성벽과도 같았다. 관흥은 이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으나 적을 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진영으로

돌아와 장포, 마대와 상의했다. 마대가 말했다. "우선 내일 진영을 마주했을 때 적의 허실을 살핀 뒤에 다시 계책을 세웁시다." 다음 날 아침,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관흥이 가운데에 서고 장포가 왼쪽, 마대가 오른쪽에 서서 세 갈래로 나란히 진격했다. 강족 군사 진영에서 원수 월길이 철퇴를 손에 들고 허리에는 보물로 만든 활을 찬 채 말을 달려 용맹하게 튀어나왔다. 관흥이 세 갈래 군사에게 곧장 진격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강족 군사들이 양옆에 늘어서더니, 중앙에서 철차를 밀어내며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몰려왔다. 그와 동시에 활과 노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촉나라 군사는 크게 패했다. 마대와 장포의 두 부대는 먼저 퇴각했으나, 관흥의 부대는 강족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북서쪽 모퉁이 위로 밀려 올라가고 말았다.

관흥은 포위망 한가운데에서 좌충우돌하며 빠져나가려 애썼으나, 철차병들이 촘촘하게 에워싸는 모습이 마치 성벽과도 같아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촉나라 병사들은 서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다. 관흥은 산골짜기 사이로 길을 찾아 달려보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 멀리서 검은 깃발 무리가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강족 장수 하나가 철퇴를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어린 장수는 거기 서라! 내가 바로 월길 원수다!" 관흥은 급히 앞으로 나아가 말에 채찍질을 하며 전력을 다해 달렸다. 골짜기 사이의 개울을 막 건너려던 찰나,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월길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관흥은 결국 겁에 질려 적을 당해낼 재간이 없자 골짜기 안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월길이 뒤쫓아와 철퇴를 내리쳤으나 관흥이 간신히 몸을 피하는 바람에, 철퇴는 관흥의 말 뒷다리를 정통으로 때렸다. 말이 골짜기 아래로 고꾸라지는 바람에 관흥도 물속으로 떨어

졌다.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쫓아오던 월길이 말과 함께 물속으로 맥없이 쓰러졌다. 관흥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살펴보니, 언덕 위에서 한 대장군이 강족 병사들을 물리치고 있었다. 관흥이 칼을 들고 월길을 베려 하자, 월길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쳐 버렸다. 관흥은 월길이 타고 있던 말을 얻어 언덕으로 끌어올린 뒤, 안장과 고삐를 정돈하고 칼을 챙겨 다시 말에 올랐다. 저 멀리서 그 장수가 여전히 강족 병사들을 추격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관흥은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반드시 만나 인사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말을 달려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구름과 안개 사이로 한 대장군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붉은 대추 빛갈 같은 얼굴에 누운 누에 같은 눈썹, 초록색 도포에 금빛 갑옷을 입고 청룡도를 든 채 적토마를 타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수염을 늘어뜨린 모습이 분명 아버지 관우였다. 관흥은 크게 놀랐다. 그때 갑자기 관우가 손을 들어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들이, 어서 이 길로 가거라. 내가 너를 지켜 진영까지 데려다주마." 말을 마치자마자 관우의 모습은 사라졌다. 관흥은 즉시 동남쪽을 향해 급히 달렸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왔는데 바로 장포였다. 장포가 관흥에게 물었다. "혹시 둘째 숙부님을 뵈지 못했느냐?" 관흥이 되물었다. "그건 어찌 알고 묻느냐?" 장포가 대답했다. "내가 철차병들에게 쫓겨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숙부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강족 병사들을 놀라게 하며 쫓아버리셨다. 그러고는 '이 길로 가서 내 아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너를 찾아온 것이다." 관흥도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두 사람은 서로 신기해하며 감탄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마대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말했다. "이 군대는 물러날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진영을 지킬 테니,

두 분은 어서 승상께 가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계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에 관흥과 장포는 밤을 도와 제갈량을 찾아가 이번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은 명을 내려 조운과 위연에게 각각 한 군씩 이끌고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3만 군사를 거느리고 강유, 장익, 관흥, 장포를 데리고 직접 마대의 진영으로 가서 머물렀다. 다음 날 높은 언덕에 올라 살펴보니, 철차병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인마가 종횡무진하며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저들은 깨뜨리기가 어렵지 않다." 그는 마대와 장익을 불러 이렇게 저렇게 지시했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제갈량이 강유를 불러 물었다. "백약, 그대는 철차를 깨뜨리는 법을 아는가?" 강유가 대답했다. "강족은 오직 용맹함만을 믿을 뿐, 어찌 묘책을 알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지금 붉은 구름이 뽁뽁하게 드리우고 북풍이 매섭게 부는 것을 보니 곧 눈이 내릴 모양이다. 이제 내 계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제갈량은 즉시 관흥과 장포 두 사람에게 군사를 이끌고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강유에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게 하되, 철차병이 오면 즉시 뒤로 물러나 도망치는 척하라고 명령했다. 진영 입구에는 깃발만 허술하게 세워두고 군마를 배치하지 않도록 준비를 마쳤다.

때는 마침 12월 말이 되어,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큰 눈이 쏟아졌다.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나, 월길에 철차병을 이끌고 들이닥치자 강유는 즉시 퇴각했다. 강족 병사들이 진영 앞에 도착했을 때, 강유는 이미 진영 뒤쪽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강족 병사들이 진영 밖에서 살펴보니, 진영 안에서는 거문고 소리가 들려오고 사방에는 깃발만 덩

그러니 세워져 있을 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급히 월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월길은 의심이 생겨 감히 함부로 진격하지 못했다. 이에 승상 야단이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의 계책입니다. 허술하게 병사들을 세워둔 것뿐이니 공격해도 됩니다." 월길이 군사를 이끌고 진영 앞에 이르니, 제갈량이 거문고를 들고 수레에 올라타 기병 몇 명과 함께 진영 안으로 들어가 뒤를 보며 달려가는 모습만 보였다. 강족 병사들이 진영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갔으나, 산길을 지나쳐 가다 보니 작은 수레들이 숲속으로 은밀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야단이 월길에게 말했다. "이런 병사들에게 매복이 있다 한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대군을 이끌고 추격했다. 눈 덮인 벌판 위로 강유의 군사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월길은 크게 노하여 병사들을 재촉하며 급히 뒤쫓았다. 눈이 쌓여 산길이 평지처럼 보일 정도였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촉나라 군사가 산 뒤쪽에서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야단은 "설령 저런 소수의 매복군이 있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외치며 병사들을 재촉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강족 병사들이 모두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뒤따라오던 철차들은 속도가 붙어 멈추기가 어려웠고, 서로 엉키며 짓밟히기 시작했다. 뒤에 있던 병사들이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오른쪽에서는 장포가, 왼쪽에서는 관흥이 양쪽 군사를 이끌고 튀어나와 만 개의 노를 일제히 쏘아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뒤쪽에서는 강유, 마대, 장익이 이끄는 세 갈래 군사까지 들이닥쳤다. 철차병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원수 월길이 뒤편 산골짜기를 향해 도망치려다 마침 관흥과 맞닥뜨렸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맞붙어 싸우던 중, 관흥이 칼을 높이 들고 크게 호통을 치며 내리치자 월길은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승상 야단은 이미 마

대에게 생포되어 큰 진영으로 압송되었다. 강족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제갈량이 막사에 자리하니, 마대가 야단을 끌고 왔다. 제갈량은 무사에게 명령해 야단의 포박을 풀게 하고,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며 친절하게 타일렀다. 야단은 제갈량의 덕망에 깊이 감동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의 주군은 한나라의 황제이시다. 지금 나에게 적을 토벌하라 명하셨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역적을 돕는가? 내가 이제 그대를 돌려보낼 터이니, 그대의 군주에게 전하라. 우리나라는 그대들의 이웃 나라로서 영원히 동맹을 맺고 지낼 것이니, 역적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사로잡은 강족 병사들과 수레, 말, 무기들을 모두 야단에게 돌려주어 고국으로 보내주었다. 모두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두 군사를 이끌고 밤을 도와 기산의 큰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관흥과 장포에게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표문을 올려 승전보를 알리게 했다.

한편, 조진은 연일 강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길목을 지키던 군사로부터 "촉나라 군사가 진영을 걷고 출발했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광회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강족이 공격하는 바람에 저들이 물러나는 것이니, 즉시 두 갈래로 나누어 추격하라."

조진과 광회는 두 길로 나누어 촉군을 뒤쫓았다. 앞서가던 촉군이 어지럽게 도망치자 위나라 군사들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선봉장 조진이 한창 추격하던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위연이었다.

위연이 크게 외쳤다. "반역자 놈들아, 게 서라!" 조준은 깜짝 놀라 말에 채찍질을 하며 맞서 싸웠으나,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위연의 칼날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부선봉 주찬이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가는데, 또다시 한 무리의 군사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 전투에 선 장수는 바로 조운이었다. 주찬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조운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조진과 곽회가 두 선봉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려 할 때, 뒤쪽에서 갑자기 거대한 함성과 함께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흥과 장포가 이끄는 두 갈래 군사가 들이닥쳐 조진과 곽회를 에워싸고 몰아붙이며 크게 격파했다. 조진과 곽회는 패잔병을 이끌고 겨우 길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다.

촉나라 군사는 대승을 거두어 위수까지 추격하며 위나라의 진영을 탈취했다. 조진은 선봉장 두 명을 잃은 슬픔에 잠긴 채, 조정에 서신을 보내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위나라 황제 조예가 조회를 열었을 때 근신이 나아가 보고했다. "대도독 조진이 촉나라를 상대로 여러 차례 패하며 선봉장 두 명을 잃었고, 강족 병사들도 셀 수 없이 죽어나가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이제 조진이 구원 요청을 올렸으니, 폐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조예는 크게 놀라 급히 퇴각할 방책을 물었다. 그러자 화흠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제후들을 소집하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해야만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안을 잃고 관중 지역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태부 종요가 말을 이었

다. "무릇 장수란 그 얹이 남보다 뛰어나야 남을 제압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조진이 비록 오랫동안 군사를 다루어 왔으나 제갈량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신이 온 집안 식구의 목숨을 걸고 인재 한 명을 추천하오니, 그를 쓰면 촉나라 군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예가 말했다. "경은 나라를 지탱해 온 원로 신하가 아니오? 어떤 현사가 촉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오? 어서 불러 나를 도와주게 하시오." 종요가 다시 아뢰었다. "예전에 제갈량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침범하려 했을 때, 오로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폐하께서 그를 의심해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갈량이 거침없이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그를 등용한다면 제갈량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조예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종요가 대답했다. "표기대장군 사마의입니다." 조예가 탄식하며 말했다. "이 일은 나 또한 후회하고 있소. 지금 사마의는 어디에 있소?" 종요가 말했다. "듣기로 사마의는 지금 완성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예는 즉시 조서를 내려 사절에게 절(節)을 들려 보내 사마의의 관직을 복구시켰다. 또한 그를 평서도독으로 임명하여 남양의 모든 군마를 일으켜 장안으로 가게 했다. 조예 또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서며, 사마의에게 정해진 날짜에 그곳에서 만나기로 명했다. 사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마의가 있는 완성으로 달려갔다.

한편, 제갈량은 출사 이후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기산 진영에서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영안궁을 지키는 이엄의 아들 이풍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

왔다. 제갈량은 동오의 군대가 국경을 침범한 줄 알고 몹시 놀라며 그를 장막 안으로 불러 물었다.

이퐁이 말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무슨 기쁜 소식이나?"

이퐁이 대답했다. "예전에 맹달이 위나라에 항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비가 그의 재능을 아껴 준마와 금주를 내리고 수레를 함께 탈 정도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또한 산기상시로 봉하고 신성태수로 임명하여 상용과 금성 등을 지키게 하며 서남쪽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하자 조정의 많은 이가 그를 시기하여 맹달은 밤낮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늘 장수들에게 '나는 본래 촉나라 장수인데 형편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심복들을 여러 차례 보내어 제 아버님께 서신을 전하게 하며, 승상께 이 사실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다섯 길로 사천을 공격할 때도 이미 이런 뜻이 있었으나, 지금 신성에 있으니 승상께서 위나라를 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금성, 신성, 상용의 군마를 일으켜 승상을 도와 거사를 도모하고 곧장 낙양을 취하고자 합니다. 승상께서 장안을 얻으시면 두 수도가 모두 안정될 것입니다. 이에 제가 사람들과 서신을 가져왔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이퐁 등에게 두터운 상을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첩자가 들어와 보고하기를, "위나라 황제 조예가 한편으로는 장안으로 행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마의를 복직시켜 평서도독으

로 삼고 이곳의 군사를 일으켜 장안에서 집결하게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자, 참군 마속이 말했다. "조예 따위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장안으로 온다면 그대로 잡아버리면 그만인데, 승상께서 어찌하여 이토록 놀라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어찌 조예를 두려워하겠느냐? 오직 사마의 한 사람만이 걱정일 뿐이다. 지금 맹달이 큰 거사를 도모하려는데, 만약 사마의와 마주친다면 일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맹달은 사마의의 상대가 되지 못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니, 맹달이 죽고 나면 중원을 얻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마속이 말했다. "어서 서신을 보내 맹달에게 대비하라고 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갈량은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즉시 서신을 써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맹달에게 전하도록 했다.

한편, 맹달은 신성에서 심복이 소식을 가져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복이 도착하여 제갈량이 보낸 답장을 바쳤다. 맹달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답장을 잘 받았소. 그대가 옛 인연을 잊지 않고 충의를 다하려는 마음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위로가 되오. 만약 대사를 이룬다면 그대는 한나라 중흥의 제일가는 공을 세우게 될 것이오. 다만 모든 일을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처리해야 하며, 절대로 가볍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오. 부디 조심하고 또 경계하시오! 최근 듣기로 조예가 사마의에게 명하여 완성과 낙양의 군사를 다시 일으켰다 하니, 만약 그대가 거사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마의가 반드시 먼저 도착할 것이오. 그러니 반드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오."

맹달은 글을 다 읽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제갈량이 꾀가 많다고 하더니, 이번 일을 보니 정말 알겠구나."

그리고는 곧바로 답장을 써서 심복을 통해 제갈량에게 보내게 했다. 제갈량은 심복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심복이 답장을 바치자 제갈량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살펴보았다. 답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가르침을 받들었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마의의 일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에서 낙양까지는 약 800리이고, 신성까지는 1,200리나 됩니다. 사마의가 소식을 듣고 일을 도모한다 해도 반드시 위나라 황제에게 보고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왔다 갔다 하는 한 달 사이에 이미 성들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여러 장수와 삼군 대군도 모두 험한 요새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의가 설사 온다 한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승상께서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오직 승전보만을 기다리십시오."

제갈량이 글을 다 읽고는 서신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을 동동 굴렀다. "맹달은 필시 사마의의 손에 죽고 말 것이로다!"

마속이 물었다. "승상,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생각지 못한 때를 찔러라'라고 했다. 어찌 한 달이라는 기한을 두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조예가 이미 사마의에게 임무를 맡겼으니, 반란이 일어나면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진압할 것이다. 만약 맹달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군대가 들이닥칠 터인데, 그때 가서 어찌 손을 쓸 수 있겠느냐?"

장수들은 모두 제갈량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제갈량은 급히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만약 아직 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절대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알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절을 하고 신성으로 돌아갔다.

한편, 사마의는 완성에 머물고 있다가 위나라 군대가 촉나라 군대에 게 연이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사마의의 장남은 사마사로 자는 자원(子元)이고, 차남은 사마소로 자는 자상(子尚)이었다. 두 사람은 평소 큰 뜻을 품고 병법에 능통했다. 그날 곁에서 모시고 있던 두 아들이 사마의가 탄식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탄식하십니까?" 사마의가 말했다. "너희가 어찌 대사를 알겠느냐?" 그러자 사마사가 물었다. "혹시 위나라 황제께서 쓰임 받지 못함을 한탄하시는 것입니까?" 사마소가 웃으며 말했다. "조만간 반드시 아버지를 부르러 올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황제의 사자가 칙령을 들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의는 조서를 다 읽은 뒤 곧바로 완성의 모든 군마를 동원했다. 그때 또다시 금성 태

수 신의의 가족이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찾아왔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사마의가 그들을 밀실로 불러들여 자세히 물으니,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게다가 맹달의 심복인 이보와 맹달의 조카 등현까지 가세하여 이 사실을 고발했다. 사마의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이것은 황제 폐하께 하늘과 같은 큰 복이로다! 제갈량이 기산에 군사를 몰아 안팎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하필 천자께서 어쩔 수 없이 장안으로 행차하신 상황이 아니냐. 만약 조만간 나를 쓰지 않고 맹달이 한바탕 일을 일으켰다면, 두 도읍지가 단숨에 무너졌을 것이다! 이 역적은 분명 제갈량과 내통하고 있을 터이니, 내가 먼저 그를 사로잡으면 제갈량도 분명 마음이 위축되어 스스로 군사를 물릴 것이다." 장남 사마사가 말했다. "아버지, 어서 황제 폐하께 상소문을 써서 올리셔야 합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성지를 기다리다가는 왕복하는 데 한 달이 걸릴 것이니, 그때는 이미 늦는다." 사마의는 즉시 군마를 출발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며, 하루에 이틀 치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지체하는 자는 즉시 처형하라고 엄히 일렀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군 양기를 보내 급히 격문을 들고 신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맹달 등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곧바로 정벌하러 가는 것처럼 꾸몄다.

양기는 먼저 출발하고, 사마의는 뒤이어 군사를 일으켰다. 이틀을 나아갔을 때, 산비탈 아래에서 한 군대가 나타났는데 바로 우장군 서황이었다. 서황은 말에서 내려 사마의를 보고 말했다.

"천자께서 장안으로 행차하여 촉나라 군대를 직접 막아내고 계신데, 지금 도둑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사마의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맹달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그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네."

서황이 말했다.

"제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사마의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를 한데 모았다. 서황이 전방을 맡고 사마의가 중군을 이끌었으며, 사마의의 두 아들이 후방을 지켰다. 다시 이들을 더 나아가자, 전방의 정찰병들이 맹달의 심복을 붙잡았는데, 그에게서 제갈량이 보낸 서신을 찾아내 사마의에게 가져왔다.

사마의가 말했다.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 보아라."

그 심복은 어쩔 수 없이 제갈량과 맹달이 주고받은 일을 하나하나 고했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서신을 읽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세상의 유능한 자들은 보는 눈이 다 같구나. 내가 미리 움직이기도 전에 제갈량에게 간파당하고 말았어. 다행히 천자께 복이 있어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맹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을 마친 사마의는 즉시 밤을 도와 군사를 재촉해 나아갔다.

한편, 맹달은 신성에 머물며 금성태수 신의와 상용태수 신담을 만나 날을 잡아 거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했다. 신의와 신담은 겉으로는 응낙하며 매일 군마를 훈련시켰는데, 이는 위나라 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

다려 안에서 호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맹달에게는 무기와 군량미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감히 거사 날짜를 정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맹달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참군 양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맹달은 그를 성 안으로 맞이했다. 양기가 사마의의 명령을 전하기를, "사마 도독께서 지금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여러 길의 군사를 일으켜 촉나라 군대를 물리치려 하신다. 태수는 본부의 군마를 집결시켜 명령을 기다리라"고 했다. 맹달이 "도독께서는 언제 출발하십니까?"라고 묻자, 양기가 "지금 막 완성에서 출발하여 장안으로 향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맹달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내 대업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맹달은 곧바로 양기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성 밖까지 배웅한 뒤, 신의와 신담에게 내일 거사를 일으키겠다고 알렸다. 그는 대한의 깃발로 바꾸어 달고 여러 갈래의 군마를 출동시켜 곧장 낙양을 점령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 밖에서 먼지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며 정체 모를 군대가 몰려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맹달이 성루에 올라 살펴보니, '우장군 서황'이라는 깃발을 내건 한 무리의 군사가 성 아래로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맹달은 급히 조교를 들어 올려 성문을 막았다. 서황은 타고 있던 말이 제어가 되지 않아 그대로 해자 근처까지 달려온 상태였는데, 그는 크게 외쳤다. "반역자 맹달은 어서 항복하라!" 맹달은 크게 화가 나 급히 활을 당겨 쏘았고, 화살은 서황의 이마에 명중했다. 위나라 장수들이 급히 서황을 구출해냈다. 성 위에서 화살이 빗발치자 위나라 군사들은 일단 물러났다. 맹달이 성문을 열고 추격하려던 찰나, 사방

에서 깃발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가득 차더니 사마의의 군대가 도착했다. 맹달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과연 제갈량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는 결국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들어갔다.

한편, 서황은 맹달이 쏜 화살에 이마를 맞았다. 부하들이 서둘러 그를 구출해 진영으로 데려와 화살촉을 뽑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으나, 그날 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향년 스아홉이었다. 사마의는 사람을 보내 관을 낙양으로 옮겨 장사 지내게 했다. 다음 날, 맹달이 성 위에 올라 주위를 살펴보니 위나라 군사들이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어 마치 철통처럼 빈틈이 없었다. 맹달은 마음이 불안해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공포와 의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갑자기 두 갈래의 군사가 밖에서 들이닥쳤는데, 깃발에는 '신담'과 '신의'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맹달은 그저 구원군이 도착한 줄로만 알고, 서둘러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그러자 신담과 신의가 크게 외쳤다. "반역자는 도망가지 마라! 어서 죽음을 맞이해라!" 상황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맹달은 말을 돌려 성 안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 위에 있던 이보와 등현은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이미 성을 바꿨다!" 맹달이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도망치려 할 때 신담이 뒤쫓아 왔다. 맹달은 지친 말과 기력이 다한 몸으로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응할 겨를이 없었다. 결국 신담의 창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고, 신담은 그의 머리를 베었다. 남은 군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이보와 등현은 성문을 활짝 열어 사마의를 맞이했다. 사마의는 백성들을 다독이고 군사들을 격려하는 일을 마친 뒤,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승전보를 올렸다.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맹달의 머리를 낙양으로 보내 성안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라고 명령했다. 또한 신담과 신의에게 관직을 내리고 사마의를 따라 출정하게 했으며, 이보와 등현에게는 신성과 상용을 지키도록 명했다.

한편, 사마의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 성 밖까지 가서 진을 쳤다. 사마의가 성 안으로 들어가 위나라 황제 조예를 알현하자,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짐이 잠시 사리에 어두워 반간계에 빠지고 말았으니, 이제 와 후회해도 소용이 없구나! 지금 맹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경들이 이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양쪽 수도가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다." 사마의가 아뢰었다. "신의가 맹달의 반란 계획을 밀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폐하께 보고하려 했으나 오가는 시간이 지체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를 기다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만약 보고를 기다렸다면 제갈량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사마의는 맹달이 제갈량에게 보냈던 비밀 편지를 조예에게 올렸다. 조예는 편지를 다 읽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경의 식견은 손무와 오기보다도 뛰어나도다!" 조예는 사마의에게 황금 부월(斧鉞) 한 쌍을 하사하며, 앞으로 기밀하고 중대한 일이 생기면 굳이 보고하지 말고 편의를 따라 직접 처리하라고 명했다. 이어 사마의에게 관문을 나가 촉나라 군대를 격파하라고 명령했다. 사마의가 아뢰었다. "신이 큰 장수 한 명을 추천하오니, 그를 선봉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예가 물었다. "경은 누구를 추천하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우장군 장합이 이 임무를 맡기에 적임자입니다." 조예가 웃으며 말했다. "짐도 마침 그를 쓰려던 참이었네." 그리하여 장합을 전군 선봉으로 삼아 사마의를 따라 장안을 떠나 촉나라 군대를 치러 나섰다. 지혜

로운 모사로 지락을 펼치고, 용맹한 장수로 위세를 떨치려 하니,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95회 — 마속이 간언을 거부하여 가정을 잃고, 무후가 거문고를 타서 중달을 물리치다

馬謖拒諫失街亭 武侯彈琴退仲達

한편, 위나라 황제 조예는 장합을 선봉으로 삼아 사마의와 함께 출정하게 했다. 동시에 신비와 손례 두 사람에게 병사 5만 명을 주어 조진을 도우러 가게 했다. 두 사람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곧장 길을 떠났다.

한편, 사마의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관문을 나와 진을 쳤다. 그는 선봉인 장합을 장막으로 불러 말하였다.

“제갈량은 평소 매우 신중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인물이다. 만약 내가 군사를 부린다면 진작에 자오곡을 통해 장안을 곧장 점령했을 것이다. 그에게 계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실수할까 두려워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반드시 사곡으로 군사를 내어 미성을 취할 계획이다. 미성을 취하려면 반드시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

어야 하는데, 한 부대는 기곡을 점령해야 한다. 나는 이미 격문을 보내 자단(조진)에게 미성을 지키게 하되, 적군이 오더라도 함부로 맞서 싸우지 말라고 명했다. 또한 손례와 신비에게는 기곡의 길목을 차단하게 하여, 적이 오면 기습하여 격파하라고 일러두었다.”

장합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이제 어디로 진군하실 계획입니까?”

사마의가 대답했다.

“내가 평소 알기로 진령산맥 서쪽에 가정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곁에 열류성이라는 성이 있다. 이 두 곳은 모두 한중으로 들어가는 요충지다. 제갈량은 자단(조진)이 대비하지 못한 점을 틈타 반드시 이 길로 진격할 것이다. 나와 그대가 곧장 가정을 점령하면 양평관까지 멀지 않다. 만약 제갈량이 우리가 가정의 요충지를 끊고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농서 지역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밤을 도와 한중으로 퇴각할 것이다. 그가 퇴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셋길로 기습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고, 만약 돌아가지 않고 버틴다면 내가 모든 셋길을 막고 병사들을 배치해 지키게 할 것이다. 한 달 동안 식량이 끊기면 촉나라 군사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니, 제갈량은 반드시 내 손에 잡힐 것이다.”

장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도독의 계산은 참으로 신묘하십니다!”

사마의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제갈량은 맹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다. 장군은 선봉을 맡았으니 절대로 경솔하게 진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장수들에게도 전하라. 산의 서쪽 길을 따라 멀리서부터 정찰을 철저히 하라고 말이다. 만약 매복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전진해야 한다. 만약 방심한다면 반드시 제갈량의 계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장합은 이 계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 진영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신성에서 정찰해 온 사람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이 급히 그를 불러 물으니, 정찰병이 보고했다.

“사마의가 이틀 길을 하루에 가는 강행군으로 여드레 만에 신성에 도착했습니다. 맹달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신담, 신의, 이보, 등현이 안에서 내응하는 바람에 맹달은 난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금 사마의는 군사를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가 위나라 황제를 만났으며, 장합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나와 우리 군사를 막으러 오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맹달이 일을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니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 사마의가 관문을 나온다면 반드시 가정을 점령하여 우리 군의 숨통을 끊으려 할 것이다.”

이어 제갈량이 물었다.

“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정을 지키겠는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군 마속이 나섰다.

“소인이 가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가정은 비록 작은 곳이나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만약 가정을 잃는다면 우리 대군은 모두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대가 비록 모략에는 밝으나, 그곳은 성곽도 없고 험준한 지형도 없어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마속이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서를 익혀 병법에 매우 밝습니다. 어찌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사마의는 예사 인물이 아니다. 게다가 선봉인 장합은 위나라의 명장이니, 그대가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까 두렵다.”

마속이 외쳤다.

“사마의나 장합은커녕 조예가 직접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잘못된다면 제 온 가족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군대 안에서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마속이 말했다.

“군령장을 쓰겠습니다.”

제갈량이 이를 허락하자, 마속은 즉시 군령장을 써서 올렸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에게 정예병 2만 5천 명을 주겠으니, 장수 한 명을 더 붙여주어 그대를 돕게 하겠소.” 그러고는 곧바로 왕평을 불러 분부했다. “나는 평소 그대가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중책을 특별히 맡기는 것이오. 부디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시오. 이곳에 진을 치는 곳은 반드시 길목이 되는 요충지여야 하니, 적군이 급히 몰려와도 결코 몰래 지나치지 못하게 해야 하오. 진영을 다 갖춘 후에는 사방의 지형과 형세를 그린 지도를 그려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일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하게 진행해야 하며, 결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오. 만약 지키는 곳이 위태롭지 않다면, 장안을 탈환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오!” 두 사람이 절을 하고 병사를 이끌고 떠나자, 제갈량은 혹시나 두 사람이 실수할까 걱정이 되어 다시 고상을 불러 말했다. “가정 동북쪽 위로 올라가면 열류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은 곳이라 병사를 주둔시키기에 적당하오. 그대에게 병사 1만 명을 줄 테니 그 성에 진을 치시오. 다만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즉시 병사를 이끌고 구하러 가야 하오.” 고상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고상이 장합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가정 오른쪽에 병사를 주둔시켜 방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장급 장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

연을 불러 본대 병력을 이끌고 가정 뒤편에 진을 치게 했다. 위연이 말했다. “저는 전방을 맡은 장수로서 당연히 적을 먼저 격파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저를 안락한 곳에 두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전방에서 적을 격파하는 것은 편장과 비장 같은 부장이 할 일일 뿐이요. 지금 그대에게 가정을 지원하도록 명하는 것은, 그곳이 양평관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이자 한중의 목구멍과 같은 곳을 지키는 중책이기 때문이요. 어찌 안락한 곳이라 하겠소? 부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어 나의 큰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반드시 마음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오!”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이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조운과 등지를 불러 분부했다. “지금 사마의가 출병한 것은 예전과 다르오. 그대들 두 사람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기곡으로 나가 의병(疑兵)으로 삼으시오. 위나라 군사를 만나면 싸우기도 하고 싸우지 않기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흔들여 놓아야 하오. 나는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사곡을 거쳐 곧장 미성으로 치고 들어갈 것이요. 미성을 얻으면 장안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요.” 두 사람이 명을 받고 떠나자, 제갈량은 강유를 선봉으로 삼아 사곡으로 출정하게 했다.

한편, 마속과 왕평 두 사람이 가정에 도착하여 지세를 살펴보았다. 마속이 웃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어찌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 이 산은 구석진 곳이라 위나라 군사가 감히 올 수 없을 것이네!”

왕평이 말했다. “비록 위나라 군사가 감히 오지 못한다 해도, 이곳은 다섯 갈래 길이 만나는 요충지이니 반드시 이곳에 진을 쳐야 합니다. 곧바로 군사들에게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세우게 하여 장기적인 계책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속이 대답했다. “길목이 어찌 진을 칠 만한 곳이 되겠는가? 이 산의 옆면을 보면 사방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데다 나무도 아주 울창하니, 이는 하늘이 내린 천혜의 요새라네. 그러니 산 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네.”

왕평이 다시 말했다. “참군님, 틀렸습니다. 만약 길목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벽을 쌓는다면, 적군이 설령 십만 대군이라 해도 몰래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충지를 버리고 산 위에 진을 친다면, 만약 위나라 군사가 갑자기 들이닥쳐 사방을 에워싸 버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마속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계집애 같은 소리만 하는 군!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기세가 대나무를 쪼개듯 거침없다’고 했네. 위나라 군사가 오기만 하면,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네!”

왕평이 말했다. “저는 줄곧 승상을 따라 전장을 누비며, 승상께서 가는 곳마다 직접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산을 보니 이곳은 막다른 곳입니다. 만약 위나라 군사가 우리가 물을 길어오는 길을 끊어버린다면,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마속이 꾸짖었다. “자네는 헛소리를 하지 말게! 손자는 ‘죽을 땅에 몰아넣어야 비로소 살아날 길을 찾는다’고 했네. 만약 위나라 군사가 물길을 끊는다면, 우리 촉나라 군사들이 어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백 명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네. 나는 평소 병법

서를 읽어왔고 승상께서도 여러 가지 일을 내게 묻곤 하시는데, 자네가 어찌 나를 가로막는가?”

왕평이 다시 제안했다. “만약 참군님께서 산 위에 진을 치시겠다면, 병력을 나누어 제게 주십시오. 제가 산 서쪽 아래에 작은 진을 쳐서 서로 돕는 형세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위나라 군사가 왔을 때 서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마속은 끝내 듣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산속 주민들이 무리를 지어 급히 달려오더니, 위나라 군사가 이미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왕평이 물러가려 하자 마속이 말했다. “자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으니, 병사 오천 명을 데리고 가서 알아서 진을 치게나. 내가 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승상 앞에 갔을 때, 자네가 공을 나누어 달라고 해도 소용없을 줄 알게!”

왕평은 병사를 이끌고 산에서 십 리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 진을 쳤다. 그리고 지형을 그려 지도를 만든 뒤, 밤을 도와 사람을 보내 제갈량에게 마속이 산 위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사마의는 성 안에서 아들 사마소에게 앞길을 정찰하러 가라고 명령했다. 만약 가정에 병사가 지키고 있다면 즉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였다. 사마소가 명령을 받들어 정찰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가정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마의가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량은 참으로 신인과 같구나. 내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그러자 사마소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찌하여 스스로 기운을 꺾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정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의가 물었다.

“네가 어찌 감히 그런 큰소리를 치느냐?”

사마소가 대답했다.

“제가 직접 살펴보고 왔는데, 길목에 진영이나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 충분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사마의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만약 정말로 병사들이 산 위에 있다면, 이는 하늘이 나에게 성공을 내려주려는 것이로구나!”

사마의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직접 현장을 살피러 나갔다. 그날 밤은 날이 맑고 달빛이 밝았다. 사마의는 산 아래까지 가서 주변을 한 바퀴 순찰한 뒤에야 돌아왔다.

산 위에 있던 마속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들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운이 있다면 산을 에워싸러 오지 않을 것이다.”

마속은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약 적군이 오거든, 산꼭대기의 붉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즉시 사방에서 내려가 공격하라!”

한편, 사마의가 진영으로 돌아와 누가 병사를 이끌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지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다. 보고가 올라왔다. “마량의 동생인 마속입니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름만 번드르르할 뿐, 쓸모없는 재주꾼일 뿐이구나! 제갈량이 어찌 저런 인물을 써서 일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이어 사마의가 다시 물었다. “가정 좌우에 다른 군대가 있느냐?” 정찰병이 보고했다. “산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왕평의 진영이 있습니다.” 사마의는 즉시 장합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평이 오는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또한 신담과 신의에게 두 갈래 길로 병력을 나누어 산을 에워싸게 하고, 먼저 급수의 물길을 끊어버리게 했다. 촉군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기세를 몰아 공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밤 모든 작전 배치가 끝났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장합이 먼저 병사를 이끌고 뒤쪽으로 이동했다. 사마의도 군마를 크게 몰아 한꺼번에 진격하여 산 사방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마속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위나라 군사들이 산과 들에 가득하여 깃발과 대열이 매우 엄정했다. 촉나라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려 감히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 마속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으나,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미를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속이 크게 노하여 장수 두 명을 처형하자, 그제야 겁에 질린 군사

들이 힘을 다해 산 아래로 내려와 위나라 군사를 향해 돌격했다. 하지만 위나라 군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버텼다. 촉나라 군사들이 다시 산 위로 물러나자, 마속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군사들에게 성문을 굳게 지키며 외부의 지원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왕평이 위나라 군사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으나, 마침 장합과 마주치고 말았다. 수십 합을 싸웠지만 왕평은 힘이 다하고 고립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 했다. 위나라 군사가 진시(오전 7~9시)부터 술시(오후 7~9시)까지 산을 에워싸니, 산 위에는 물도 없고 군사들이 밥도 지어 먹지 못해 진영 안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한밤중이 되자 산 남쪽의 촉나라 군사들이 진영 문을 열고 내려와 위나라에 항복하기 시작했다. 마속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사마의가 다시 사람을 시켜 산줄기를 따라 불을 지르자 산 위의 촉나라 군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마속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남은 병사들을 몰아 산 서쪽으로 급히 도망쳤다. 사마의는 마속을 놓아주려는 듯 큰 길을 열어주었으나, 뒤쫓아온 장합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 장합이 30여 리를 쫓아갔을 때, 갑자기 앞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마속은 지나가게 두고 장합을 가로막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위연이었다. 위연은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장합을 몰아붙였고, 장합은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 가정을 다시 탈환했다. 그러나 50여 리를 더 갔을 때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며 양쪽에서 북병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왼쪽에는 사마의가, 오른쪽에는 사마소가 나타나 위연의 뒤를 포위하여 그를 포위망 한가운데에 가두어 버렸다. 이때 장합이 다시 돌아와 세 갈래의 군사가 한곳으로 모였다. 위연은 좌우로

돌파하며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탈출하지 못하고 병사 태반을 잃었다. 위급한 순간,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바로 왕평이었다. 위연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살았다!” 두 장수가 힘을 합쳐 한바탕 크게 몰아붙이자 위나라 군사들이 겨우 물러갔다. 두 장수가 황급히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진영 안은 이미 위나라 군사의 깃발로 가득했다. 신담과 신의가 진영에서 튀어나와 공격해 왔다. 왕평과 위연은 곧장 열류성으로 달려가 고상에게 몸을 의탁했다.

이때 고상은 가정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열류성에 있던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구원하러 나섰다. 길에서 위연과 왕평을 만난 고상이 그간의 사정을 듣고는 말했다. “차라리 오늘 밤 위나라 진영을 습격한 뒤에 가정을 되찾읍시다.” 세 사람은 산비탈 아래에서 의논하여 계획을 세웠다. 날이 저물 무렵,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었다.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가정에 도착했으나, 적군이 한 명도 보이지 않자 크게 의아해하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목에 매복하여 기다렸다. 그때 고상의 군사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위나라 군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서로 말했다. 한창 정신이 없는 사이에 왕평의 군사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복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다. 위나라 군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와 위연과 고상을 포위했다. 두 사람이 힘껏 맞서 싸웠으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산비탈 뒤쪽에서 천둥 같은 함성이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바로 왕평이었다. 왕평은 고상과 위연 두 사람을 구해낸 뒤 곧장 열류성으로 달려갔다.

성 아래에 다다랐을 때, 이미 성 근처에는 다른 군사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그들의 깃발에는 ‘위나라 도둑 광회’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원래 광회는 조진과 상의하던 중에 사마의가 모든 공을 독차지할까 염려되어, 따로 군사를 나누어 가정을 점령하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사마의와 장합이 이미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열류성을 기습한 것이었다. 마침 세 장수와 맞닥뜨린 광회의 군대는 한바탕 크게 싸웠는데, 촉나라 병사들 중 다친 이가 매우 많았다. 위연은 양평관마저 위험해질까 두려워 서둘러 왕평, 고상과 함께 양평관 쪽을 바라보며 퇴각했다.

한편, 광회가 군마를 수습한 뒤 좌우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비록 가정을 점령하지는 못했으나, 열류성을 얻었으니 이 또한 큰 공이다.” 광회는 곧장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성 위에서 포성 한 번이 울리더니 깃발들이 일제히 솟아올랐고, 정면에 ‘평서도둑 사마의’라고 적힌 커다란 깃발이 나타났다. 사마의는 성벽에 설치한 가설 판 위에서 보호용 난간에 기대어 앉아 크게 웃으며 말했다. “광백제가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광회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중달의 신묘한 계책을 내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고는 곧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마친 뒤 사마의가 말했다. “지금 가정을 잃었으니 제갈량은 반드시 도망칠 것이다. 그대는 자단(조진)과 함께 밤을 도와 신속히 그를 추격하라.” 광회가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성을 나갔다. 사마의가 장합을 불러 말했다. “자단과 백제(광회)가 내가 모든 공을 독차지할까 두려워하여 이 성을 먼저 차지하러 온 모양이다. 나는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 짐작에 위연, 왕평, 마속, 고상 등이 반드시 먼저 양평관으로 가서 거점을 잡을 것이

다. 만약 내가 저 관문을 치러 간다면 제갈량이 반드시 뒤를 따라와 나를 몰아넣고 그 계책에 빠뜨릴 것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퇴각하는 군대는 뒤를 쫓지 말고, 막다른 곳에 몰린 적도 쫓지 말라’고 했다. 그대는 작은 길을 통해 기곡으로 우회하여 퇴각하는 병력을 이끌고 가라. 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곡의 적을 상대하겠다. 만약 저들이 패해서 달아난다면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중간에서 길목을 막아라. 촉나라 군대의 군수 물자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합이 이 계책을 받아들여 군사의 절반을 이끌고 떠났다. 사마의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곧장 서성을 점령하라. 서성에서 사곡으로 진격한다. 서성은 비록 산골의 작은 고을이나 촉나라 군사가 식량을 쌓아두는 곳이며, 남안, 천수, 안정 세 군을 잇는 요충지다. 만약 이 성을 얻는다면 세 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에 사마의는 신담과 신의를 남겨 열류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사곡으로 진격했다.

한편, 제갈량이 마속 등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명한 뒤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왕평이 사람을 보내 보고서를 전해 왔다. 제갈량이 사람을 불러들이자 좌우의 신하들이 보고서를 받들어 올렸다. 제갈량이 책상 위에서 보고서를 펼쳐 읽더니, 탁자를 내리치며 크게 놀라 외쳤다.

“마속이 무지하여 우리 군대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좌우의 신하들이 이유를 묻자 제갈량이 말했다.

“이 보고서를 보니, 요충지를 버리고 산 위에 진을 쳤다고 하는구나. 만약 위나라 군대가 대거 몰려와 사방에서 에워싸고 물길을 끊어버린

다면,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군대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가정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나?”

장사 양의가 나아가 말했다.

“소인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마속을 대신하여 그 일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갈량은 군대를 배치하는 법을 하나하나 양의에게 일러주었다. 막 움직이려는데,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가정과 열류성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갈량은 발을 구르며 길게 탄식했다.

“큰일을 그르쳤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

제갈량은 급히 관흥과 장포를 불러 명령했다.

“너희 둘은 각각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무공산의 좁은 길로 가거라. 위나라 군대를 만나더라도 크게 싸우지 말고, 그저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의병인 것처럼 위협만 하여 그들을 쫓아내라. 또한 적을 추격해서도 안 된다. 군대가 모두 퇴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평관으로 가거라.”

또한 장익에게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검각을 수리하여 돌아올 길을 대비하게 했다. 이어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대군이 몰래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하게 했다. 마대는 강유와 함께 후방을 차단하도록 하여,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모든 군사가 퇴각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병사를 거두게 했다. 아울러 심복들을 보내 천수, 남안, 안정 세 군의 관

리와 군민들을 모두 한중으로 피신시키게 했다. 또한 심복을 보내 기현에 있는 강유의 노모를 모셔다가 한중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게 했다.

제갈량이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마친 뒤, 먼저 오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서성현으로 가서 군량과 풀을 운반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열 차례 넘게 급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사마의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을 향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제갈량의 곁에는 큰 장수가 없었고 문관들뿐이었는데, 그나마 있던 오천 명의 군사도 이미 절반은 군량을 운반하러 떠나버려 성안에는 이천오백 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은 모두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제갈량이 성벽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과연 먼지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며 위나라 군사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서성현을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다. 제갈량은 즉시 명령을 내려 모든 깃발을 숨기게 하고, 장수들에게는 각자 성의 초소를 지키게 하며, 만약 함부로 출입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처형하라고 엄히 일렀다. 또한 성문의 네 곳을 활짝 열되, 문마다 군사 스무 명씩을 배치하여 백성처럼 차려입게 한 뒤 거리를 청소하게 했다. 그러고는 "위나라 군사가 도착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제갈량은 곧 학의 깃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머리띠를 두른 채, 어린 시종 둘을 데리고 거문고 하나를 챙겨 성 위의 적루에 올라갔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앉아 향을 피우고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다.

한편, 사마의의 전군 초병들이 성 아래에 이르러 그 광경을 보고는 모두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히 사마의에게 보고했다. 사마의

는 웃으며 믿지 않았으나, 곧 삼군을 멈춰 세우고 직접 말을 달려 멀리서 성 안을 살펴보았다.

과연 제갈량이 성루 위에 앉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향을 피우고 거문고를 타고 있었다. 왼쪽에는 한 동자가 보검을 받들어 들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다른 동자가 먼지떨이를 들고 있었다. 성문 안팎에는 스무 명 남짓한 백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마당을 쓸고 닦고 있었다.

사마의는 이를 보고 크게 의심이 들어 곧장 중군으로 돌아갔다. 그는 후군에게는 전군의 역할을, 전군에게는 후군의 역할을 맡겨 북쪽 산길을 향해 퇴각하도록 명령했다.

아들 사마소가 물었다. "제갈량이 군사가 없으니 저런 모습을 꾸며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물리려 하십니까?"

사마의가 대답했다. "제갈량은 평소 신중하여 결코 위험한 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저렇게 성문을 활짝 열어둔 것은 필시 매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군사가 나아갔다가는 저들의 계략에 빠질 것이니,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어서 빨리 물러나거라."

이에 두 갈래로 나뉜 군대는 모두 물러갔다. 제갈량은 위나라 군대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장수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제갈량에게 물었다.

"사마의는 위나라의 이름난 장수인데, 지금 15만 정예병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가 승상님을 보자마자 이토록 빨리 물러가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평소 신중하여 위험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다 저런 모습을 보고는 필시 매복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여 물러간 것이다. 내가 위험한 수를 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런 방법을 쓴 것이다. 저 사람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산 북쪽의 작은 길로 돌아갈 터인데, 이미 관흥과 장포 두 사람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해 두었다."

모두가 경탄하며 말했다. "승상님의 신묘한 계책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희 같았으면 분명 성을 버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 병력은 고작 2,500명뿐이다. 만약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면 결코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것이니, 사마의에게 붙잡히지 않았겠느냐?"

후대의 사람이 시로 찬양하기를,

"세 자 거문고 소리가 웅맹한 군대보다 낫구나, 제갈량이 서성에서 적을 물리치던 그때. 15만 대군이 말머리를 돌린 곳을, 후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의아해하며 가리키네."

말을 마친 그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만약 사마의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서성의 백성들에게 군대를 따라 한중으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사마의가 반

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갈량은 서성을 떠나 한중을 바라보며 퇴각했다. 그사이 천수, 안정, 남안 삼군의 관료들과 군사들이 차례로 합류해 왔다.

한편, 사마의는 무공산의 샛길을 통해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산비탈 뒤쪽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땅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사마의가 뒤를 돌아보며 두 아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갈량의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때 큰길 쪽에서 한 군대가 몰려오는데, 깃발에는 ‘우호위사 호익장군 장포’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위나라 병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채 얼마 가지 못해 이번에는 산골짜기에서 땅을 울리는 함성과 하늘을 뒤흔드는 북소리,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에는 ‘좌호위사 용양장군 관흥’이라 적힌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함성 소리로 보아 촉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위나라 군사들은 마음이 불안하여 감히 머물지 못하고, 군수 물자를 모두 버려둔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장포와 관흥 두 장수는 장수의 명령을 받들어 감히 추격하지 않았으나, 버려진 무기와 식량을 많이 거두어 돌아왔다. 사마의는 골짜기마다 촉나라 군사가 가득한 것을 보고 큰길로 나가지 못한 채 가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때 조진은 제갈량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그런데 산 뒤편에서 포성 한 발이 울리더니, 촉나라 군사가

산과 들을 가득 메우며 몰려왔다.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강유와 마대였다. 조진이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물릴 때, 이미 선봉장 진조는 마대의 칼에 목숨을 잃은 뒤였다. 조진은 병사들을 이끌고 쥐새끼처럼 도망쳐 돌아갔고, 촉나라 군사는 밤을 도와 모두 한중으로 복귀했다.

한편, 조운과 등지는 기곡 길목에 매복해 있었다. 제갈량이 퇴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조운이 등지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대가 우리가 물러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오.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그들 뒤편에 매복할 테니, 그대는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 군의 깃발을 흔들며 천천히 후퇴하시오. 그러면 내가 차례차례 뒤따라가며 호송하겠소."

한편, 광희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기곡으로 향하며 선봉인 소옹을 불러 명령했다. "촉나라 장수 조운은 용맹하기가 적수가 없으니, 그대가 각별히 주의하여 방비하라. 저들이 만약 후퇴한다면 반드시 다른 계책을 품고 있을 것이다." 소옹이 기쁘게 대답했다. "도둑께서 뒤를 받쳐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조운을 생포해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전부 3천 병사를 이끌고 기곡으로 달려 들어갔다.

한참을 달려 촉군과 마주쳤는데, 산비탈 뒤에서 '조운'이라는 글자가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적힌 깃발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소옹은 깜짝 놀라 급히 군사를 거두어 후퇴했다. 그러나 몇 리도 못 가 갑자기 큰 함성이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돌진해 나왔다. 선두에 선 대장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나오며 크게 외쳤다. "네놈이 조자룡을 아느냐!" 소옹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이곳에 또 조운이 있단

말이냐!" 미처 손쓸 새도 없이 소웅은 조운의 창에 찔려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남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조운이 그대로 전진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군사가 나타나니 바로 광희의 부장 만정이었다. 조운은 위나라 군사가 급히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말을 멈춰 세우고 창을 겨눈 채 길목에 서서 적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촉군은 이미 30여 리를 멀리 떠난 상태였다. 만정은 상대가 조운임을 알아보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뒤이어 광희의 군사가 도착하자 만정이 말했다. "조운의 용맹함이 예전과 다름없어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광희가 군사들에게 서둘러 추격하라고 명령하자, 만정은 용맹한 기병 수백 명을 이끌고 뒤따라갔다. 그런데 큰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조자룡이 여기 있다!"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그 기세에 놀란 위나라 군사 백여 명이 말에서 떨어졌고, 나머지는 모두 산을 넘어 달아났다. 만정이 간신히 맞서 싸우려 했으나, 조운이 쏜 화살에 투구 장식이 맞아 놀라 개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조운이 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목숨만은 살려 보내줄 테니, 어서 돌아가 광희에게 빨리 오라고 전하라!" 만정은 목숨을 건진 채 황급히 도망쳤다.

조운은 수레와 병사들을 잘 보호하며 한중을 향해 나아갔고, 가는 길에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았다. 한편 조진과 광희는 다시 세 군을 탈환했으나, 이는 모두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다.

한편, 사마의가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는 동안 촉나라 군대는 모두 한중으로 철수하였다. 사마의가 한 부대를 이끌고 다시 서성에 이르

러, 그곳에 남은 주민들과 산골짜기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니, 모두 제갈량이 성안에 이천오백 명 정도의 군사만 두고 있으며 무장은 없고 문관 몇 명뿐일 뿐, 다른 매복은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 무공산의 한 백성이 고하기를, “관흥과 장포가 각각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돌며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며 위협하며 쫓아낼 뿐, 다른 군사는 없으니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사마의는 뒤늦게 후회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내가 제갈량만 못하구나!” 사마의는 관민들을 달래 안심시킨 뒤, 군사를 이끌고 곤장 장안으로 돌아가 위나라 황제를 알현하였다. 조예가 말했다. “오늘 농서의 여러 군을 다시 얻은 것은 모두 경의 공이요.” 사마의가 아뢰기를, “지금 촉나라 군사들이 모두 한중에 있어 아직 다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신에게 대군을 보내 힘을 합쳐 사천을 평정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사마의에게 즉시 군사를 일으키라고 명하였다. 이때 조정의 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다. “신에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충분히 촉나라를 평정하고 오나라를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촉나라의 장수와 승상이 나라로 돌아가려 하는데, 위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계책을 내놓는 자가 누구인지, 결국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6회 — 공명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고, 주방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조휴를 속이다

孔明揮淚斬馬謖 周魴斷髮賺曹休

한편, 계책을 낸 사람은 상서 손자였다. 조예가 물었다. "경에게 무슨 묘책이 있는가?"

손자가 아뢰었다. "옛날 태조 무황제께서 장로(張魯)를 평정하실 때를 보면, 위태로운 지경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성공하셨습니다. 일찍이 무황제께서 신하들에게 '남정 땅은 참으로 하늘이 만든 감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곡도(斜谷道)는 오백 리에 이르는 돌 동굴 같은 험로라 무력을 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천하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촉을 치려 한다면, 동오가 또다시 침입해 올 것입니다. 차라리 현재의 병력으로 대장들을 나누어 명하여 험요한 요충지를 지키게 하며 힘을 기르는 것이 낫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 중원의 국력이 날로 번창하면, 오나라와 촉나라 두 나라는 반드시 서로 싸

우며 힘을 뺄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폐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조예가 사마의에게 물었다.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손 상서의 말이 매우 타당합니다."

조예가 그 뜻을 따랐다. 사마의에게 명하여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 험한 요충지를 지키게 하였고, 곽준과 장합에게는 장안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큰 상으로 수레 세 대를 내린 뒤, 어가를 돌려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제갈량이 한중으로 돌아와 군사를 점검해 보니 조운과 등지만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몹시 초조했다. 이에 제갈량은 관흥과 장포에게 각각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이 막 움직이려 할 때, 갑자기 조운과 등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병사나 말 한 마리도 잃지 않았으며, 군수 물자 또한 하나도 유실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조운이 황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리며 말했다. "패전한 장수가 어찌 승상께서 멀리까지 나와 마중하게 해 드립니까?"

제갈량이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손을 맞잡고 말했다.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하여 이런 일을 겪게 되었구나! 다른 곳의 병사들은 모두 큰 손실을 입었는데, 오직 자룡만이 병사 하나, 말 한 마리도 잃지 않았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등지가 보고했다. "제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갔고, 자룡이 홀로 후방을 지키며 적의 장수를 베고 공을 세워 적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군수 물자와 살림살이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진정한 장군이로다!"

제갈량은 즉시 금 쇠 근을 가져다 조운에게 하사하고, 비단 만 필을 가져다 조운의 부하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조운이 사양하며 말했다. "삼군 전체에 큰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죄가 있는데, 도리어 상을 받는다면 승상의 상벌이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선 창고에 맡겨 두셨다가 이번 겨울에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선제께서 살아 계실 때 늘 자룡의 덕망을 칭찬하셨는데, 과연 그렇구나!"

제갈량은 조운을 더욱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때 마속, 왕평, 위연, 고상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먼저 왕평을 막사로 불러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마속과 함께 가정을 지키라고 명했는데, 어찌하여 그를 간언하지 못해 이토록 큰 일을 그르쳤단 말인가?"

왕평이 대답했다. "제가 몇 번이고 마속에게 길목을 막아 흡성을 쌓고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참군은 크게 화를 내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사 오천을 이끌

고 산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위나라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산 사방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이끌고 십여 차례나 돌파를 시도하며 싸웠으나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세가 무너지듯 기울어 항복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워 위연(위문장)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갔으나, 가는 도중에 다시 위나라 군사들에게 산골짜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워 겨우 빠져나왔으나, 돌아와 보니 이미 위나라 군대가 진영을 점령한 뒤였습니다. 이후 열류성(列柳城)으로 가던 중에 고상을 만나, 가정을 되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병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위나라 진영을 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보니 매복해 있는 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니, 위연과 고상이 위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적진을 뚫고 들어가 두 장수를 구해낸 뒤, 참군과 합류했습니다. 저는 양평관을 잃을까 두려워 급히 돌아와 수비하러 온 것입니다. 제가 간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승상께서 믿기지 않으신다면 각 부대 장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갈량이 호통을 쳐 물러나게 한 뒤, 다시 마속을 장막 안으로 불러 들였다. 마속은 스스로 몸을 묶은 채 장막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갈량은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너는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통달하여 전술에 매우 밝았다. 내가 몇 번이고 신신당부하며 경계하지 않았더니, 가정은 우리 군의 근본이며, 너는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 중책을 맡았다. 네가 만약 왕평의 말을 일찍 들었더라면 어찌 이런 화를 당했겠느냐? 지금 군사를 패하고 장

수를 잃으며 땅과 성까지 내어준 것은 모두 네 잘못이다! 군법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어찌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법을 어겼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죽은 뒤에 남겨질 가족은 내가 매달 녹봉과 쌀을 보내 돌볼 터이니,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말을 마친 제갈량이 좌우에 명령하여 마속을 끌어내 처형하게 했다. 마속이 울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고, 저는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저의 죽을 죄는 실로 피하기 어려우나, 부디 승상께서 옛 순임금께서 곤(鯀)을 죽이고도 그 아들 우(禹)를 등용하셨던 의리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제가 죽는다 해도 저승에서 한이 없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마속이 크게 통곡했다. 제갈량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너를 형제처럼 여겼으니, 네 아들은 곧 나의 아들이나 다름없다. 너는 당부할 말이 없구나."

군사들이 마속을 원문 밖으로 끌어내어 참수하려 했다. 이때 성도에서 달려온 참군 장완이 마속을 죽이려는 무사들을 보고 크게 놀라 사람들을 멈춰 세우더니, 제갈량을 찾아가 말했다.

"옛날 초나라가 (성)득신을 죽이자 진(晉)나라 문공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지략이 뛰어난 인재를 죽이는 것이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옛날 손무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을 명확히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만약 법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적을 토벌할 수 있겠습니까? 마속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잠시 후, 무사가 마속의 머리를 계단 아래로 가져왔다. 제갈량은 대성통곡하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장완이 물었다.

"지금 마속이 죄를 지어 군법을 바로 세우셨는데, 승상께서는 어찌 하여 이토록 우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마속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선제께서 백제성에서 위기에 처하셨을 때 내게 당부하시기를,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니 크게 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다. 이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나니, 나의 식견이 부족했음을 깊이 한탄하며 선제의 명철함을 추억하며 통곡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본 크고 작은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마속의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때는 건흥 6년 여름 5월이었다. 후세에 사람이 시를 지어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정을 잃은 죄 가볍지 않으니, 마속의 병법 논함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원문에서 목을 베어 군법을 엄히 세웠으나,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선제의 명철함을 생각하노라."

한편,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한 뒤 그 머리를 모든 진영에 보여주어 군법의 엄중함을 알렸다. 그러고는 마속의 머리를 시신에 다시 꿰매어 관에 넣어 정중히 장사 지내주었다. 또한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리고, 마속의 가족들을 세심히 살펴 매달 녹봉과 쌀을 주며 보살피게 했다.

이후 제갈량은 스스로 표문을 작성하여 장완을 통해 후주에게 올리게 하고, 승상의 직위를 세 단계 낮춰달라고 청했다. 장완이 성도로 돌아가 후주를 알현하며 제갈량의 표문을 올리자, 후주가 그것을 펼쳐 읽으며 말했다.

"신은 본래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과분하게도 높은 직책을 맡아 직접 군대를 이끌며 삼군을 독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로 세우고 명확히 가르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치밀하게 계책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명령을 어기게 만든 잘못과 기곡에서 경계를 게을리한 실책이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죄는 모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살피는 데 어두웠던 저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꾸짖음을 당해도 마땅한 죄이니,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스스로 세 단계를 낮추어 자신의 허물을 바로잡고자 하니, 부디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엎드려 명을 기다리나이다!"

후주가 글을 다 읽고는 말했다. "승패는 병가상사라 하거늘, 승상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시중 비의가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법을 받드는 것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승상께서 패배를 겪으셨으니, 스스로 관직을 낮추어 내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후주는 비의의 뜻을 따랐다. 이에 제갈량을 우장군으로 강등하되 승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이전과 같이 군마를 총괄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비의를 보내 한중으로 가서 조서를 전하게 했다.

제갈량이 강등되는 조서를 받은 뒤, 비의는 제갈량이 부끄러움을 느낄까 염려되어 축하하며 말했다. "촉나라 백성들은 승상께서 처음에 네 현을 함락하신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얻었다가 다시 잃는 것은 얻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께서 이런 말로 저를 축하하시니,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비의가 다시 말했다. "최근 승상께서 강유를 얻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천자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갈량이 화를 내며 말했다. "전쟁에서 패해 군사를 돌렸으니, 적의 땅을 한 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죄입니다. 겨우 강유 한 명을 얻은 것이 위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비의가 또 말했다. "승상께서는 현재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계시니, 다시 위나라를 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예전에 대군을 기산과 기곡에 주둔시켰을 때, 우리 군사가 적보다 많았음에도 적을 격파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했습니다. 이는 병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主將)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군사를 줄이고 장수를 정비하며, 벌을 엄히 하고 허물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변통의 방도를 헤아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병사가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라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이가 있다면, 부디 저의 잘못을 힘써 꾸짖고 저의 단점을 책망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업을 정할 수 있고 적을 멸할 수 있으며, 공도 머지않아 발돋움하여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의와 여러 장수가 모두 제갈량의 논리에 감복하였다. 비의는 성도로 돌아갔다. 제갈량은 한중에 머물며 군사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며, 무예를 닦고 군비를 강화하였다. 공성 병기와 강을 건널 도구들을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며, 뒷날을 대비해 전투용 깃발을 준비하였다. 이 소식은 첩보원을 통해 낙양에 보고되었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마의를 불러 촉나라를 공격할 방책을 상의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촉나라는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마침 하늘의 기운이 너무 뜨거워 촉나라 군사들이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이 그곳

깊숙이 들어간다면, 저들이 험한 요충지를 지키고 있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조예가 물었다.

"만약 적군이 다시 침입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신이 계산해 보니, 이번에 제갈량은 반드시 한신이 진창을 몰래 통과했던 계책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적당한 사람 한 명을 진창 길목에 보내 성을 쌓고 지키게 한다면 결코 실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키가 아홉 자에 달하고 팔이 길어 활을 잘 쏘며, 지략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제갈량이 침입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그가 누구인가?"

사마의가 아뢰었다.

"태원 사람으로, 성은 학(郝), 이름은 소(昭), 자는 백도(伯道)라 합니다. 현재 잡패장군으로서 하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예는 사마의의 말을 따라 학백도를 진서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진창 길목을 지키도록 명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조서를 전달하게 했다.

한편, 양주사마 대도독 조휴가 상소를 올려 보고했다. 오나라 심양 태수 주방이 자신의 군(郡)을 바쳐 항복하겠다고며,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일곱 가지 사정을 전해왔으니 이를 근거로 오나라를 격파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군사를 일으켜 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조예는 어좌에서 상소를 풀어 사마의와 함께 살펴보았다. 사마의가 아뢰기를, "이 말은 매우 일리가 있으니 오나라는 마땅히 멸망할 것입니다. 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휴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때 조정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오나라 사람들의 말은 이랬다저랬다 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방 같은 지략가라면 결코 쉽게 항복할 리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군사를 유인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건위장군 가규였다. 사마의가 말했다. "가규의 말 또한 듣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자 조예가 말했다. "사마의는 가규와 함께 조휴를 도와라."

두 사람이 명을 받들어 물러가자, 조휴는 대군을 이끌고 곧장 완성으로 향했다. 가규는 전장군 만총과 동완 태수 호질을 거느리고 양성을 거쳐 동관으로 직행했다. 사마의는 자신의 본대를 이끌고 강릉으로 나아갔다.

한편, 오나라 황제 손권은 무창 동관에 머물며 여러 관리와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파양태수 주방이 비밀리에 표문을 올려 보고하기를, 위나라 양주 도독 조휴가 침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방이 속임수를 써서 일곱 가지 계책을 암암리에 펼치며 위나라 군사를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으니, 매복을 설치해 그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위나라 군사가 세 갈래로 오고 있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고옹이 나아가 말했다. "이 중대한 임무는 육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육손을 불러 보국대장군 겸 평북도원수로 봉하고, 어림군의 대군을 통솔하며 왕의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또한 백모황월(白旆黃鉞)을 수여하니 문무백관이 모두 그의 명령을 따랐다. 손권은 직접 육손을 위해 채찍을 잡으며 격려했다.

육손이 명을 받고 은혜에 감사한 뒤, 두 사람을 좌우 도독으로 삼아 병력을 나누어 세 갈래 길을 맞이하게 했다. 손권이 누구를 보낼지 묻자, 육손이 대답했다. "분위장군 주환과 타남장군 전종, 이 두 사람이 저를 보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이 그 뜻을 따르니, 즉시 주환을 좌도독으로, 전종을 우도독으로 삼았다. 이에 육손은 강남 81주와 형호(荊湖) 지역의 군사 70여만 명을 총괄하여, 주환을 왼쪽에, 전종을 오른쪽에 두고 자신은 중앙에 서서 세 갈래로 진격했다.

주환이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조휴는 황제의 친임을 받은 자이나 지략과 용맹이 뛰어난 장수는 아닙니다. 지금 주방의 유혹에 넘어가 깊숙이 들어오고 있으니, 원수께서 군사로 치시면 조휴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패한 뒤에는 반드시 두 갈래 길로 도망칠 텐데, 왼쪽은 험석이고 오른쪽은 계차입니다. 이 두 길은 모두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매우 험준합니다. 저와 전종(자황)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험한 산에 매복해 있다가, 먼저 나무와 큰 돌로 길을 막아버린다면 조휴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휴를 사로잡는다면 곧장 진격하여 손쉽게 수춘을 점령하고, 나아가 허창과 낙양까지 노릴 수 있으니 이는 만세에 한 번 올 기회입니다."

육손이 말했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니, 내게 따로 묘책이 있소." 그러자 주환은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은 채 물러났다. 육손은 제갈근 등에게 강릉을 지키게 하여 사마의의 군대를 막게 하고, 모든 군로에 병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대비하게 했다.

한편, 조휴가 군사를 이끌고 완성 근처까지 진격하자 주방이 마중을 나와 곧장 조휴의 막사로 들어갔다. 조휴가 물었다.

"최근 그대가 보낸 편지를 잘 받았소. 그대가 말한 일곱 가지 사항은 매우 일리가 있어, 이를 천자께 아뢰고 세 갈래로 대군을 일으켜 진격하게 되었소. 만약 강동 땅을 얻게 된다면 그대의 공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대가 꾀가 많다고 하니, 혹시 그 말이 사실일까 두렵구려. 나는 그대가 결코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소."

그러자 주방이 크게 통곡하며 급히 수행원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 했다. 조휴가 급히 말렸다. 주방이 칼을 쥔 채 말했다.

"내가 아뢰는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 심장을 꺼내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소. 그런데 도리어 의심을 사다니, 필시 오나라 사람이 이 간질을 하려는 계책을 쓴 것이 분명하오. 만약 그 말을 믿으신다면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나의 충심은 오직 하늘만이 아실 것이요!"

말을 마친 주방이 다시 자결하려 하자, 조휴가 크게 놀라 황급히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내가 농담을 한 것이요. 그대가 어찌 이토록 행동하시오?"

그러자 주방은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 던지며 말했다.

"나는 충심으로 그대를 대하였으나, 그대는 나를 농담거리로 여기셨소.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나의 이 마음을 증명하겠소."

조휴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잔치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잔치가 끝나고 주방이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건위장군 가규가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휴가 그를 들여보내게 한 뒤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왔는가?"

가규가 말했다. "제가 헤아려 보니, 오나라 군사는 분명 완성에 모두 집결해 있을 것입니다. 도둑께서는 가벼이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양쪽에서 협공한다면 적군을 반드시 격파할 수 있습니다."

조휴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대는 나의 공을 가로채려는 것인가?"

가규가 다시 말했다. "또한 주방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맹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옛날 요리가 팔을 끊어 경기를 찢어 죽인 일도 있으니, 결코 깊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조휴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막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그대는 어찌 그런 말을 하여 우리 군의 사기를 꺾으려 하는가!" 그러고는 좌우의 병사들에게 호통을 쳐 가규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장수들이 달려와 간청했다. "아직 군사를 움직이기도 전에 대장을 먼저 죽이는 것은 군사에 이롭지 않습니다. 부디 잠시 살려두어 주십시오." 조휴는 그 말을 듣고 가규의 병사들을 진영에 남겨두어 마음대로 부리기로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동관을 치러 나갔다.

한편, 주방은 가규가 병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조휴가 만약 가규의 말을 들었다면 오나라가 패했을 것이다! 오늘 내가 큰 공을 세우게 되었구나!"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완성에 있는 육손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알렸다.

육손은 장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앞에 있는 석정은 비록 산길이지만 매복하기에 충분하다. 미리 석정의 넓은 곳을 점령하여 진을 친 뒤, 위나라 군사가 오기를 기다려라." 그러고는 서성을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게 했다.

한편, 조휴는 주방에게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한창 행군하던 중에 조휴가 물었다. "앞이 어디쯤인가?" 주방이 대답했다. "앞에 있는 석정입니다. 군사를 주둔시키기에 적합합니다." 조휴는 그의 말을 따랐고, 곧 대군과 수레, 각종 장비를 모두 이끌고 석정에 도착해 주둔했다.

다음 날,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앞에 오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 산길 입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조휴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주방은 군사가 없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저리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나!" 조휴가 급히 주방을 찾아 물었으나, 사

람들이 보고하기를 주방은 수십 명의 병사만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조휴는 크게 후회하며 탄식했다. "내가 적의 계략에 빠졌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 그는 곧 대장 장보를 선봉으로 삼아 수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나라 군사와 싸우게 했다. 두 진영이 마주 대치하자, 장보가 말을 타고 나가 외쳤다. "적장들은 어서 항복하라!" 그러자 서성이 말을 타고 나와 맞서 싸웠다. 수없이 합을 겨루었으나 장보가 버티지 못하자, 그는 말을 돌려 군사를 거두고 조휴에게 돌아가 서성이 용맹하여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고 보고했다.

조휴가 말했다. "내가 기습 부대를 써서 승리하겠다." 그는 곧 장보에게 명령하여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석정 남쪽에 매복하게 했다. 또한 설교에게도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석정 북쪽에 매복하게 했다. "내일 내가 직접 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 것이다. 그러다 일부러 지는 척하며 패배를 가장하여 적을 북산 앞으로 유인하겠다. 그때 포를 쏘아 신호를 보내면, 삼면에서 협공하여 반드시 대승을 거둘 것이다." 두 장수는 이 계책을 받아들여, 각자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 매복하러 떠났다.

한편, 육손이 주환과 전종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 둘은 각각 삼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석정산 쪽으로 돌아 조휴의 진영 뒤쪽으로 잠입한 뒤,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시오. 나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중앙 길로 진격하여 조휴를 사로잡겠소." 그날 황혼 무렵, 두 장수는 계책을 받아들여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밤이 깊어 이경쯤 되었을 때, 주환이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 진영 뒤쪽으로 잠입하다가 매복해 있던 장보와 맞닥뜨렸다. 장보는 상대가 오나라 군사인 줄 모르고 시간을 물으러 다가오다가, 주환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위나라 병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자, 주환은 후군에게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한편, 전종이 이끄는 군사도 진영 뒤쪽으로 잠입하다가 마침 설교의 진영과 부딪쳤는데, 그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설교가 패하여 달아나자 위나라 병사들은 큰 피해를 입고 본진으로 도망쳤다. 이때 뒤쪽에서 주환과 전종의 두 갈래 군사가 몰려왔다. 조휴의 진영은 큰 혼란에 빠져 아군끼리 서로 충돌하며 난리가 났다. 조휴는 황급히 말에 올라 협석도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서성이 대군을 이끌고 정면 길로 들이닥쳤다. 위나라 병사들은 죽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고, 도망치는 자들은 갑옷조차 버려둔 채 달아났다. 조휴는 크게 놀라 협석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갑자기 좁은 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왔는데,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가규였다. 조휴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 패배를 맞이했구나!" 가규가 외쳤다. "도둑끼리는 어서 이 길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만약 오나라 군사가 나무와 돌로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모두 위험해집니다!" 이에 조휴는 말을 몰아 급히 달렸고, 가규가 뒤를 막아섰다.

가규는 나무가 무성한 곳과 험한 오솔길 곳곳에 깃발을 세워 적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곧이어 서성의 군대가 들이닥쳤으나, 산비탈 아래에서 깃발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추격

하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 물러났다. 덕분에 조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사마의 또한 조휴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퇴각했다.

한편, 육손이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서성, 주환, 전종이 모두 도착했다. 그들이 거두어들인 수레와 말, 나귀, 군수품과 무기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항복한 병사도 수만 명에 달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며 태수 주방, 그리고 여러 장수와 함께 군사를 돌려 오나라로 돌아갔다.

오나라 황제 손권은 문무 관료들을 거느리고 무창성 밖으로 나가 육손을 맞이하였으며, 임금의 일산(御蓋)을 육손에게 씌워 주며 함께 성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장수에게는 승전의 공을 치하하며 상을 내렸다. 손권은 주방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위로하며 말했다. "경이 머리카락을 끊어 이 큰일을 이루었으니, 그 공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요." 그러고는 주방을 관내후로 봉하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승리를 축하했다.

육손이 아뢰기를, "지금 조휴가 크게 패하여 위나라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으니, 국서를 작성하여 사신을 촉한에 보내 제갈량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도록 권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손권이 그 말을 따랐으므로, 곧 사신에게 서신을 들려 촉한으로 보냈다.

승전의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동쪽 나라의 계책이 서쪽 나라를 다시 전쟁터로 불러들이게 되었으니, 과연 제갈량이 다시 위나라를 공격했을 때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